

강릉단오제의 원형과 발전전략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 김 선 풍

1. 서언

江陵端午祭는 신화를 안고 부활한 축제이다. 신화적 思惟와 관습을 안고 살아온 강릉 주민은 다가올 죽음과 허무함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요법을 개발했으며, 그것을 축제라는 용광로에 넣어 고난을 극복해 왔다.

신화를 거의 도외시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현대 문명의 이기를 십분 이용하며 잘 사는 것 같지만 예견한 지상낙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아니 좀더 깊이 사고해 보면 현대사회는 정신병적인 방종의 사회와 신화를 허구이며 열등한 사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짬으로 置之度外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신화를 만드는 존재이다. 신화적 삶을 살아갈 방법은 모를지언정 신화를 수동적 자세로 대하기보다 이제 적극적인 신화모방이나 참여·개발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나 ‘로마’ 하면 누구나 그들의 신화와 신전이 연상될 것이다. 신화가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차라리 신화의 자부심으로 사는 민족이 그들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강릉단오제에 얽힌 여러 신화를 어떻게 개발하고 축제화할 것인지 필자의 소견과 대안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신화장(神話場)의 부활

몇 년 전 필자는 이미 《江陵端午祭白書》(1999, 강릉문화원)에 강릉단오제의 발전 전략의 일부를 소개한 바 있으니 이는 다음과 같다.

이제 강릉단오제가 거대한 세계무형문화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강릉단오제를 사랑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미완의 과제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신화가 깃들여 있는 모범 축제이기 때문에 신화의 재발견과 신화의 구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신화의 장소를 聖域化할 필요가 있다. 鶴山の 鶴바위, 石泉, 掘山寺址와 商山峙의

花浮山祠와 12神을 모셨던 大城隍祠, 그리고 月花亭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셋째, 강릉단오제 민속촌을 활성화하여 1년 중 어느 때 찾아와도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과 교육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제 관광적 수입을 고려할 계획을 우선 세워야 할 것이다.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북아시아 제 민족의 단오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오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

여섯째, 세계인들이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단오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연차별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강릉단오제 관련 巫歌集과 民謠集·說話集 등을 총서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1973년 關東大學校에 재임시 필자는 고 金振伯翁을 몸소 찾아가 관광차원에서 月花亭과 大城隍祠를 꼭 복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江陵金氏 문중의 어르신네를 같이 만난 적이 있다.

너무나도 詩처럼 아름답고 소설 같은 낭만이 담겨 있는 <溟州歌>에 폭 빠진 필자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회유했으나 여의치 않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성사가 되지 않았던 기억이 새롭다.

신화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지를 제시해 준다. 그곳에 모신 제신(諸神)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직능이 다르다.

신화는 이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다른 어떤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욱 강력한 실제, 곧 신들의 세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실제에 대한 믿음은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영원철학(perennial philosophy)’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의 모든 사회의 신화와 의식,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작용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보다 전통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신화는 쓸모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전능한 신들을 모방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神聖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기에 그들은 堂 이나 祠宇를 지어 신들을 모셔놓고 새해맞이나 단오 때 주기적으로 연극을 통해 의식을 벌였다. 모든 훌륭한 연극이 그러하듯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관객과 연출하는 이로 하여금 세속의 근심 걱정을 잊게 하는 곳, 그곳이 神聖空間의 놀이場인 것이니 江陵 大城隍祠나 大昌驛의 공간이 바로 그곳이다.

강릉단오제가 임박하면 제반의식이나 놀이로 신을 娛神하게 된다. 과거 음력 5월 1일 大城隍祠 앞에서 벌어지는 官奴假面劇의 연출도 바로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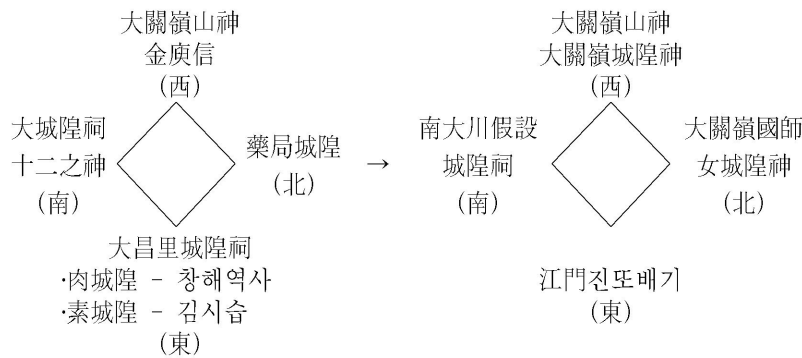
大城隍祠 복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金京南의 논문으로 미루고 필자는 大城隍祠 神을 중심으로 한 신화의 상징성과 발전전략을 찾아보고자 한다.

원래 강릉단오제는 12神을 모시고 있던 大城隍祠를 중심으로 한 제의였다. 그러나 大城隍祠가 없어진 후 단오제의 공간 이동이 시작되어 南大川邊(지금의 강릉의

료원 앞 南門洞 堤防거리)에 있었던 女城隍堂이 잠시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어느 해인가 폭우에 의하여 이 女城隍堂이 또 소실되자 國師女城隍堂만 현재의 弘濟洞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제의의 공간은 南大川에 남게 되는 상황이 되어 현재 南大川에서 단오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후에 大城隍祠의 철거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城隍堂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리하여 시내 북쪽에 위치한 藥局城隍이나 동쪽에 위치한 大昌里城隍도 사라지게 되는 배경이 되고 말았다. 과거 제의 때에는 제관, 임원, 무격 등이 大昌驛馬를 타고 大關嶺을 왕복하고 神木을 모시고 도착하였다. 이 大昌里城隍堂에는 肉城隍堂과 素城隍의 二位를 모셨는데 肉城隍인 滄海力士와 素城隍인 金時習(1434~1493)을 제사했다.¹⁾

金京南은 단오제의와 관련된 공간과 제의의 變異樣相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1) 藥局城隍의 원형

藥局城隍은 강릉단오제 때 神木을 모시고 이곳에 들러 굿을 했던 곳이다. 任東權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花蓋를 앞세우고 大城隍祠를 출발하여 藥局城隍, 素城隍을 거쳐 시장, 田稅廳, 大同廳, 司倉廳에서 굿을 하고 花蓋는 女城隍에, 神竿은 大城隍祠에 봉안한다고 하였다.

이 城隍堂은 그 위치가 관청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路神的 성격을 지닌 성황²⁾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래 ‘藥局’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경전인 《法華經》에 나오는 25보살의 하나인 藥王菩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찰의 如來佛 가운데 중생의 모든 고뇌를 구제하여 재난을 없애 주고 질병을 구제하고 藥師琉璃光如來佛을 모시는 藥師堂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이다. 그래서 이 성황당에 기원하면 질병 바로 치유된다는 속설까지 널리 퍼져 있다.

1) 任東權의 조사에 의하면 1961년 도로공사 때에 大昌城隍祠는 철거되었다고 한다. [任東權, <江陵端午祭>, 《韓國民俗學論考》, 서울 : 集文堂, 1971, p. 221.]

2) 金京南, <江陵端午祭 諸神 研究>, 《아시아의 단오민속》, 國學資料院, 2002, p. 145.

과거 우리 先人들은 신화를 대개 典禮 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신성한 힘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 노래를 부르거나 음영·낭송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계기로 미지의 세계와 마주 보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신화의 힘을 빌어 썼다.

신화 창조의 주목적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治癒’에 있었다. 강릉 사람들도 재난이 닥쳤을 때나 대립을 멈추고 싶을 때, 혹은 병자를 낫게 하고 싶었을 때 巫歌를 통해 신화를 듣기도 했고 낭송을 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할 때 藥局城隍은 路神的 위상을 지닌 ‘治癒의 神’이라 하겠다.

(1) 大昌里城隍祠의 원형과 발전전략

大昌里城隍祠는 현재 강릉역 부근 玉泉洞에 위치한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과거에 驛院이 있었던 곳이다.

옛날 단오제 때가 되면 제관이나, 임원, 무격들이 大昌驛 말을 타고 大關嶺神을 모시러 갔던 것이니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大昌里城隍祠는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肉城隍이고, 또 하나는 素城隍이다. 時空을 초월한 두 성황이 좌경하게 된 데는 불교의 영향관계로 풀이되겠지만 원초적 신화의 주인공은 肉城隍 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素城隍의 주인공 金時習의 등장은 生六臣으로 생을 마감하고 그를 모신 淸簡祠가 생기고부터라고 본다.

필자가 조사한 肉城隍 신화는 다음과 같다.

[例話 1]

옛날에 옥거리 대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물가에 나가면 속곳이 보이는데 늙은 할멈이 나가서 빨래를 새 빨래를 씻다 보니까 된 뭉근 고지박이 하나 내려오거든, 물에 떠내려온단 말이야. 그걸 설렁 들고 땅에 갖다 놓으니 딱 깨지미 아가 나와 아가 나오니 썩까매. 그래서 승(성)이 없으니까 꺼물 여(예)자 여가라고 성을 졌거든. 그 이름을 강중이라고도 하는데 강중이라는 그 이름은 확실하게 없고 그 이름이 창해역사야. 나이 6살 먹은 게 9척이야. 9척인데 그 때에 우리나라에 사나운 호랭이가 나와 사람을 잡아가 그 후 인제 그 호랭이가 적 하고 나와서 사람을 하나씩 잡아가 우리나라 임금이 그 글 얘기를 듣고 말이야 아무리 제거할래야 할 도리가 없단 말이야. 근심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 여가(예가)가 말이야 이름이 창해역사라고 그래. 그 여가가 딱 듣더니 그 언제 나오는지 그 호랭이는 내가 잡겠다. 그래 이 믿지 않았다. 날 좀 알고다오. 그 인간은 믿지 않았다. 그 호랭이를 어떻게 잡으랴.

자, 오늘은 말야 호랭이가 나온다. 그 질목서 나오는 질목에 가서 지키다가는 호랭이가 나온다 말이야. 얼마만큼 지키다가 맞섰던지 호랭이 등허리에 올라앉으면서 주먹을 가지고 호랑이 골을 뺐단 말이야. 잡았거든. 잡아놓니 우리 우리나라 임금이 그 때 말이야 임금이 신라 댐지 모르겠어. 한테 거기 강릉 역사에 나오지 다 있어.

임금이 떡 듣더니 말이야 허, 장하다고 말이야. 그를 데려다가 상객 삼아 뵈었다. 그 임금 옆에 뒤 같이 놓고 이러는데 상객을 삼아 놓고 있는데 날마다 나가서 조련하는 게 120근

철퇴를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고 인지 혼련한단 말이야.

그 혼련하던 창해역사가 가지고 노던 철퇴가 대관령 성황에 있다가 해방된 지 언젠지 지방 서울 박물관에 있대.

그 얘기를 조선의 창해역사를 있다 하는 얘기는 대국 장량이 들었거든. 그 때 진시왕 때야. 진시왕이 폭군인데 장량이 진시왕을 없애올라 하나 누구 그럴 사람이 있는가. 그래 조선에 창해역사가 있다 하니 이 글 데려다가서는 폭군을 해다와. 그래 조선을 건네왔단 말야. 건네와서 창해역사와 얘기했거든. 그럼 내 건네 간다 건네간다. 같이 건네와 가지고 있더니까 진시왕이 떡 할루 있더니까 야외로 놀러 나간단 말이야. 나가는 걸 보니까 술(수레)을 열 둘을 타고 나가. 열 둘 타고 나가는데 창해역사가 말이야. 120근 철퇴를 들고선가 때린다는 게 진시왕 뒷차를 때렸거든. 앞차를 때렸더라면 때려 죽었을 텐데 뒷차를 때렸단 말이야.

그래고 방랑사란 모래 밑으로 내 기었던 말이야. 방랑사란 대국이 방랑사란 모래밭이 있는데 그 글 딱 꿰고서 내뺐거든. 그글 진시왕이 말이야 창해역사를 체포하라고 말이야 온 천하에 다다 내리니 찾을 데가 있는가 땅 밑으로 내 갯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며. 그 얘기는 말이야 저 통감에 있아.

요 다리에다 비래도 하나 내세울까 하는데 누가 뭐 돈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지. 비문의 제문이 있는데 강릉에 말이야 음 최영대란 이가 강릉 최가에 최영대라는 양반이 학자란 말이야. 성품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이를 알아. 그 양반이 지방도 글을 제 놓고 누가 돈만 내놓으면 그 글을 새겨 놓을 텐데 누구 내놓을 사람이 있어야지. 강릉이 역산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³⁾

[例話 2]

상상재가 있고 상산재(商山峯) 밑에는 군정교란 다리가 있는데, 강릉군과 정동면 하고선 그 상간에 있다고 해서 군정교라 했죠. 그것이 군정교에서 이쪽으로 가면 경포로 내려가고 군정교를 지나가면 오죽현으로 들러가지요. 그 위에는 상산재가 있는데 상산재에는 장자방(張子房)이 장량이 왔다 갔다는 설이 있어요. 장자방이 와 가지고서는 군정교를 건네 갔어요. 그 때는 다리는 없구 인제 돌로서 석교를 놔 가지고서 그 개울을 건너 갔는데 그래 건네 가보니까 노인 한 분이 건너 오는데 건너와 가지구선 신짱을 물에 떨군다. 신짱으로 떨구면서 짱은 청년보구 이 신짱을 줌 주어 달라고. 그러니까 장자방이 짱으니까 내려가서 건져줬어요. 건져주니까 노인이 어디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승명(성명, 이름)이 누구냐고 하니 승명도 넘겨주지 아니하고 책을 한 권 준단 말여.

황석공 소저 한 권을 주는데 이 노인의 성이 황석공이란 노인이라. 그 책은 말하자면 병서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든 책이죠. 그래서 장량이 왜서 강릉에 완고한즉 진시왕이 그 때 집권하고 있을 때에 분시서도 하고 그 때 유생도 붙잡아 죽이고 머 그랬잖아요. 서화를 마구 불에 태우고 그 폭정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얻어 가지고 가선 진시왕을 죽일려고 계획을 해서 강릉에 왔는데, 강릉에 마춤 역사(力士)가 있었는데 창해역사(滄海力士)란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해역사를 구해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진시왕이 수레를 타고 나가는데 임금이 거동하니 수레가 여러 개가 지나갔죠. 저 차에 진시왕이 탔으리라 하고 쳐들어가선 쳤으나 다음 차를 쳤다. 다음 차를 쳐 놓으니까 진시왕은 죽이지 못하고 다음 차를 벌명 뒤

3) 金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2-1) - 江陵·溟州篇, - 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p. 213~214.

잡어 놓으니까 그 다음 창해역사는 그만에 도망쳤어요.

통감(通鑑)에 보면 크게 열흘을 찾았다고 적혀 있어요. 진시왕을 죽일려고 하던 창해역사를 열흘간 찾았는데 붙잡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자 십일이라 적혀 있으니 잡기는 잡았겠죠. 창해역사의 성은 예가라고 해요. 검을 예자 예라고 했는데 그것은 창해역사가 남대천 물로서 두루박 같은 데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검게 보여서, 그래서 창해역사의 성은 예가라 하지요.⁴⁾

(3) 花浮山祠의 원형과 발전전략

《三國遺事》에 보면 신라 때부터 王神이나 將軍神을 단오 때 숭배한 기록이 나온다. 오늘날에도 花浮山祠에서는 전국의 金海金氏들이 모여 제향을 올리고 있으나 강릉신화의 주인공이 金庾信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성역화 작업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花浮山 정상에는 과거 花郎들의 練兵場이 있던 곳이다. 그곳을 개발하여 花郎道の 무예장을 만들어 신라의 무술을 가르치고 비행장 근처의 寒松亭 일대와 연계하여 신라의 茶道를 개발한다면 관광화 차원에서도 크게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3. 결론

1973년부터 신화와 전설의 場을 복원하는 길이 관광화의 지름길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 다른 것은 몰라도 大城隍祠와 大昌里城隍祠, 花浮山祠 및 月花亭 복원은 화급을 요하는 복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들이 복원되어야 수시로 신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축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藥局城隍을 모신 축제나 大昌里城隍을 모신 축제는 별도로 날을 잡아 축제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감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강릉은 뛰니 뛰니 해도 신화가 활화산처럼 살아 움직이는 고장이 되어야 산다. 강릉의 주신인 12신과 注文津·安仁津 등 주변 성황당 신화만 가지고도 강릉은 희랍과 로마처럼 강릉신화의 대사파나 ‘먹고 입고 살기’를 기약할 수 있다.

필자가 '70년대부터 주장해 왔던 복원사업이나 신화의 관광화가 부디 논문 한 편으로 다시 전략하지 않기를 관할기관에 부탁하는 바이다.

4) 김선풍, 위의 책, pp. 166~168.

경산자인단오의 지역적 양상

조춘호(대구한의대학교)

1. 서

단오를 지내는 방법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지만 그 근간은 대동소이하다. 각 가정에선 몸과 집 주위를 정결히 한 후, 마을 단위의 동제형식으로 지황(地皇), 산신 등에게 벽사, 풍농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여자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 잎을 머리에 꽂았다. 규방에만 갇혀있던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와 그네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씨름으로 체력을 발산시켰다. 또 탈놀음 등 여러 가지 민속연희를 즐기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옛날과 같은 단오행사가 전승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뿐인데, 경산 자인 지방에는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다고 전하는 단오굿을 지금까지 치러 오고 있다.

기록과 구전을 종합하면, “9세기 전후 신라시대에 왜구들이 자인의 도천산(到天山)에 성을 쌓고 기거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히자, 한 장군이 그의 누이와 함께 유제(柳堤=버들못) 뚝에서 여원무(女圓舞)와 배우잡희(俳優雜戲)의 놀이판을 벌여 이들을 유인하여 섬멸하였다고” 한다. 이후 한 장군은 자인 태수가 되었고, 한 장군이 죽은 후에 자인 주민들은 그의 충의를 추앙하여 여러 곳에 사당을 세웠고, 전래의 명절인 수릿날 즉 단오절에 추모 제사를 모신 후, 여원무와 배우잡희, 무당굿, 씨름, 그네 등 다채로운 민속으로 3-4일을 즐겼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경산자인단오의 시작이 되었다.

경산자인단오는 영남대학교 고 김택규 교수에 의하여 1969년 <여원무 조사보고>라는 내용으로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조사 보고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70년 5월 단오 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김천홍(金千興)·임석재(任皙宰) 두 분 문화재위원이 현장에 와서 직접조사하고, 그 해에 김천홍·최현(崔賢) 두분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조사보고>제 70호로 문화재관리국에 유인본으로 보고되었다. 그 후 1973년 “한장군놀이”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 44호로 지정되면서 자인단오제를 ‘한장군 문화제’로 개칭하여 행사해 오다가, 1991년 부터는 한묘제사, 여원무, 호장굿(가장행렬), 자인팔광대, 무당굿 등을 합하여 “자인단오제”라는 옛명칭을 찾았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하기도 하였으나, 1996년에는 경산시가 후원하여 자인단오- 한장군 놀이-로 명칭을 정착시키고,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거행하여 경산시 전통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명칭 문제가 2007년 “경산자인단오”로 고쳐 부르게 되어 단오굿의 종합적 체의체에 다양한 민속종목이 유기적으로 연희되고 있다.

2. 경산자인단오의 유래

경산장니단오의 신격(神格)은 한 장군이다. 한 장군의 실존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헌상 현전하는 현읍지와 지역 관련 인사의 문집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장군의 실재(實在)연대를 『자인읍지』(황기식편, 1932)에는 “신라와 고려사이(羅麗之間)”라 했으며, 임진왜란 때 자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청주 한씨라는 주장과, 고려 충렬왕 때 좌정승을 역임한 韓宗愈(한양출신)라는 설 등 여러 이설(異說)이 있지만 신빙성이 적고, 지역 주민은 한장군은 신라시대의 실재 인물로 자인단오제가 그 분을 추앙하여 제사드리고 굿판을 벌였던 것임을 기록이나 구전을 통해 굳게 믿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경주부 자인현편」에 “민속이 질박하고, 신라시대부터 전해 오는 유풍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자인읍지』 「풍속조」에도 그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아무튼, 한 장군은 자인지방에서 수호신으로 추앙되어 온 영격(靈格)이다. 그렇다면 한 장군은 과연 실제인물인가, 아니면 자인지방에서 추앙된 토속신앙의 신령인가? 『자인읍지』와 최문병의 『성재실기』에 나타난 기록, 도천산성의 자취, 버들못가의 참왜석,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삼정지 내의 한 장군 무덤, 자인공원의 진충묘, 마곡리의 진충당 등을 본다면, 한 장군의 실존을 지역 주민들은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설의 역사화 현상으로 자인단오의 의역사적(擬歷史的) 접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인읍지』에 자인현이 장산군(獐山郡)에 속해 있을때, 태수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기록과 한 장군이 죽은 후에 주민들이 그 분의 의(義)를 추모해서 사당을 세웠으며, 자인 단오제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의병을 일으킨 것과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시대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동일한 사건이면 한 장군의 거사가 의병의 거사로 표현될 만큼 큰 규모였고, 주민들을 구한 결과로 수호신으로까지 추앙받은 신령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장군은 역사상의 실존인물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주민을 구한 의로운 공로로 인하여 자인지방의 수호신으로 추앙되어, 장구한 세월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실존인물 즉 역사적 사실로 믿어왔음을 알겠다.

3. 자인단오의 성격

자인 단오제는 이 지역주민들이 실존인물로 믿는 고을의 수호신 한장군에게 유교식 제례로서 한묘제를 올리고, 큰굿, 호장굿, 여원무, 자인팔광대, 계정들소리 등의 각종 민속연희(民俗演戲)를 연행(演行)한 방대한 형태의 ‘고을 굿’이었다.

자인은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사(聖師)로 추앙받는 원효대사와 한국유학의 비조(鼻祖)로 숭상되는 설총 선생,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 스님이 탄생한 고장이다. 원효스님이 천촌만락(千村萬落)의 서민대중에게 불교를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 가무(歌舞)했다는 <무애무>(無碍舞)와 한 장군을 기리는 여원무가 민중 속에서 민

속악무로 승화하여 전승된 과정에서 그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화관을 들고 추는 여원무는 길이 열자의 그 화려한 화관의 모양이나 춤의 예태(藝態)가 예술적으로도 특이한 장려한 춤이다.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수반하는 큰 굿임에도 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도하여 오랜 세월 이어왔다는 것은 문화전승의 엄청난 저력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원래는 청도 이서면, 자인 경산일대의 무당들이 다 모여 굿판을 벌였다는 ‘큰 굿’ 이나, 원래는 산말(生馬)를 타고 행진한 호장굿의 장렬(壯烈)한 모습과, 여덟 광대가 등장하는 자인팔광대, 아직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큰굿(무당굿), 지역 농업노동요인 계정들소리, 한 번 연행한 후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큰줄당기기 등 ‘경산자인단오’는 내용의 풍부함과 성격과 그 유래에서 주목받는 큰 고을굿이다.

4. 경산자인단오의 신격(神格)인 한 장군 관련 유적

1) 한장군 묘의 실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장군은 신라시대에 자인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태수를 지낸 실존 인물로도 전승되었다. 지역의 수호신으로 추앙을 받아 지역 여러 곳(현재 5곳에 전함)에 사당을 세우고 단오제를 시작하게 할 만큼 공적을 남긴 분이므로, 그 분의 묘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자인 사람들은 믿어 왔다.

예로부터 계정 숲 남편 삼정지 못 속에 ‘한장군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큰 고분이 있었다. 30여 년 전인 1980년경 못 준설작업 때 철거해 버린 것을 1991년 초 봉을 세우고 석축을 쌓아 아담한 묘를 만들었다. 또 계정숲에도 묘역이 잘 가꾸어진 한장군 묘가 있다. ‘증판서 한 장군 묘’라고 적힌 묘비의 음기(陰記)에 한 장군에 대한 유래를 밝힌 후 “이 묘는 도천산 자인중고등학교에 위치한 것을 1969년 5월 10일 이장하였음” 이란 글이 있다.

이 한 장군 묘는 1968년 8월 경 자인중고등학교에서 본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던 중 큰 규모의 석실묘가 발견되어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한 결과, 두개골이 포함된 유해와 은으로 장식한 갑옷, 투구, 녹슨 철제창, 그리고 많은 토기류가 출토되어 이 묘를 한장군 실묘라고 추정하여 출토된 부장품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기고, 유해는 1969년 5월 10일,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신사 자리인 현재의 곳에 옮겨 봉분을 조성하여 모신 것이다.

계정 숲 남쪽 100M 지점인 삼정지 못 안에는 큰 무덤이 하나 있어서 옛날부터 한 장군 무덤이라고 전해져 왔다. 이 묘를 1975년경 준설작업을 하면서 이미 계정 숲에 한장군 묘가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철거해 버렸다. 그런데 1988년 초에 다시 준설작업을 했을 때 무덤이 있었던 자리에서 오래 물 속에 잠겨 거의 파손된 상태의 유문 용기병(통일 신라시대 작품), 기와(신라시대, 조선시대의 것 복합), 도질 토기(독 등), 숯, 부엌 아궁이 자리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자인 북사리 고분에서 가야시대 유물들만 출토되었지만, 삼정지 못의 묘 북쪽 10m쯤 부근에서 통일 신라시대 이후 조선조 때까지의 유물과 흔적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한편 이 삼정지가 일제시대에 조성되었고 일제시대에는 호장굿의 행

렬이 삼정지를 들렀다고 전하는 사실이 이곳이 한 장군 실묘(實墓)일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유물이 출토된 곳은 묘가 아니라 묘를 관리하는 집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 직관한 사람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었는데 당시 일제는 우리 문화의 말살과 대동단결의 구심점이 되는 맥을 끊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었다. 특히 한 장군은 왜구 격퇴의 공으로 자인 지방에서 오랫동안 수호신으로 숭배되었기에 그의 묘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더하였을 것이다. 한 장군의 말묘가 못 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정지는 도천산의 지맥이 끝나는 곳이며, 동서남이 탁트였으니 풍수지리설로 보아 명당이다. 그러하기에 일본인은 당시 자인에서 대구로 가는 도로는 농협창고 앞을 지나는 직선 지름길이었으나, 삼정지 앞으로 일부러 멀고 굽이지는 신도로를 내어 도천산의 맥을 끊고 게다가 못을 파서 지맥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한 장군 묘는 자인 주민들의 우상이므로 감히 없애지 못하고 삼정지 내에 잠기게 하여 주민들과 격리시키려 했던 것이다.

2) 검흔석(劍痕石)[일명 참왜석(斬倭石)]

한장군이 도천산성에 은거한 왜구들을 유인한 곳이 '버들 못'이라고 전해진다. 목을 자를 때 칼 자욱이 남은 돌이라고 해서 검흔석 혹은 참왜석이라 한다. 옛날 단오제때는 이곳에서도 제사를 모셨다. 지금은 자인공단 조성으로 버들못이 메워져 조그만 연못? 가에 보존되어 있고, 교촌리에서 정월 대보름 동제 때 검흔석 앞에서 제사를 받들고 있다. 임진왜란때 자인 출신 의병장이었던 성재 최문병선생이 1593년 단오날 제사를 모신뒤 검흔석 앞에서 읊은 시가 전하고 있다.

3) 한장군 사당

자인현이 주관하여 건립된 한장군의 사당은 계정 숲 내의 진충묘, 원당리의 한당, 마곡리의 한묘, 용성면 송림리 한당, 대종리 한당 등이 있다. 그 중 제일 오래된 것이 진충묘이다. 진충묘만 한장군의 신위로 모시고 나머지는 한장군 남매를 모신 것이 특이하다.

1) 진충묘 (제 1한묘)

계정 숲에 있는 제1 한묘이다. 한 장군이 죽은 후에 주민들이 도천산의 서쪽 기슭에 세웠다고 전하는 신당자리이며, 정충언 현감이 중수하였다. 한장군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일제때 일본인들이 이를 철거하고 자기들의 신사를 세웠는데, 광복 후 북사리에 있던 한당을 이건하여 현재의 진충묘가 되었다. 위패는 “증판서 한장군 신위(贈判書韓將軍神位)” 이다.

2) 북서리 한당 (제 2한묘)

북사1리 자인 면사무소 뒤에 있었고, 한장군 누이를 모셨으나 일본인들이 없애 버렸다.

3) 마곡리 한묘

진량읍 마곡리에 현재하며, 한장군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다. 원래 이곳은 구사현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 효종 때 자인현에 합병졌다. 현이 폐지되기 전에는 단오절 자시에 이 사당에서 한장군 누이를 제향한 후, 자인 단오제에 참가했다고 한다. 근래에는 진량읍장이 주재자가 되어, 단오 날 오전 계정숲 진충묘 제사와는 별도의 제례를 치르고 있다.

4) 원당리 한당

자인면 원당리에 현존하고 있다. 1663년 자인 현청이 신관리에서 원당리로 옮겨 지고 나서 단오 때 한장군 신위를 모시기 위해 한당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청이 1700년 원당리에서 자인면 북사리로 이견되고 부터 한장군 누이 사당으로 전락된 것 같다.

5) 송림리의 사당

용성면 송림리 버구나무 숲에 한장군 누이를 모신 사당이 있어서 단오 전날 동제를 지내 왔는데, 일제때 철거해 버려 지금은 흔적도 없다. 3년마다 한 번씩 무당을 불러 큰굿을 했는데 1920년부터 그마저 끊어졌다.

6) 대종리의 한당

용성면 대종리에 있는 한 장군 남매를 모시는 사당이다.

4)제사의 시기와 그 방식

제사는 단오절에 모시고 성대한 놀이가 벌어졌으니 이것이 한 장군놀이이다.

단오 무당굿은 70년 전에 없어 졌고 제사는 정월 15일 미명(14일야반)에 모셨다. 그리고 이것을 동제라고 부른다. 깨끗한 사람을 가려서 동제의 제관을 시키며 비용은 동민이 부담한다.

대중동 진충각의 제사는 용성면의 6동 즉 대중동, 용천, 용전동에서 추렴으로 제사를 지냈다. 매년 단오일 자시에 제향하고 전동민이 음복하고 종일 춤추고 노래하며 놀았다. 지금 제사에는 마을 당골이 대대림을 하여 대가 가는 집에서 제주를 한다.

송림동 사당터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무당을 불러 성대하게 단오굿을 하였다.

그때는 먼저 장군덤(아희들은 따깨이 = 뚜껍이라고들 하고 있으며 개울가의 절벽위에 흡사 뚜껍모양으로 된 거암이 놓여 있고 이것은 한 장군이 가져다 덮었다고 동민들은 믿고 있다) 옆에 있는 한 장군 누님이 계시는 곳(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잡목이 우거진 밭의 암석이다)에 가서 인사드리고 쇠치고 난 다음 바구나무 숲의 한 장군 사당으로 와서 단오굿을 했다,

대중동 진충각에서는 단오일 자시에 제향을 지내고 단오굿은 옛날에는 성대하여 주막이 서고 인근에서 구경꾼이 운집하였었다. 이런 풍경속에 어린애들은 새옷 입고 용돈을 타 가지고 즐거히 놀게 되어서 정월명절보다도 이날을 더 좋아 했다고 한다.

굿에 대해서는 몇가지 이설이 있는데 첫째 송림동 사당터에서는 삼년마다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다고 하고 둘째 대중동 진충각에서는 제향후에 단오굿을 했다고 하고 셋째 합병전에는 단오굿을 아전칭 마당에서 무당들이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당이 굿을 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굿의 잔영을 발견치 못했고 혹시 그 잔영을 찾아 불려고 두루 문의하였으나 그 계통을 발견치 못했다. 그리고 다만 여월무는 당시 관노청에 매여 있는 남자무부가 담당했다고 한다.(여자무당도 관노청에 속해 있다.) 제사 절차는 유교식이었다.

5. 경산자인단오 의 구성

경산자인 단오제는 왜구를 섬멸한 한장군의 의와 공을 기리기 위해 매년 단오일에 한묘제사, 호장굿, 여원무, 큰굿, 자인팔광대, 계정들소리를 주로 하고, 거기에 씨름, 그네, 말타기, 윷, 널뛰기, 농악, 등의 행사를 곁들인 천년 전승의 세시풍속이다.

주민들이 주가 되어 온 행사이기 때문에 방대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 3-5년마다 거행해오다가 관의 후원에 힘입어 격년제로 치러졌고 현재는 매년 관주도로 행해지고 있다.

1) 호장굿

호장굿은 사또 행차와 같은 격식과 차비를 갖추고 진충묘등의 행사장으로 행렬한다. 반상의 계급사회에서 현감이 평민에게 현감의 복장을 빌려 주어 사또가 행차하는 것과 같은 행렬을 하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장군을 수호신으로 추앙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수많은 인원과 말(馬)이 동원된 행렬 중에는 삼현육각의 풍악을 연주했고, 호적, 나팔 등이 걸드려져 마치 군악을 연상하게 했다. 또, 징, 장고, 북, 쟁과리 등의 풍물도 있어서 흥을 돋우었고, 대열 중에 3m가 넘는 여원화가 춤으로 덩실거렸으며, 여러 역으로 분장하여 말을 타고 따르는 무리들과 바람에 나부끼는 수많은 기들로 가히 장관을 이루었다. 이것은 길군악으로 거리굿의 성격을 띤 것이다.

● 호장굿 진행 순서

- ① 장산사명기
- ② 청룡기
- ③ 백호기
- ④ 황제기
- ⑤ 주작기
- ⑥ 현무기
- ⑦ 나대유평기
- ⑧ 농기(옛날에는 기의 끝에 썰매를 쫓았다)
- ⑨ 영원화관 : 2일이 각각 화관집수
- ⑩ 무부 : 풍물을 치면서 따른다.
- ⑪ 화쟁이 : 얼굴에 물감을 칠하고, 패랭이를 쓰고, 칼을 잡는다.
- ⑫ 여장동남 : 13-14세의 남아를 여장시키고, 붉은 행진을 치고, 붉은 치마에 푸른 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한 자 가량의 끈을 쥐고 춤을 춘다.
- ⑬ 감사뚝 : 소털 병거지를 쓰고 귀신 머리같은 감사뚝을 기처럼 들고 따른다. 대군중에서 범을 맡은 표시가 되며, 이것을 걸어야 죄인의 목을 베는 등 인명을 좌우할수 있다.(1명)
- ⑭ 군노 : 붉게 물들인 소 병거지를 뒤로 드리워 쓰고, 금색으로 쓴 '勇' 자를 앞에다 붙였다. 푸른 옷을 입고 곤장을 들었다.(2명)
- ⑮ 사령 : 붉은 천립을 입으며 말을 타고, 호적과 나팔을 분다.(2명)
 - 깐치사령 : 검은 옷을 입었다.
 - 포군 : 이열로 행진했다.
 - 영장 :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으며, 활과 활통을 매고 집검(執劍)하고 말을

탤다.

○ 기생전부 : 책 천립을 쓰며, 청홍옥의 갓 끈을 드리우고, 흑 ‘쾌’ 자에 남색 띠를 매고, 말을 탤다. (4명)

○ 중군 : 동다리 옷을 입고, 책 천립을 쓰고, 수기를 들고, 집검, 말을 탤다.

○ 삼재비 : 삼현, 사물 연주자.

○ 전부통인 : 20명

○ 일솔 및 파초선

○ 도원수 : 현감에게 차용한 관복을 입고 남여를 탄다. 미호장이 도 원수가 된다.

○ 인부통인 : 민호장의 인케를 쥐고 말을 탄다.

○ 수부독축관 : 쾌자를 입고 수실띠를 맨다.(1명)

(행렬은 주악에 맞추어 행진한다)

자인 장터에서 준비를 마친 후 출발한 행렬은 현청사(자인국교 부근) 앞을 지나 한장군이 왜구를 섬멸한 벼들못 가에 도착하여 간단한 제사와 여원무를 연행하였다. 이후 한 장군 무덤이 있는 삼정지까지 내려왔다가 진충묘에서 한장군에게 제사를 드리고 여원무를 공연한다. 다시 제2한묘에 올라가서 제사와 여원무를 한 뒤 현청으로 간다. 현감에게 여원무를 보인 후, 해산하면 여흥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광복 전의 가장행렬을 기록으로 알아본 것이다.

근래에는 가장 행렬에 쓰이는 말이 인력거로 대체되었고 거의 수와 참여 인원이 많이 줄었으며 복장도 바뀌고 행로도 달라졌다. 호장은 시장 또는 보존회장이 되고, 그외에는 연희자들과 남녀 고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2) 한묘제례

자인 단오제는 한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므로 주가 되는 것이 제사이다.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고 버드나무로 엮은 금기줄을 각 가정의 대문에 거는 등, 주민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단오날을 맞는다. 가장행렬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중 진충묘에서의 제사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제사는 유교의식으로 거행되며 이는 한장군이 실존 인물임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민호장이 가장행렬 때 도원수가 되어 현감으로 가장하고, 제사 때도 역시 초헌관이 된다. 제사에 관한 기록이 남은 것은 정충언 현감이후이다. 진충묘의 위패는 “증 판서 한장군 신위”이며 제상은 현재와 동일하다. 제사는 유교식 제례에 다르며, 축문은 정충언 현감이 지은 축문을 읽은 후 영신사(迎神詞)를 낭송한다.

근래의 제사는 축문을 생략하고 영신사를 읽은 후 흥기대로 제사를 모신다. 현재 자인 단오제의 주관은 경산시와 보존위원회이다.

3) 여원무 (女圓舞)

‘경산자인단오’가 처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장군놀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여원무’만이였다. 여원무는 도천산성에 기거하며 자인현 주민들을 괴롭히던 왜구들을 산하의 柳堤 내로 유인하기 위해 한 장군이 그의 누이와 함께 꾸며 춘춤이다. 자인읍지에 의병을 일으킨 하나의 수단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많은 인원

이 동원된 독특한 놀이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장군이 왜구를 유인할 때는 야생화로 3m높이의 거대한 화관을 만들어 꼭대기를 연꽃으로 장식하고, 화관가에 오색 종이를 드리웠는데, 자인 단오제에서는 시작 때 부터 조화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한 장군은 여장을 하고 그의 누이와 같이 각자의 화관을 들고 춤을 추었고, 주위에는 배우로 가장한 주민들이 雜戲를 꾸몄는데, 이 화관무와 배우들의 雜戲가 현존되고 있는 여원무와 자인 팔광대의 전신이다. 놀이판을 구경하느라 왜구들이 낮이 빠졌을 때 한 장군과 주민들이 칼로 쳐 섬멸하였다니 상세한 기록은 없어도 춤의 신기함과 흥의 정도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 작전을 꾸민 한 장군은 武와 藝를 겸비한 사람이며 여원무와 배우잡희는 한 장군의 지략과 면민의 충정이 응집된 것이다.

한 장군이 왜구를 유인하기 위해 꾸민 여원무는 1969년 무보가 꾸며졌고 1991년 재정립되었다.

악사들이 먼저 앉고 여원화관을 든 한 장군과 그의 누이가 중앙에 입장하면 여장한 동남이 화관주위에서 굿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이어서 화관에 숨어 있던 한 장군과 그의 누이가 도드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시작한다. 1·2박에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앞에 딛고, 오른 쪽 발을 왼쪽 발 옆에 딛고 우측으로 360°회전하면서 일어선다. 이때 양손은 화관을 잡고 회전하는데 화관의 끝이 땅에 닿일 정도로 몸을 앞으로 굽힌다, 돌이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는 춤을 반복한 후 화관 뒤에 숨는다. 이어서 무동들이 등장하여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1박에 왼쪽 발을 앞으로 내딛고, 2박에 오른 쪽 발을 왼쪽 발 옆에 끌어 대면서 두 무릎을 굽힌다. 한 손에는 꽃가지를, 한 손에는 박을 들고 좌우로 높이 든다. 몇 동작 계속한 후 자진모리로 바뀌면서 回舞한다. 오른 발을 들고 왼쪽 발로 가볍게 뛰어 내딛으면서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다가 뒤로 약간 젖힌다. 양손은 박과 화기를 잡고 가슴에 댄다. 이상과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4) 큰굿

다른 지방의 별신굿에서는 무속적인 굿이 주가 된다. 그러나 자인 단오제에서는 제사가 주이며 굿은 전야제 형식으로 치러져 왔다. 자인 지방에는 큰 무당들이 많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사라졌다.

처음 김택규 교수에 의해 1970년대에 자인 지역에 거주하던 무당을 조사하여 경산자인단오 굿의 일단을 알 수 있었다. 자인단오굿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굿판에서 굿을 참관한 적이 있다는 김경분씨(자인 서부리 1929년생)와 최옥이 (하양 금락동, 1927년생)씨의 소견을 소개하였다.

현재 단오제 때 큰굿은 진충묘에서 한장군에 대한 유교식 제사를 마친 후, 계정 숲에 있는 시중당에서 권명화 무당이 주무가 되어 많은 무당들이 참가하여 진행된다. 수호신인 한장군의 공수를 주로하여, 주민들이 벽사와 풍농을 기원하고, 국태민안을 기도 드리는데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7가지 굿풀이로 진행된다. 그 기본 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정굿 : 본 굿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결한 것을 쓸어버리는 굿의 첫 순서
- ② 산신맞이굿 : 삼황 제신을 봉청하여 공수를 내린다.

- ③ 천왕맞이굿 : 천왕을 모신다.
 - ④ 칠성맞이굿 : 수명을 주관하는 칠성신을 모신다
 - ⑤ 조상축원굿 : 조상신을 공수하여 축원한다.
 - ⑥ 장군맞이굿 : 한장군을 공수한다.
 - ⑦ 사자풀이굿 : 죽은 사람들의 원뉘를 풀어준다.
- 이다.

5) 자인팔광대

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자인 단오제는 유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행하여져 왔으므로 제례의 축문이나 영신사, 笏記 등은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잡다한 행사들은 서민들이 주도한 민속으로 구전에 의한 전승에 의존해 왔다. 「慈仁邑誌」에 ‘한장군이 여원무를 설치하고 배우잡회를 벌였다. 왜구들이 산에서 내려와 구경하고 있을 때 한 장군은 칼을 휘둘러 왜구들을 죽였다. 고을 사람들이 그 뜻을 추모하여 도천산 서편 기슭에 신당을 건립하고, 단오날에 동남 2명을 여장시켜 여원무를 추게 했고 배우잡회도 열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設女圓舞又陣俳優雜戲’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춤과 배우잡회는 별개로 행해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한 편에서는 여원무를 추고, 또 한편에서는 배우들의 잡회(춤과 음악이 가미된 일종의 가면극)가 어우러져 배우잡회가 단순히 여원무의 들러리를 위한 무희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배우잡회는 자인 단오제 때마다 여원무와 같이 공연되어 왔으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원무와 분리되어 자인 팔광대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복원된 것은 1920년대의 공연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연희를 한 사람들이 모두 작고하여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이 몇 분 생존하여 작업이 가능했다.

1920년대의 자인 팔광대 공연은 박으로 가면을 만들고, 전래된 대본대로 연희되는 등 완전한 형태의 극을 보전하였으나 그 뒤로 여러 가지 행사의 여건이 어려워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더구나 일제의 탄압으로 자인 단오제가 폐지됨에 따라 1936년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1936년때 자인 팔광대 행사의 총무직을 맡으며 연희를 한 사람이 김용호이다. 20여 년 전에 작고했는데 유품 중에 자인 팔광대에 관해 상세히 기록된 두루마리 문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생시에 자인 단오제와 자인 팔광대에 너무 집착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아 유족들이 “이것을 그냥 두었다간 삼대가 멀하겠다” 하고 태워 버려 중요한 기록자료가 소실되고 말았다. 박으로 만든 가면도 공연후 소각해 버렸으니 있을 리가 없고, 해방후 동부 2리 동사무소에 오동나무 가면이 있었다고는 하나 현재 찾을 길이 없으니 언제 제작된 것인 지도 모를 뿐이다.

민속학자 최상수는 1936년에 공연된 자인 단오제를 관람하고 「한국의 민속놀이」에 “자인 단오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단오날 가장행렬, 여원무, 제사를 지낸 뒤에 여흥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광대들의 소리와 춤, 재인들의 곡예도 있었다.’

1920년대 이후는 일제의 탄압 때문에 자인 단오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고 자인 팔광대도 종이로 가면을 만드는 등 형식만 갖추어 공연했기 때문에 최상수 선

생도 대단하게 보지 않고 위와 같이 간단히 표현했지만, 자인 팔광대에 관한 기록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廣大들의 소리와 춤”은 자연팔광대에서 극중의 창과 무를 말하며, “재인들의 곡예”는 줄광대와 곱사마당이다.

1936년 공연 때 연희자였던 변준이 옹은 복원작업 당시에 유일한 생존자였으나 1989년 타계해, 자인 팔광대에 직접 관계했던 분들 중 현재 생존자는 아무도 없다.

9C전후 통일신라 시대에 한 장군이 왜구들을 유인하기위해 여원무와 같이 벌인 배우잡희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자인 팔광대로 이어오고, 여원무와 분리되어 자인 단오제의 여흥으로 공연되다가, 1936년에 공연된 후 맥이 끊어졌다가 1988년에 와서 어렵게 복원되었고 제 29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서는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89년 단오제 때 자인팔광대를 관람한 이두현 교수(문화재위원, 서울대)는, 대사나 춤사위의 복원과 연기자들의 기량 등은 다른 가면극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가면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하며 기능보유자, 전수자, 이수자를 양성하여 자인 팔광대를 가치있는 민속이라는 좋은 평가를 하였다. 자인팔광대는 복원 과정에서 작품에 임의로 수식을 가하지 않아 세련미와 재미는 적지만, 사실 그대로를 찾아 복원하여 내용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자인팔광대는 9세기를 전후한 신라 시대때부터 전승되어 왔으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어떤 가면극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도시형의 가면극은 공연전에 선전을 위한 길놀이를 벌이지만 자인 팔광대는 길놀이가 없다. 또한 도시형의 가면극은 공연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명절이나 상업적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공연을 하고, 농촌형은 보통 정초에 시작하는데 자인 팔광대는 자인 단오제가 개최될 때만 공연했다. 대사의 첫부분에 ‘필필이 강산이 화사적하니 도천 갖변에 굿판이 났다.’에서 ‘굿’이란 농촌형에 쓰는 명칭이니 자인 팔광대는 농촌형과 도시형의 융합형이라 할 수 있으나 농촌형에 더 근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인 팔광대는, 실존인물인 한 장군에 대해 제사를 올린 후 여흥으로 벌이는 현실적인 오락물임에 반해, 하회탈춤과 강릉의 별신굿은 임의의 성황신을 위한 제사로 무속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면 제작방법과 공연 후 소각해 버리는 것은 다른 지방과 비슷하다. 공연자는 가면을 쓴 광대가 8명, 악사 4명, 기수 1명 등 도합 13명으로 구성인의 수가 가면극 중에는 가장 적다. 자인 팔광대의 명칭은 바로 가면을 쓴 광대가 8명인에서 명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극 중에 등장하는 양반은 薺氏, 본처는 柳氏, 후처는 𨮒氏, 말뚝이는 𨮒氏, 봉사는 金氏며, 무당은 남자이므로 박수무당이고, 곱사는 성도 없고 대사도 없다. 악사는 도시형의 가면극보다 단조로운 농악대가 도입되었고, 악은 굿거리, 덧배기, 타령, 무속장단이다. 춤사위는 영남지방의 춤인 덧배기가 주가 되고, 특유한 콩나물춤, 무지개춤, 곱사춤, 무당춤이 가미되어 있다. 극 전체가 끊어지거나 정지함이 없고 공연자의 입퇴장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편의상 ‘양반 · 말뚝이 마당’, ‘양반 · 본처 · 후처마당’, ‘중광대 · 곱사마당’으로 3분할 수 있다.

축문을 읽고 간단한 고사를 지낸 후 악사들을 앞세우고 전 연극자가 입장하여

‘필필이 강산이 화사적하니 도천 갯변에 굿단이 났다. 우리 한바탕 놀자’하면 극이 시작된다. 놀이판을 이끄는 양반은 늙고, 부모 유산을 탕진하였으므로 거지같이 초라한 행색이다. 이어 물골은 흥칙하지만 근본이 양반이라고 뽐내는 하인 말뚝이가 등장한다. 도시형 가면극에서 말뚝이가 병신이 아니면 저능인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양반이 주도하는 계급사회에서 하인이 양반이 위엄을 뒤집고 양반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탈을 씌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인 단오제가 유교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결국은 말뚝이가 굴복하고 양반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무승부 혹은 양반을 패배시키는 다른 지방의 가면극과는 역시 대조가 된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대를 이어야만 된다는 양반은 본처를 외면하고 말뚝이의 중매로 과부 뺨氏를 후처로 맞아 정답게 놀아난다. 하회나 오광대에서 볼 수 있는 음탕한 장면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양반과 후처가 사랑을 나누는 창외 가사가 돋보인다. 양반을 찾아다니던 본처가 양반을 만나 돌아오기를 설득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발로 쓰러뜨려 양반을 죽인다. 다른 가면극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할미가 죽는 상황으로 처리되어 있어 큰 차이가 난다. 이어 참봉과 박수무당이 등장하여 무당굿으로 양반을 살리는 것은 무속을 드러내려는 것보다는 극의 흐름과 흥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토신이 붙어 죽은 것을 본처가 살려냈다는 박수무당의 기지는 양반에게 열부인 본처를 재인식시켜 잘못을 사죄하게 하므로 가정의 화합과 조강지처 우선이라는 윤리관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며, 양반의 체통이 무너지는 듯하면서도 결국은 되살아나게 한다.

‘양반 · 본처 · 후처 마당’에 이어 ‘줄광대 · 곱사마당’이 이어진다. 줄타기는 남사당패의 으뜸놀이이다. 자인 팔광대의 줄타기는 땅바닥에 깔아놓은 새끼줄 위에서 아슬아슬한 공중 줄타기 묘기를 흥내내며 줄가에 둘러앉은 연기자들과 재담을 나누는 것으로 어려운 공중곡예가 아니다. 이때 곱사는 줄광대의 흥내를 내며 줄가를 따라 다니고 말뚝이는 북장단을 맞추며 따라다닌다. 이 부분이 바로 자인 팔광대의 흥이 극치에 이르는 곳으로 말뚝이의 북춤과 해학적인 창외 관중을 매료시킨다. 뺨氏와 박수무당은 관중들 앞으로 다니며 성금을 걷는데 이것이 당일 경비를 충당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도시가면극에서 길놀이 때 성금을 거출하는 것을 대신한다.

끝으로 전 연기자와 관중들이 어울려 한바탕 뒷풀이가 이어지고 흥이 미흡하면 공연을 되풀이하여 단오절 밤을 지새우곤 했다.

6)계정들소리

慈仁 桂亭들 소리는 자인면 일대에서 주로 농사철에 부르던 들소리(農謠)의 집성이다. 경산시 자인면 일대는 '신라의 서촌'이라 불리던 유서 깊은 곡창이며 민속 예능의 보고이다. 계정들 소리도 이 가운데서 형성된 뿌리 깊은 농업 노동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정들의 가운데 자인이 위치하고 이 곳에 자인 단오굿의 '한장군놀이'로 유명한 계정숲이 있다. 이 계정숲에 아래로 부터 펼쳐지는 들판을 계정들이라 한다. 이 계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불리어지던 다양한 농업 노동요를 수집하고 재구성한 것이 바로 '자인 계정들 소리'이다.

계정들 소리의 소리꾼들은 선창자 6명과 후차장 45명으로 구성 되었다. 풍년을 기리는 ‘들지신 밭기’와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풀을 베러 갈 때, 냇두리로 불렀던 ‘어사잉이’가 있고, 뚝을 쌓을 때나 산판을 할 때, 나무둥글이나 돌을 운반하면서 부르는 ‘모도소이’, 못뚝을 다지는 ‘망깨소리’, 보(洑)의 물길을 트는 보가래질을 할 때의 ‘보역사(洑役事)소리’,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락농사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모찌는 소리’,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모심기노래’, 논을 맬 때 부르는 논매기, 한톨의 곡식이라도 알뜰히 거두려는 ‘메타작소리’가 있다. 풍년을 기리는 ‘방아타령’과 신나고 흥겨운 ‘칭칭이’의 풍물장단에 흥겹게 춤을 추며 상일꾼을 소에 거꾸로 태워 마을로 돌아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정들 소리는 1996년 10월에 경산군이 시로 승격되는 행사인 압록민요대전에서 읍면 대항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심기소리 하나로 시작하였으며 그때는 단순히 놀이의 기능이였다. 그리고 그때의 인원은 고작 14명이였다. 이듬해인 97년도에는 익산의 경연대회에서 전라북도 지사상을 탔다. 3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8)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인 계정들 소리'는 후창자 24명이 추가되어 뒷소리의 발음을 더 씩씩하고 장(壯)하다. 계정들 소리의 소리꾼들은 선창 6명과 후창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준 (보역사 소리와 타작소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별: 남 생년월일:1949년 9월 25일 직업: 전공무원

㉡석일색 (망깨소리와 칭칭이 소리를 맡아 부르고, 유일한 여자 선창자다.)

성별: 여 생년월일:1930년 10월10일 직업:농업

㉢이지우 (어사잉이와 논매기소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별: 남 생년월일:1934년 5월1일 직업:농업

㉣박병순 (목도소리와 모찌기 소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별: 남 생년월일:1931년 9월25 직업:농업

㉤이규한 (들지신밭기와 방아타령을 담당하고 있다.)

성별: 남 생년월일:1930년 9월25 직업:농업

㉥김윤호 (망깨소리를 부른다)

성별:남 생년월일:1930년 1월10일 직업:농업

'자인 계정들소리'는 대단히 역동적인 소리이다. 전체적으로 경상도민요의 특징인 메나리(산유화)제로 구성되어,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논매기소리 등은 경상도에서 가장 성하게 부르는 농요이다. 특히 모찌기소리와 모심기소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성음이 같은 경우가 많으나, '자인 계정들 소리'에서는 각각 다른 선율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상도 농요의 대부분은 3분박으로 되어있어, 이 고장의 특징인 덧배기장단처럼 흥청거리는 멋이 있으나, 목도소리와 타작소리만은 2분박으로 되어 있어, 씩씩하고 힘찬 느낌을 준다. 자인은 경상도 지역에서도 내륙에 위치한 까닭으로 이 들소리는 타지역의 영향이 적어 이 지방만의 선율을 그대로 유지하

고 있으며, 경상도 지역의 주민기질과 말씨의 억양을 닮아 깨끗하며 투박한 역동감이 넘친다. 그리고 '계정들 소리'에는 여러 가지 농사일과 소리의 매듭을 알리는 목나팔 '땡가(땡각)'가 있는 것이 또 한가지의 특징이다

계정들 소리에 쓰이는 도구에는 샷갓, 탕관, 담뱃대, 가래, 낫, 도리깨, 지게, 밀깨, 돌방구, 밧자루, 채이, 돛자리, 갈구리, 장독, 장구, 짚신, 가마 등이 쓰인다. 그리고 악기는 뿔과리, 북, 장구, 징, 그리고 땡가라는 것이 있다. 땡가는 행진할때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나간다' 는 신호를 말한다.(여기서 땡가라는 악기는 주수관씨가 제작한 것이며, 대략90년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땡가는 소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복장에는 삼베옷, 짚지주머니, 삼베두건, 가죽코고무신과 짚신, 그리고 흰띠 등이 쓰인다.

6. 마무리

경산 자인은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상층문화의 중심으로써 자인 향교가 있고 상·하층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만들어 낸 한 장군놀이 즉 여원무, 호장굿, 큰 굿 등이 있으며, 기층(基層)문화로써 자인팔광대, 계정들 소리, 큰 줄 당기기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기에 면 단위의 작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가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네 차례나 입상하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예이다.

이 자인지역과 비슷하게 다양한 민속놀이를 보유하고 전승하고 있는 지역이 전남 진도군이다. 전남 진도에는 진도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전통 소리와 놀이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전승되어서인지 진도 씨김굿(중요무형문화재 72호), 남도 들노래(중요무형문화재 51호), 다시래기(중요무형문화재 81호) 등 중요무형문화재가 있고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돗개가 있다.

이와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경산 자인에는 제 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여원무가 있고, 제 29회 대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받은 팔광대놀이가 있으며, 제 38회 대회에서 전북도지사상을 받은 후 다시 제 39회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계정들 소리가 있고, 같은 경산시 권역으로 바로 인근인 경산 하양읍 대조리에 천연기념물 제 386호로 지정된 경산삼살개가 있다.

「여원무」 「팔광대」가 각각 독립된 무형문화재이고 그 성격도 다른데 '한 장군놀이'라는 어색한 명칭으로 무형문화재 44호로 묶여 지정되어 그 보존과 전승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6년 무형문화재 지정명칭이 '경산자인단오'로 개칭되면서 자인단오는 복합적 성격의 민속문화재로 그 구성에 한묘대제 및 호장굿, 신격(神格)인 한 장군을 위령(慰靈)하고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큰 굿, 지역 수호의 의지를 반영한 한 여원무와, 탈춤놀이인 팔광대놀이, 농경사회의 노동요인 계정들소리, 큰 줄 당기기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재로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추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부록

자인팔광대 사설

1) 양반과 말뚝이 마당

일동 : ‘자인 팔광대’ 기가 앞장서고 악사, 양반, 후처, 본처, 말뚝이, 참봉, 곱사, 광대, 무당 순으로 춤을 추고 원을 그리면서 전 연극자가 입장한다.

후처는 양반주위를 맴돌면서 아양떠는 춤을 춘다.(자진모리)

양반 : 입장하면서

“필필이 강산이 화사적하니 도천 갯변에 곳단이 났다. 우리 한바탕 놀자”

일동 : “좋다 좋다 쿵망캉캉 호르르 뻘쭙” (노래조로)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각자 특징적인 춤을 추며 원둘레를 돈후 술독의 술을 한 잔씩 마신 후 탈을 쓰고 다시 춤을 추면서 원을 그린다.(곳거리)

양반 : “말뚝아 !” (양반의 위엄으로 우렁차게 부른다)

양반 : “말뚝아 !”

양반 : (답이 없자) “야, 야 ! 말뚝아 !” (다시 부른다)

말뚝이 : (말채를 메고 뛰어 나오면서) “지기미 시발 상놈같이야, 야가 뭐꼬 정월 대보름부터 소부리나 말부리나 어미에비 부르듯이 팔월 열사흘 자인 장날 햅쌀인가 어느 놈이 말뚝아 ! 말뚝아 ! 라고 부르나”

일동 : “야 이놈 말뚝아, 잔소리 마라 나는 양반이다.”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양반 : “야 이놈 말뚝아, 잔소리 마라 나는 양반이다.”

말뚝이 : “팔도 걸뱅이 같은 것이 양반이라니 어느 놈은 양발로 다니지 외발로 다니나 내 비록 지금은 돈이 없어 하인이 되었지만 내 성을 꼴씨이고 내 근본은 양반이다. 이놈아 !”

일동 : “말뚝아 말뚝아 쿵망캉캉 호르르 뻘쭙” (자진모리 장단에 춤을 춘다)

양반 : “네 이놈 말뚝아 ! 입춘대길도 썩붙이지 못하는 무식한 하인놈이 양반 을 몰라 보다니”

말뚝이 “ ”지기미 시발 양반이라카명 니 본을 대봐라 이 걸뱅이 같은 놈아 ! “

일동 : “말뚝아 말뚝아 쿵망캉캉 호르르 뻘쭙”

양반 : “이놈 말뚝아 잔소리 마라 나는 명가문 채씨 출신 양반인데 부모재산 다 탕진하고 경주 신라유적 두루두루 구경하고, 태백산 따라 문경새재를 넘고 단양팔경을 둘러 정선에 들어가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오’ 이렇게 기생들과 한바탕 논 후 함경도에 들어서니 명사십리 해당화 어느 계집 닳았을까?”

일동 : “좋지”

양반 : “대동강 을밀대 좋기만 했고, 경기도 용문산 지나니 한양의 삼각산이 우뚝했고, 인왕산, 북악산, 청룡, 백호 완연하더라. 종묘사직 참배한 후 한양 한바탕 구경하고, 천안 삼거리거쳐 오작교를 건너니 춘향이 모습이 아른거리더라”

일동 : “좋지”

양반 : “목포터 내려가니 삼학도가 가물가물, 지리산 천왕봉이 구름속에 가려있고, 진주 축석루에 올라 논개 절개 흠모했다.”

일동 : “좋지”

양반 : 그래서 나도 팔도 유람하는 양반이다.

말뚝이 : “관동팔경도 구경못한 주제에 양반이라니 나도 그런 팔도유람은 10년 전에 해봤다”

일동 : “말뚝아 말뚝아 쿵망캥캥 호르륵 빼쪽” (자진모리 장단에 춤을 춘다)

양반 : “이놈아! 내 9대 조부계선 경주부사를 지내신 채자천님이시다”

말뚝이 : “그런고 정말 몰랐심더”

“쌍놈이 양반을 몰라 뵈고 양반 욕을 한 죄 사하기는 어렵다만 죽을 죄를 지어도 빌면 사해주는 것이 양반의 법도이니 내 너를 용서해 주마”

말뚝이 : (다시 큰절을 하면서) “ 정말 고맙심더 어르신네”

일동 : “좋다, 좋아 쿵망캥캥 호르륵 빼쪽”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2) 양반과 본처·후처 마당

일동 : (본처가 입장하면서 일동은 자리에 등글게 앉는다)

본처 : 맨발로 눈이 어두워 허재비같은 모습으로 콩나물춤을 추면서 입장한다.

본처 : (허우적거리면서) :어디 보자 우리 영감쟁이 어대 있노? “

(이리저리 다니면서 영감을 찾아 다닌다)

양반 : (부채를 부치면서 다른 손으로 담뱃대를 등뒤에 대고 입장한다)

양반 : (면산을 보면서)

“내 비록 지금 돈은 없어도 근본은 당당한데 유씨 부인을 얻었으나 일점 혈육이 없구나!”

말뚝이 : (양반 앞으로 달려가서) “와카십니꺼 어르신네요!”

양반 : “내 몸을 늙어가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걱정이구나”

말뚝이 : (양반귀에 때고 뺨씨 남자쪽을 가리키면서) “뺨씨 남자가 있으니 새장가 가시이소”

본처 :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놈의 영감쟁이 날 버리고 어디갔노”

양반 : (뺨씨 남자쪽을 본후 흡족한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일동 :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뺨씨 남자가 나온다” (노래조로)

후처 : (굿거리 장단에 무지개 춤을 추며 입장하면서)

“붉은단 푸른청 고물고물 단청이라” (노래)

일동 : “아장아장 걷는 모양 모래밭에 암탉같이 이뿌게도 들어온다.” (노래)

양반 : (춤을 추며 뺨씨 남자에게로 가서) “앞으로 봐도 이뿌고 뒤로 보아도 이뿌네” (노래)

양반, 후처 : (서로 춤을 추다가 껴앉는다)

양반 : “뺨씨 남자 ! 혼자 사나?”

후처 : “신혼 과부 독수공방 3년 되었심더”

양반 : “나하고 살면서 뚜꺼비 같은 아들 하나 썩 낳아줄래?”

후처 : “사랑해 줄 양기만 있다카면 낳아주끼요”

양반 : “양기야 이팔청춘이지 고맙네”

양반, 후처 : (같이 붙어 앉는다)

본처 : (영감을 찾아 다니다가 지쳐서 가로 나가 앉아 담배를 피운다)

후처 :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아주고 등도 두드리고 부채를 부친다)

양반 : “돌아오는 반달에는 기미가 찡긋고 질밀의 모뎨썩엔 분진도 묻었건만 (노래) 뺨씨 남자는 우예 이리 이쁘노?”

후처 : (양반의 목을 껴안고 입맞추는 아양을 떠다)

말뚝이 : (이 모습을 보고 본처에서 달려간다) “할매요 할매요 영감이요 첩사 짓만지고 목껴안고 입맞추고 있심더”

본처 : (담배를 피우다가 이 소리를 듣고 놀라 흥분하고 샘이 나서 담뱃대를 탁 털고 일

어나서 양반을 잡으려 허우적거린다) (눈이 어두워 소리만 듣고)

말뚝이 : (양반과 후처가 노는 모양을 다시 일러 주면서 말채로 본처 등을 밀면서 여러 번 방향을 가리킨다.

본처 : (영감을 찾으려 이리저리 다니다가 헛오줌 누는 체한다) “아이고 시원테이”

말뚝이 : (본처 치마를 들고 들여다 본다)

본처 : “뭐 보노 ? 이놈아”

말뚝이 : “아따 냄새 지독하네”

일동 : (박수치면서 웃음)

본처 : (가로 나가 빈 박을 배속에 넣고 배를 만지면서 임신 흉내내면서 들어온다)

본처 : “영감, 이년이 첩사이가?”

후처 : 수줍어하면서 멀치감치 돌아선다.

양반 : “혈통 이을 놈을 하나 낳아야지 그래서 내가 새장가 갔다. (후처를 가리키며)이 뿌제?”

본처 : “영감 ! 아가 없다고 나를 천대했지만 인자 나도 임신했구마”

양반 : “늬은 것이 주책없이 임신이 뉘꼬, 어느 놈하고 붙었노?”

본처 : (영감을 잡고) “이영감 노망했나?” “첩사이 보내뿌고 이 아 놓고 내카삽시더”

양반 : (본처를 여러 번 밀어 제친다)

본처 : “아이고 영감 와이카는교 영감 아구마” (매달리면서)

“ 아 떨어지겠다 이 영감쟁이야”

양반 : (화가 나서 본처의 이마를 여러 번 부채로 때린다)

양반 : (다시 담뱃대로 이마를 때린다)

본처 : (넘어지면서 옷 속의 박이 떨어진다) “아이고 우야꼬, 알라가 떠러졌데이”

본처 : (배와 머리에 손을 대고 아파하고 화가 치밀어서 영감을 밀어버린다)

영반 :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다)

본처 : (벌렁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본처 : (허둥거리면서 영감의 몸을 만져보고 코에다 귀를 대고 숨소리로 생사를 확인한다) “우야꼬 내가 와이카노 영감 죽이뵈테이”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

본처 : “꼴서방 ! 영감이 구빠라졌다. 뒷집 김참봉 불러 오너라”

일동 : (참봉을 제외한 일동이 우루루 몰려온다)

말뚝이 : (가장자리로 나가서) “뒷집 김참봉님”

말뚝이 : “김참봉요!”

참봉 : “어이”

말뚝이 : “양반이 죽었심더”

참봉 : (놀란 표정으로) “ 뭐! ” (짚신을 거꾸로 신는다)

말뚝이 : (짚신을 바로 신겨주고, 양반이 넘어져 있는 곳의 방향으로 데려간다)

참봉 : (눈이 멀어 딴 방향으로 간다)

말뚝이 : “뛰어가서” (이쪽이구마 하면서 참봉을 끌고와서 양반의 손을 잡아 맥을 짚어 보게 해준다)

참봉 : (맥이 노는 것을 확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말뚝이 : (발을 양반 가슴에 대고 진찰하는 체한다)

참봉 : “박수무당”

박수무당 : “야 ‘

참봉 : (대내림 준비한다)

박수무당 , 말뚝이 : (가장자리로 나가서 북과 물장고를 가지고 들어온다. 물장고는 참봉 앞에 놓고 박수무당은 대나무를 잡고 참봉앞에 앉는다)

참봉 : (물장고 앞에 막대기를 들고 좌정한다)

본처, 후처 : (본처는 다리쪽에 후처는 머리쪽에 앉아서 몸을 주무린다)

본처 : “우야든지 우리 영감 살려주소”

박수무당 : (참봉앞에 대를 잡고 앉는다)

참봉 : “동방청계신장 서방백계신장 남방적계신장 북방흑계신장 중앙황계신장 연진대원수여 경산군 자인면 성씨는 채씨 건명 좌수에 힘을 주고 우수에 힘을 주어 소상반죽 대를 잡아 산나무에 명지빌고 죽은 나무에 명지빌어 채씨 건명에 내립 강좌하소서” (대내립 하지 않으면) “신장 서소” (계속 주문하고 대가 서면)

참봉 : “화가 있나”

박수무당 : (대를 흔든다)

참봉 : “걸림있나”

박수무당 : (대를 흔든다)

참봉 : “주단 있나”

박수무당 : (대를 흔든다)

참봉 : “신병 있나?”

박수무당 : (대를 흔든다)

박수무당 : (대가 서면서) “큰 할미가 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토신이 붙었다.”

박수무당 : (대를 흔든다)

참봉 : “신장 서소, 우짜마 살겠노”

박수무당 : “긋을 해라”

참봉 : “무슨 긋을 하노”

박수무당 : “주단 긋을 해라”

참봉 : “꼴서방 어디 가서 띠 좀 가져오나!”

말뚝이 : (띠를 박수무당에게 갖다준다)

(이하 주단긋)

박수무당 : (양반의 얼굴, 배, 다리에 띠를 놓고) “붙었던 귀신인가 따라든 귀신인가 일년수액 나빠 일일신수가 나빠 넘어졌는데 미움받은 본처지만 효부 마음 가졌구나 어느 귀신이 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인가!”

(무당춤을 춘다)

박수무당 : “엇세 귀신아! 이 소리 듣고 썩 물러가거라!”

(무당춤을 잠깐 춘다)

박수무당 : “급주당이다!(크게 외치면서 양반의 다리, 배, 머리옆의 땅바닥을 찍고 머리부터 다리까지 훑고난 후 머리, 배, 다리를 때린다)

박수무당 : “귀신이 떨어졌다!”

양반 : (툭툭 털면서 일어선다)

양반 : “내 우에 댘노?”

무당 : “첩사이 두고 지탈하다가 디진걸 큰 할미가 살렸네”

양반 : (본처에게 큰 절을 하면서) “ 내 자네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살려줘서 정말 고맙네 앞으로는 조강지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네 ‘

일동 : “좋다 좋다 쿵망쿵망 호르륵 뻘쭙” (긋거리 장단에 춤을 춘다. 여기서부터는 후처 서열이 바뀐다)

양반 : “뻘쭙 낭자 오늘같이 좋은 날 술이나 한잔 권하고 권주가나 불러라”

후처 : (양반에게 술을 권하면서) (권주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잔을 잡으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고 한무제 석류반에 이슬받은 술이로서이다. 이 술 한잔을 잡수시면 천만년을 사시리오” (노래를 부른후 전 연기자에게 술을 권한다)

양반 : (흥이 나서) 행색이 길 멈추고 노도소리 듣고선 왜적을 죽이는 장군을 대하는 듯 칼자욱은 어제일 같이 반석에 남아 있고, 장한 업적은 천추에 빛나리

본처 : “나도 한 번 하지요”

“에에에 히히요 무정 세월아 오거든 가지를 마라. 알뜰한 이내 청춘 다 늙어진다.
에라 부어라 마셔라 늙기만 하여도 나는 못노니라 “

양반 : “말뚝아!”

말뚝이 : “정월 대보름부터 소부리나 말부리나 답답하면 말뚝아 말뚝아 부리나?”

일동 : “말뚝아 말뚝아 쿵망캉캉 후르륵 삐죽”

(자진모리 장단에 춤을 춘다)

양반 : “이놈 잔소리 마라 네놈도 양반이라고 뽐내었으니 창이나 해봐라!”

말뚝이 : “야 ! 좋구마” (복을 메고 들어와서 복으로 장단을 치면서)

“ 영감할미 인정이 붙었네 붙었네 찰떡같이도 붙었네 찰떡같은 인정(장단)붙었네 붙었네 생엿같이도 붙었네 생엿같은 인정(장단)붙었네 붙었네 고래풀 같이도 붙었네 고래풀 같은 인정(장단)”

일동 : “좋다 좋다 쿵망캉캉 호르륵 삐죽” (긋거리 장단에 춤을 춘다)

3) 줄광대와 곱사마당

양반 : “말뚝아! 팔광대 줄광대 다 불러 오너라. 우리 한바탕 놀자.”

말뚝이 : (뛰어 나오면서) “야 ! 줄광대 팔광대 다 모여라. 우리 한바탕 놀자” (활개를 펴서 줄광대를 부르고 전 연기자를 불러 모은다)

양반 : “말뚝아! 줄광대 줄타려 한다. 줄준비 해라”

말뚝이 : (복을 메고 나오면서) “야!” (땅바닥에 새끼줄을 깐다)

일동 : (줄가에 둘러 앉고 곱사와 말뚝이는 일어서 있다)

줄광대 : “오늘은 큰 단오날, 내 주제에 한모에 제항은 못 올리고 멀리서 큰절을 드렸지만 내가 잘하는 것은 줄타는 것뿐이니 줄이나 타면서 한바탕 놀아야겠다.”

줄광대 : “줄이 실한가 어디보자”

줄이 튼튼한가 손으로 확인하고 줄위로 뛰어간다.

긋거리 장단으로 한 발을 들고 춤추면서 걸어간다.

뒤로 걸어와서 줄중간에 선다.

곱사 : (줄광대 흥내를 내면서 곱사춤을 추고 말뚝이는 복을 치며 춤을 춘다)

줄광대 : “요번에는 화관무를 한 번 추겠는데 왜놈들이 요 춤보고 흘겨서 다 뒤졌제. 그라마 잘들 봐라” (여원무의 화관무, 회무를 2회 춘다)

일동 : “아따, 잘 탄다”

줄광대 : (타령 장단으로 한 발을 들고 교대로 줄을 탄다. 고의로 떨어질 듯 실수를 해 보이며) “애랍다 애랍다” 라고 말한다.

일동 : “떨어져라 떨어져라 ” 아우성 친다.

줄광대 : (타령으로 줄끝으로 간다) “꼴서방! 낮에 그네뛰기, 널뛰기 하는데 가봤나?”

양반 : “그 좋은 구경을 놓칠 수 있나?”

줄광대 : “그런데 양반들도 그 좋은 구경을 왔더니?”

말뚝이 : “어허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양반들이야 앉아서도 체통, 누워서도 체통인데 아녀자 노는데 갈수 있나”

줄광대 : “꼴서방, 씨름판에 황소는 누가 타갔노”

말뚝이 : “김생원집 큰 머슴일세”

줄광대 : “뒷집 허과부 조타 카겠네”

(타령장단에 춤을 춘다)

(줄위에서 한 발은 줄을 단고 오른발은 줄을 타고 줄탄력에 의해 뿔다. 교대로)

일동 : “잘 탄다”

줄광대 : “제기탈 시발 남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랄들 하네”

일동 : “힘드나? 그라마 췌다 해라, 췌참에 소리나 하나 해라 “

줄광대 : “어이 어라 만수 대신이여 언덕위에 초동이여 석벽아래 어웅이라. 새벽별 가을 달이 감심에 꺼꾸러져 수증산천에 에워있고 편편 백구야 날지마라 월일녹죽은 필필 뛰고 쌍 쌍 원앙은 높이 떠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불능이라 송이지 이지 하여 낭망 경치가 여기로 다. 살같이 닿는 배는 강진포 배회하고 어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

일동 : “참말 잘한데이”

줄광대 : “곱사야 니놈도 따라만 땡기지 말고 한바탕 놀아봐라!”

곱사 : (긱거리 자진모리 장단에 춤을 신명나게 춘다)

줄광대 : “인자부터 신나게 한바탕 놀아보께”

(타령장단으로) 줄위를 뛰어가다가 줄중간에 선다.

뛰어 답회치는 자세로 떨어질 듯한 흉내를 낸다.

일동 : “떨어져라” (타령장단으로)

줄광대 : 경충 뛰어 제자리로 왔다가 줄의 탄력으로 앉아서 간다.

춤추면서 제자리로 간다.

후처, 무당 : (줄 탈 때 주위를 돌면서 바가지로 모금한다)

양반 : “필필이 강산이 화사적하니 도친 갓변에 긱단이 났다. 우리 한바탕 놀자” (노래조로) (일동 모두가 긱거리로 처음은 원형으로 돌다가 안으로 모이고 양반은 후처의 젓만지는 등의 수작을 한다. 자진모리로 바뀌면서 구경꾼도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춘다)

계정들소리 가사

㉑. 지신밟기

지신밟기에는 땅을 다지는 땅지신밟기와 풍년농사를 기리는 들지신밟기가 있다. 풍년농사를 기리는 들지신밟기는 3벌 논매기를 마치고 논주변 공터나 저수지둑에서 지신을 밟는다고 한다. 땅지신밟기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나 연초 정월 대보름날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 지신밟기를 한다. 앞소리는 이규한(남,72세, 자인서부리)이 불렀다. 평균시간은 약 4분가량으로 이때 쓰이는 도구는 짚신, 팽과리, 장구 등이 쓰인다.

(앞소리) 헤이루와 지신아

이러보자 이러보자
이 농토를 이러보자
이러보자 이러보자
이 팔밭을 이러보자
등 굽은 압소 물고
이 팔밭을 갈아보자
콩도 심고 팥도 심어
콩 심은테는 콩이 나고
팥 심은테는 팥이 나네
오곡잡곡이 왕성하다
해는 이미 저무는데
저 논뼨미를 둘러보자
하지에 심은 모가
어연간에도 자라났네
해는 이미 저무는데
아이는 놀어대고
아이야 울지마라
아이야 젓이나 줄까
넘어간다. 넘어간다
어사잉이로 넘어간다

(뒷소리)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지신아 밟아 놀루자

㉒. 어사잉이

어사잉이는 자기자신의 생활의 서글픔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가난한 농민이 신세 한탄으로 불렀는데 산이나 들로 풀을 베러 가서 서글픔과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불려졌다. 이는 박자가 없으며, 지계목 다리박자이며 이지우(남,68세, 자인 신관리)가 불렀으며 약 4분 정도가 소요된다.

구야 청산
갈가마구야
나무하러 가자
나무하러 가자
큰각골 깊은 골에
너와 같이 나무해서
부모님 방을 디필레라

(앞소리)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새벽닭이 우는구나
 앞집 뒷집 개도 짖네
 골목골목 사람소리
 모짚추려 모구자리 가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계장지 넓은 들에
 이 모치미 시집가네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저루자 하 저루자 하
 시누이 올케로 저루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모심기로 넘어가자

(뒷소리)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 모구자리를 조루자

☞ 모심기소리

모판에서 켜낸 모를 눈에 옮겨 심으면서 무르는 소리다. 자인면 일대에서는 들일을 대부분 이 남녀공동작업으로 이루어낸다. 이 모심기소리는 <계정 들소리> 앞소리꾼들이 한 소절씩 부르며 약 3분정도 소요된다.

이 물게 저 물게 다 헐어 놓고 췌네 양반 어디 갔노(선창자 박병순)
 ※ 문어야 대전복 손에 쥐고 첩의 집에 놀러갔소 (후창자 모두)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맺노
 ※ 이달 크고 훗달 커서 칠팔월에 열매 맺지

오늘 해가 어찌 됐노 점심 참이 늦어가네
 ※ 밭쌀 닷말 잡쌀 닷말 일고나니 늦었구나

능청 능청 저 비루 끝에 무정할사 울오라배
 ※ 나도 죽어 후생가서 낭군님 한 번 섬길래라

초롱초롱 청사초롱 너의 방에 불 밝혀라
 ※ 너도 눕고 나도 눕고 초롱 불은 누가 끌꼬

알금 삼삼 고은 독에 술을 빚어 백화주라
 ※ 그림 그린 유리잔에 나비 한쌍 권주하네

넘어간다 넘어간다 논매기로 넘어간다

⊙ 논매기소리

자인 계정들에서는 두번 논매기가 행해졌는데 아시논매기는 호미로 뒤짚는 작업으로 소리가 없고, 마지막 논매기 때만 논매기 소리를 불렀다. 논매기소리는 다른 곳보다 장단이 빠르다. 논매기 때에는 오동나무로 만든 '땡가(땡각)' 를 불러 흥을 돋운다. 소리는 앞소리꾼이 북을 치며 선창하고 모든 일꾼이 합창으로 한다. 앞소리는 이지우(남,67세, 자인 신관리)가 불렀으며 약 4분 정도 소요된다. 논매기 소리에서는 뒷소리들이 향아리를 이고 춤을 추며 손을 굽혔다 폈다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미는 소리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앞소리)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신농씨의 농법받아
 농사 한번 짓고보니
 천하대본 농사지요
 부모혈육 자손이라
 부지런히 일을 하면
 우수풍조 시화연풍
 애히늘늘 상사뒤야 (후렴높임)
 그 아니 좋을손가
 첫째는 나라보국
 둘째는 부모봉양
 애히늘늘 상사뒤야 (후렴높임)
 국태민안 태평성대
 그럭저럭 살다보니
 청춘가고 백발왔네
 애히늘늘 상사뒤야 (후렴높임)
 이화청춘 벗님네야
 백발보고 웃지마라
 가련하다 인생살이
 애히늘늘 상사뒤야 (후렴높임)
 이로써 끝을 맺자
 넘어간다 넘어간다
 타작소리로 넘어간다
 애히늘늘 상사뒤야 (후렴높임)

(뒷소리)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애히늘늘 상사뒤야

※ 마무리

(앞소리) (뒷소리)
 우이야 --- 절이야
 우이야 --- 절이야
 우이야 --- 절이야
 우이야 --- 절이야
 우이야 --- 절이야
 우이야 ----- 에 이후후후 야

☐타작소리

타작소리는 보리타작과 나락(벼)타작소리 두 가지가 있는데 계정들 소리에선 보리타작할 때 부르던 소리이다. 보리타작 할 때에는 빠르게 부르며 꼴뚜 타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보리를 모아둔 곳을 도리깨질 잘 할 수 있도록 쳐내주는 사람이 있다. 이 일꾼을 상일꾼이라 한다. 타작방법에는 테를 치는 것, 보리 깨지게, 까부는 것, 키, 테질(이는 직접 바위에 쪼는 것) 등이 보여지고 있다. 나락과 보리타작을 하는 것은 같지만 보리타작을 하는 것이 더 따가운 것이다. 앞소리는 이원준(남,53세, 자인 교촌리)이 불렀으며 약 4분가량 소요된다.

(앞소리) 옹혜야	(뒷소리)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어절씨구	옹혜야
잘도나 한다(3번 반복)	옹혜야
이 보리가	옹혜야
양반에 보린가	옹혜야
쉬미도 질다	옹혜야
쉬미도 질어	옹혜야
이 보리가	옹혜야
상놈의 보린가	옹혜야
몽글기도	옹혜야
몽글구나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어절씨구	옹혜야
잘도나 한다	옹혜야
여보게요	옹혜야
이 보리가	옹혜야
개구리 보린가	옹혜야
폴짝 뛰네	옹혜야
폴짝 뛰어	옹혜야
이 보리가	옹혜야
취세끼 보린가	옹혜야
잘도 숨네	옹혜야
잘도나 숨어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옹혜야
어절씨구	옹혜야
잘도나 한다	옹혜야
잘도 해요	옹혜야
중참 때가	옹혜야
되었구나	옹혜야
꼴때나 밀에	옹혜야
툑툑 푹툑	옹혜야
때리고 패라	옹혜야
때리고 패라	옹혜야
잘도 쾨다	옹혜야

어절시구	옹헤야		
잘도나 한다	옹헤야		
잘도나해요	옹헤야		
여보시오	옹헤야		
일꾼들아	옹헤야		
앞산 너머	옹헤야		
비 들어온다	옹헤야		
얼른 얼른	옹헤야		
때리고 패라	옹헤야		
때리고 패라	옹헤야		
휘쭈휘쭈	옹헤야		
잘도 뺨다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나 한다	옹헤야		
잘도나 해요	옹헤야		
보리타작	옹헤야		
디다더니	옹헤야		
듣기보다	옹헤야		
더 디구나	옹헤야		
사람 죽네	옹헤야		
사람 죽어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잘도나 한다	옹헤야		
잘도나 해여	옹헤야		
보리타작	옹헤야		
이럭저럭	옹헤야		
끝날때가	옹헤야		
되었구나	옹헤야		
넘어간다	옹헤야		
넘	어	간	다
방아타령	옹헤야		
넘어나 가자	옹헤야		

㉠ 방아타령

방아타령은 남녀노소없이 다같이 하는 소리마당이다. 선창은 남자가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후창을 한다. 자인지역의 들일은 망개소리, 보역사소리 등 힘드는 일 이외에는 거의가 남녀 공동작업이다. 이 노래는 선창자에 따라서 노래의 가락과 유희를 더할 수 있는 소리이다. 앞소리는 이규한(남,72세,자인 서부리)가 불렀으며 약 3분정도 소요된다.

(앞소리) 오호호 방아야

이 방아가 누 방아고
강태공에 조작방아
경상도 물레방아
혼자 짚는 외가래방아

(뒷소리) 오호호 방아야

오호호 방아야
오호호 방아야
오호호 방아야
오호호 방아야

둘이 짚는 짚가래방아	오호호 방아야
왈가닥 달가닥 짚는 방아	오호호 방아야
쿵쾅쿵쾅 짚어보자	오호호 방아야
언제 짚코 마실갈까	오호호 방아야
먼데 사람 듣기 좋고	오호호 방아야
곁에 사람 보기도 좋고	오호호 방아야
왈가닥 달가닥 짚는 방아	오호호 방아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오호호 방아야
짚은 방아로 넘어간다	오호호 방아야

★ 빠르게 ★

(앞소리) 오호호 방아야	(뒷소리) 오호호 방아야
이팔청춘 소년들아	오호호 방아야
백발보고 비 웃지마라	오호호 방아야
어제아래 소년이지	오호호 방아야
백발보고 잠깐일세	오호호 방아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오호호 방아야
칭칭이로 넘어간다	오호호 방아야

이 사이에 상머슴(큰머슴)이 가마 위에 올라타서 무대한 바퀴를 돈다. 이는 하나의 벼슬을 의미하는 것이다. 머슴중의 상머슴이 양반, 지주의 명령을 듣고 머슴을 총괄하고 임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㉔ 칭칭이소리

칭칭이소리는 논매기를 마치고 상일꾼이 걸채(쟁이말)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실제로는 소등에 뒤로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칭칭이를 부르는데 소 대신 걸채로 재현한다. 이때에는 찹쌀수제비, 술등을 준비하였다가 일꾼들의 노고를 달래주는 주인 양반들의 선심의 표현되기도 하다. 이 소리는 관중들과의 석별의 아쉬움을 담고 있는 것이다. 흥을 돋구거나 재미를 더하는 효과를 지닌다. 앞소리는 유일하게 여자가 부르는데, 석일색(여,71세, 자인 서부리)이 불렀으며 약 4분 정도 소요된다.

(앞소리) 치이나 칭칭나네	(뒷소리) 치이나 칭칭나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치이나 칭칭나네
꽃진다고 서러마라	치이나 칭칭나네
너는 한번 싫어지면	치이나 칭칭나네
명년 삼월에 오건마는	치이나 칭칭나네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치이나 칭칭나네
다시 올 줄 모른다네	치이나 칭칭나네
입은 가고 봄은 오니	치이나 칭칭나네
꽃만 피도 임의 생각	치이나 칭칭나네
강촌일월이 하수상하니	치이나 칭칭나네
강물만 불어도 임의 생각	치이나 칭칭나네
구시월 시단풍에	치이나 칭칭나네
단풍만 들어도 임의 생각	치이나 칭칭나네
넘어간다 넘어간다	치이나 칭칭나네
빠른 칭칭이로 넘어간다	치이나 칭칭나네

★빠르게★

(앞소리)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만장판에 여러분
다같이 춤을 추소
만장판에 여러분
다같이 손뼉 치소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칭칭나네
만장판에 여러분
올 농사 짓거들랑
풍년농사 지어주소
만장판에 여러분
아들 딸 많이 놓고
행복하게 잘 사시오
우리는 마칩니다
여러분도 잘 가이소

(뒷소리)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치이나 칭칭나네

와 --- 양손 높이 들고 흔들고 (합성)

참고 문헌

『慈仁縣邑誌』

『慶山郡誌』

최문병, 『省齋實錄』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 장군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12.

김천홍·최현,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70호-한 장군 놀이』, 문화재관리국, 1970.12.

김택규, 『경북예악지』, 경상북도, 1989.12.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재판),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8.

김택규·조춘호 외, 『자인단오』, 경산문화원, 1998.2.

이중대, 『자인의 맥』, 우진기획, 1991.11.

조춘호, 『경산문화유적총람』, 경산대학교출판부, 1996.12.

조춘호, 「자인 계정들소리 연구」, 『중악지』 8집, 1998.10. 영남문화회.

조춘호 외, 「자인단오 현장론적 연구」, 『경산문화연구』 5집, 2001. 경산문화연구소.

조춘호, 「자인단오 큰굿연구」, 『경산문화연구』 4집, 2000. 경산문화연구소.

조춘호, 「자인단오의 성격과 발전방안」 『경산문화연구』 7집, 2003. 경산문화연구소.

최상수, 「한장군놀이」, 『예술원논문집』 14집, 1974 ; 『한국 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재록.

강릉 대성황사 복원과 그 의미

김경남(국제아세아민속학회 사무총장)

1. 머리말

강릉 단오제의와 관련한 중요한 제의의 공간은 바로 대성황사(大城隍祠)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서낭당으로 약국성황, 대창리성황이 있다. 대성황사는 지금 강릉의 칠사당 뒷편에 위치했었다. 1894년 7월에서 1896년 2월초까지 약 19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갑오개혁시기에 대성황사는 멸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갑오개혁은 반상(班常)의 계급타파, 문벌을 초월한 인재의 등용, 인신매매의 금지, 천민대우의 폐지 등 전통적인 양반체제 하에서의 신분제도를 철폐하였다. 이 외에 죄인의 고문과 연좌제(連坐制)의 폐지, 조혼금지, 자유의사에 의한 과부의 재혼, 양자제도의 개정, 의복제도의 간소화 등 인습적인 전통을 근대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갑오개혁은 조선 개국 이후 500년을 이어온 구제도를 일신한 제도상의 근대적 개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따라 강행된 타율적인 개혁이므로 국내의 항일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가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침략의지를 드러내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강릉단오제의 중요한 제의 공간인 칠사당 뒤편의 우리 고유의 믿음처였던 대성황사가 퇴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본인에 의하여 오월 단오날 대관령국사서낭신을 모시고 지내던 무속제의가 금지되기에 이른다. 강릉지역 한학자였던 심일수의 일기를 참고 있는 『遯湖遺稿』에는 ‘융희 3년 을유 5월 단오 무격이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맞이하는 무격희를 일본인이 금지하여 폐하기 시작하였다’¹⁾라고 적고 있다. 융희 삼년은 1909년이니 일제 침략이 시작되자마자 곧 바로 우리 민족의 기층신앙에 대한 탄압을 제일 먼저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멸실된 대성황사는 근래에 와서 가설 대성황사라 할 수 있는 남대천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성황 공간 중심의 팔단오(八端午)로 진행되던 단오제는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대관령산신 김유신 중심의 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서낭 범일국사 중심의 제의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성황사의 멸실(滅失)은 제의의 공간, 제의의 내용, 신격의 변화 등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대성황사의 복원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이 책은 심일수(1877-1947) 선생의 문집이다. 문집은 시편, 서편, 제문편, 잡지편으로 편성되어 있다. 잡지편 속에 일기가 들어 있다. 일기의 내용은 광무 9년(1905)에서 1949년까지의 기록이다. ‘隆熙三年乙酉五月端午迎大關嶺國師城隍神巫覡戲始廢日人禁之也’

2. 대성황사 관련자료 검토

○ 李荇 外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4, 1530, 강릉대도호부, 사묘

- 성황사 : 부 서쪽 백보(百步) 지점에 있다.
- 김유신사(金庾信祠) : 화부산에 있다. 신증 : 지금은 성황사와 합쳤다.
- 대관산신사(大觀山神祠) : 부 서쪽 40리 지점에 있다.

○ 허균, 『성소부부고』, 권14, 문부11, 1611, 大嶺山神贊 莛書.

· 마을 사람들이 신봉하여 해마다 5월 길일에 대관령으로 가서 그 신을 맞이하여 부사에 모신 다음 5일에 이르면 잡희를 베풀어 신을 즐겁게 해 준다.

○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p. 285-295.

· 제사는 ‘단오제’ 라고 부르며 매년 음 3월 20일부터 신주를 빚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 달 건너 4월 1일과 8일에 현주와 무악이 있고, 14일 저녁에서 15일 밤에 걸쳐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에 있는 성황당에 받들어 모신다.

· 그러나 대성황당 즉 강릉의 읍성황당은 지금은 완전히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마을 서부 작은 언덕위에 옛날의 위치를 더듬을 수 있을 뿐이었다.

· 더욱이 대성황당에 모신 열두 신위는 갑오경장 때 모두 땅속에 묻어 버렸으나 이 근주(李根周) 씨의 기억하는 바로는 흥덕왕 김유신, 송악산신, 강문부인, 초당부인, 연화부인, 서산, 송계부인, 범일국사, 이사부 등이 있었던 것 같다. 옹은 이 열두 신의 이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의 무격 중 강릉 유일의 생존자 조개불(趙介不)을 찾아 봤으나 역시 전부는 알지 못했다.

○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집 조선총독부, 1931. pp. 279-281.

· 국사성황강신제 -- 봉화와 악대의 줄이 수십 리에 이르니 자못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하여 신목은 읍내의 소성황을 시작으로 각 관아를 돌아 대성황(지금은 없으며 그 흔적만 있다)에 봉안된다. 호장은 단오굿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격을 대동하고 매일 참배를 한다.

○ 吳晴, 『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1931, p. 147.

· 강원도 강릉읍에서 행해진 것인데 옛날에는 매년 5월5일이 되면 읍내 사람들은 헛대 등을 가지고 대관령에 이르러 신을 맞이하여 관아에 봉안하고 여러 가지 재미 있는 놀이로 받들어 모셨다.

○ 瀧澤 誠, 『增修臨瀛誌』江陵古蹟保存會, 1933.

· 황혼이 되어 관사에 이르면 횃불이 들판을 메우고 관청의 하인들이 이를 맞아 성황사에 안치하였다.

○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pp 61-71.

·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면 신간은 읍내의 관민이 맞이하여 읍내 입구에 있는 소성황(小城隍-흔히 여성황이라 부른다)에서 잠시 쉬고 이어서 군수 관사 및 육방 관사 등의 관아를 돌아 마지막에 마을의 대성황(大城隍-지금은 폐지된 수비대 연병장의 자리가 그 흔적이다. 당시에는 10칸의 커다란 신당이였다. 가운데에는 성황신 외에 다른 산신 및 장군신이 모셔지고 있었다)에 이른다.

○ 秋葉 隆, 『朝鮮巫俗の 現地研究』 養徳社, 1950, pp, 122-123.

· 성황신간에 의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의 대성황사에 봉하고 신주를 바치는 자로는 첫 헌관은 호장, 다음 헌관은 부사색, 셋째 헌관은 수노 마지막 헌관은 성황직이었다.

○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 대성황당은 지금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측후소가 들어 앉았다. 원래는 강릉시의 대성황사가 있었으며 대관령국사성황을 이곳에 모셔 놓고 제사를 하던 곳이다. 일인(日人)이 들어온 후로 행사가 억제되고 사우도 퇴락하였다는 것이다.

· 대성황사에는 12신위를 봉안하였다는 바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서산송계부인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성황당덕자모왕지신, 신무당성황신, 김유신지신, 이사부지신, 초당리부인지신, 연화부인지신, 범일국사지신이다.

강릉단오제의 중요 공간인 대성황사의 존재는 이미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다. 그리고 대관령에 대관산신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화

부산에 모시던 김유신사를 성황사에 합쳤다²⁾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김유신 장군의 마을신의 인격화 과정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대관령산신이나, 대성황사의 12지신의 하나로 좌정하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성황사의 존재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된 지 70여년 이후 교산 허균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을 그의 저서 『성소부부고』 대령산신찬 병서에 기록했다. ‘마을 사람들이 신봉하여 해마다 5월 길일에 대관령으로 가서 그 신을 맞이하여 부사에 모신 다음 5일에 이르면 잡희를 베풀어 신을 즐겁게 해 준다.’³⁾ 여기에서 부사에 모신다는 것은 ‘부사의 성황사에 모신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대관령산신을 김유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관령산신을 모시고 강릉부내(江陵府內)의 성황사에 봉안하는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성황사와 관련된 기록은 허균의 기록 이후 일본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1928년 강원도와 강릉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추엽용(秋葉隆)은 강릉단오제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조사하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에 있는 성황당에 받들어 모신다’⁴⁾ 고 기록하였으며, ‘그러나 대성황당 즉 강릉의 읍성황당은 지금은 완전히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마을 서부 작은 언덕위에 옛날의 위치를 더듬을 수 있을 뿐이었다.’ 고 하였다. 그리고 대성황사에 모시던 12지신에 대해서도 ‘더욱이 대성황당에 모신 열두 신위는 갑오경장 때 모두 땅속에 묻어 버렸으나 이근주(李根周) 씨의 기억하는 바로는 흥덕왕 김유신, 송악산신, 강문부인, 초당부인, 연화부인, 서산, 송계부인, 범일국사, 이사부 등이 있었던 것 같다. 옹은 이 열두 신의 이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의 무격 중 강릉 유일의 생존자 조개불(趙介不)을 찾아 봤으나 역시 전부는 알지 못했다.’⁵⁾ 고 언급하고 9신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황당에 대해서도 ‘여성황당은 남대천가에 폐잔한 작은 사우(祠宇)로 남아 있었다. 입구에는 靈神堂 庚寅四月上幹 月波 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고 그 안에는 土地之神位 라고 먹으로 쓴 흰 나무의 신위가 있고 약간의 제기도 있어 아직도 신앙이 절멸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라고 했다. 추엽용은 특히 대성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음력 3월 20일 신주빚기를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3개월에 걸쳐 행하여지는 제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도 ‘조선의 유신이라고 불려지는 갑오혁신 이래 끊어지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⁷⁾ 라고 하였다.

대성황당의 또 다른 기록은 추엽용의 『일본민속학』에 소개한 ‘강릉단오제’ 이후 이듬해 193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

2) 李荇 外,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4, 1530, 江陵大都護府, 祠廟

3) 許 均, 『惺所覆瓿藁』, 권14, 문부11, 1611, 大嶺山神贊 竝書.

4)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p. 285-295.

5)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6)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7)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집에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선생영조(善生永助)가 조사한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국사성황강신제를 설명하면서 ‘봉화와 악대의 줄이 수십 리에 이르니 자못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하여 신목은 읍내의 소성황을 시작으로 각 관아를 돌아 대성황(지금은 없으며 그 흔적만 있다)에 봉안된다. 호장은 단오굿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격을 대동하고 매일 참배를 한다.’⁸⁾ 고 하였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가 간행된 오청(吳晴)의 『朝鮮の年中行事』의 기록은 ‘매년 5월 5일이 되면 읍내 사람들은 햇대 등을 가지고 대관령에 이르러 신을 맞이하여 관아에 봉안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받들어 모셨다.’⁹⁾ 고 간략하게 대성황사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1933년 강릉고적보전회가 편찬한 증수 임영지에서는 영신행렬이 ‘황혼이 되어 관사에 이르면 햇불이 들판을 메우고 관청의 하인들이 이를 맞아 성황사에 안치하였다.’¹⁰⁾ 고 기록하였다.

대성황사의 관련된 기록으로 1937년 村山智順의 『部落祭』의 기록이 있다.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면 신간은 읍내의 관민이 맞이하여 읍내 입구에 있는 소성황(小城隍-흔히 여성황이라 부른다)에서 잠시 쉬고 이어서 군수 관사 및 육방 관사 등의 관아를 돌아 마지막에 마을의 대성황(大城隍-지금은 폐지된 수비대 연병장의 자리가 그 흔적이다. 당시에는 10칸의 커다란 신당이였다. 가운데에는 성황신 외에 다른 산신 및 장군신이 모셔지고 있었다)에 이른다.’¹¹⁾ 하였으며 대성황사의 위치와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10칸의 커다란 신당이라 하였고 12신을 언급하는 듯한 성황신 외에 산신 및 장군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산신을 모신 행렬이 여성황에 잠시 들리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여국사성황당의 위치와 단오제와의 관계 등 그 의미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950년 추엽용의 『朝鮮巫俗の現地研究』가 있다. 이 책은 1930년 보고된 강릉단오제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쓴 논문이다. ‘성황신간에 의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의 대성황사에 봉하고 신주를 바치는 자로는 첫 현관은 호장, 다음 현관은 부사색, 셋째 현관은 수노 마지막 현관은 성황직이었다.’¹²⁾ 고 하여 산신맞이 행사와 대성황당에서의 단오굿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1966년 임동권에 의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있다. 이는 강릉단오제를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강릉의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단오제의 유래와 전설, 유적, 행사내역, 무굿, 관노가면극, 금기, 대관령 성황 축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성황당은 지금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측후소가 들어앉았다. 원래는 강릉시의 대성황사가 있었으며 대관령국사성황을 이 곳에 모셔 놓고 제사를 하던 곳이다. 일인

8)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집 조선총독부, 1931. pp. 279-281.

9) 吳 晴, 『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1931, p. 147.

10) 瀧澤 誠, 『增修臨瀛誌』 江陵古蹟保存會, 1933.

11)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pp 61-71.

12) 秋葉 隆, 『朝鮮巫俗の現地研究』 養徳社, 1950, pp, 122-123.

(日人)이 들어온 후로 행사가 억제되고 사우도 퇴락하였다는 것이다.’¹³⁾ 라고 하여 대성황사가 일인들에 의하여 퇴락하였다는 현지 주민들의 제보를 실어 놓고 있다.

3. 대성황사 12지신과와 팔단오

대성황사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보면 대성황사는 1530년경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 최초로 확인된다. 이 기록 이후 허균의 기록에서는 1603년 경에는 대관령산신을 맞이하여 부사의 성황사에 모시는 기록 또한 확인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의의 공간으로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퇴락하여 멸실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하겠다. 대성황사의 멸실은 강릉단오제의 전반에 걸쳐 개편을 가져왔다. 대성황사는 강릉 단오제의와 관련된 중요한 제의의 공간이었다. 이는 특히 신격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추업용은 대성황사에 모시던 12지신에 대해서도 ‘더욱이 대성황당에 모신 열두 신위는 갑오경장 때 모두 땅속에 묻어 버렸으나 이근주(李根周) 씨의 기억하는 바로는 흥덕왕 김유신, 송악산신, 강문부인, 초당부인, 연화부인, 서산, 송계부인, 범일국사, 이사부 등이 있었던 것 같다. 용은 이 열두 신의 이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의 무격 중 강릉 유일의 생존자 조개불(趙介不)을 찾아 봤으나 역시 전부는 알지 못했다.’¹⁴⁾ 고 언급하고 9신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영조의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보고서에는 11지신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보면 성황지신, 송악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성황당덕자모왕지신, 신라김유신지신, 강문개성부인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신라장군지신, 초당리부인지신¹⁵⁾ 이다. 이 기록에는 아직 성황지신과 신라장군의 구체적 인격화의 언급이 없다. 그리고 12지신 가운데 ‘송계부인지신’의 언급이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대성황사의 12지신의 언급은 임동권이 처음이다. ‘대성황사에는 12신위를 봉안하였다는 바,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서산송계부인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성황당덕자모왕지신, 신무당성황신, 김유신지신, 이사부지신, 초당리부인지신, 연화부인지신, 범일국사지신’¹⁶⁾ 이라 하였다. 범일국사신과 이사부신 그리고 송계부인신의 등장이 앞선 기록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성황사의 멸실은 대성황에서 진행되었던 제의의 개편과 공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강릉의 입구 남대천변에 위치했던 여서낭당도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산신을 모시던 행차가 국사서낭신 행차로 변화되었으며,¹⁷⁾ 대성황사에 안

13)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14)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15)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집 조선총독부, 1931. p. 279.

16)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p. 28.

치되었던 신목은 국사여서낭당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국사성황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황당에서 이루어지던 단오제의는 현재의 흥제동 위치로 서낭당이 이동하면서 가설 성황사를 설치¹⁸⁾하여 제의의 공간만 남대천변으로 남게 된 까닭이겠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성황사의 12신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던 범일국사신만 유일하게 대관령국사성황사로 공간 이동을 했다 하겠다. 대성황사의 멸실은 단오제의 또 다른 제의의 공간이었던 다른 서낭당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리하여 시내 북쪽에 위치한 약국성황이나 동쪽에 위치한 대창리 성황당의 제의도 퇴락하는 배경이 되고 말았다.¹⁹⁾ 과거 제의 때에는 제관, 임원, 무격 등이 大昌驛馬를 타고 대관령을 왕복하고 신목을 모시고 도착하였으며, 이 대창리 성황당에는 肉城隍堂과 素城隍의 二位를 모셨다 하고 육성황을 창해역사, 소성황에는 강릉출신 매월당 김시습(1434 ~ 1493)을 제사 했다²⁰⁾는 것이다.

대성황사의 12지신은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성황당덕자모지신, 신무당성황신, 김유신지신, 이사부지신, 초당리부인지신, 서산송계부인지신, 연화부인지신, 범일국사지신 등이 봉안되었던 곳이다.²¹⁾ 이렇게 많은 神을 모신다는 것은 한국 신앙의 특징²²⁾인 多神의 신앙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속적 경향이 지역적 특색의 한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山神系, 地母神系, 將軍神系, 城隍神系로 분류할 수 있다.²³⁾

12지신 가운데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계열이 바로 山神系 神들이다. 자연숭배 대상으로서 名山은 대표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 명산에 성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이의 위력을 인간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산에 제를 올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속신앙에 의하여 전국 각처의 명산을 지정하여 삼국시대부터 제사를 거행한 사실²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조에도 일정한 명산을 영험한 곳으로 정하여 치제하거나 이곳에 神號加上 山神加封²⁵⁾ 함으로써 이를 숭배하여 신의 陰佑를 얻으려 했음을 『고려사』의 여러 곳에서 살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태조 때 봉호를 내리는 데²⁶⁾에도 치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대

17) 이에 대해 장정룡 교수는 강릉단오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국사성황신 영신행사에 대한 재고증이 필요하며 팔단오의 복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의 주신격은 산신이며 영신행사는 산신을 봉안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고증적 측면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릉시, 『강릉단오제 천년사 자료집』, p.109.

18) 임동권, 위의 책, p. 43. ‘대성황사가 지금은 없으므로 금년에는 근래의 前例에 따라 남대천백사장에 미리 마련한 가설당에 모셨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국사성황을 흥제동 여성황사에 봉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적어도 1966년 까지만 하여도 대성황사 제의의 공간이 살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 임동권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61년 도로공사 때에 대창성황사는 철거되었다고 한다. [임동권, 강릉단오제(『한국민속학논고』, 서울 : 집문당, 1971)], p. 221.

20) 임동권, 위의 책, 같은 곳.

21) 임동권, 앞의 책, p. 221.

22)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 : 형설출판사, 1977, p. 39.

23) 김선풍 · 김정남, 『강릉단오제연구』, 보고사, 1998, p.

24) 김부식, 『三國史記』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條,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分爲大中小祀”

25) 『고려사』, 世家十一, 肅宗 一七年 九月 名山大川皆加德號라 했고, 또 「同書」 世家二十七, 元宗三 十四年 五月條에는 “以先冊無等山 神陰助討賦命禮司加封爵號春秋致祭”라 한다.

성황사의 산신계열의 많은 신들이 좌정할 수 있었던 까닭이 국가적 치제에 의한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강릉지역의 환경적 영향도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각처의 유명한 산악 신을 좌정시켰는데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감악산대왕지신, 대관령산신인 김유신지신 등이 이들이다.

大城隍祠의 12신 가운데 女神은 城隍堂德慈母之神, 草堂里夫人之神, 西山松桂夫人之神, 蓮花夫人之神이다. 女神이 제의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우리 나라 원시 신앙 가운데 巫俗的 汎神論과 관련이 있다.²⁷⁾ 그리고 신화적 질서의 세계에서도 여신은 대지의 지모신으로의 상징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신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상징은 결국 지모신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모신과 관련된 속성은 바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수신, 대지신, 곡신 등의 원형 상징²⁸⁾임을 말해주고 있다.

마을제사의 신이 되는 경우는 인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 죽어서 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은 국가를 수호하던 사람, 마을을 개척한 사람, 위기에 있는 나라를 지킨 장군, 위협한 동물을 퇴치한 영웅²⁹⁾등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강릉 대성황사 12신 가운데 金異斯夫之神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에서 좌정하게 된 장군신이다. 김이사부장군은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을 정벌하였던 인물로 그는 이 지역과 관련이 있기에 神으로 좌정하게 되었다. 장군신은 무신(武神)으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재난을 막아 주는 신이다. 이러한 장군은 신가에도 나타나는데 <군웅>으로 오방신장과 다른 장수를 청배하여 오신하게 된다.

성황신은 고려 때부터 一城一邑의 수호신으로 권장해 온 신으로서 지방의 주·군·부락의 지방관리, 또는 부락민이 제사를 지냈다.³⁰⁾ <성황>은 중국 전래의 신앙으로 마을 수호기능과 명칭상의 발음이 비슷하여 우리 나라 <서낭> 신앙과 같이 혼용된다. 대성황사의 12神 가운데 이 성황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신은 神武堂城隍과 범일국사이다. 신무당성황신은 「東國歲時記」의 五月 端午條에³¹⁾ 씨름(각력회)을 했는데 공간적 배경이 남산의 왜장(지금의 예장동)과 북악산 신무문(神武門, 경복궁 뒷문)이었다. 여기에서 신무문은 바로 대성황사에서 볼 수 있었던 神武堂城隍神의 명칭과 같고, 단오와 관련된 풍습인 씨름 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유래한 신이 아닌가 한다. 범일국사신은 현재 강릉단오제사의 主神인 대관령 국사서낭신으로 모셔지는데, 대성황사 철폐 이후 유일하게 대관령으로 성황사를 옮겨 단독으로

26) 『朝鮮實錄』太祖元年 壬申 八月조에는 三軍癸酉春正月丁卯 吏曹請封境內名山大川城隍海島之神 松嶽隍曰鎮國公 利寧安邊完山城隍曰啓國伯 智異無等錦城啓龍紺岳三角白岳諸山晉州城隍曰國白其餘皆曰護國之神라 했다.

27) 박용식, 『한국신화의 원시 종교사상 연구』, 서울 : 일지사, 1984, p. 22.

28) 박용식, 앞의 책, p. 57.

29) 최길성, 앞의 책, p. 202.

30) 村山智順, 「朝鮮의 鬼神」, 東文選, 1990, p. 126.

31) 洪錫謨, 「東國歲時記」五月 端午條, 丁壯年少年 會於南山之倭場 北山之神武門後爲角力之戲

좌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성황사의 퇴락은 제의 의식 과정에도 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추엽용이 처음 언급했던 팔단오(八端午)의 모습이 그것이다. 추엽용의 1930년 기록에서 자세히 팔단오를 처음 언급하고 있다. 이후 단오제와 관련된 근대의 기록들도 음력 3월 20일 단오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 기점으로 하여 전개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팔단오는 추엽용의 1950년 『朝鮮巫俗の 現地研究』에서도 나타난다. 이후 임동권의 조사보고서에도 팔단오에 대한 언급이 있다. 추엽용의 팔단오³²⁾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월 20일 : 神酒謹釀
- 4월 1일(初端午) : 獻酒와 巫樂
- 4월 8일(再端午) : 獻酒와 巫樂
- 4월 14일 : 奉迎出發
- 4월 15일(三端午) : 山神奉迎, 大城隍祠 奉安
- 4월 27일(四端午) : 巫祭
- 5월 1일(五端午) : 花蓋, 官奴假面劇(本祭始作)
- 5월 4일(六端午) : 官奴假面劇, 巫樂
- 5월 5일(七端午) : 官奴假面劇, 巫樂
- 5월 6일(八端午) : 火散(燒祭), 奉送

또한 4월 15일 대관령에서 영신을 하여 대성황사에 봉안 하여 4월 16일부터 5월 6일 단오가 끝날 때 까지 21일 동안 매일 날이 밝기 전에 호장, 도사색, 수노, 성황직, 내무녀가 배례를 행한다고 하였고³³⁾ 1937년 村山智順의 『부락제』에는 4월 27일에는 읍내의 시장이 열리는 장날을 기하여 걸립을 하며, 이는 무격의 한 무리가 신악을 울리면서 신간을 앞세워 시내를 행진하여 제사비용을 거둔다³⁴⁾고 기록하고 있어 꽤 흥미롭다. 이처럼 팔단오는 대성황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제의의 기간과 내용 또한 다채롭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래의 강릉단오제는 음력 3, 4, 5월에 걸쳐 대성황사 중심의 팔단오(八端午) 민속대축제(民俗大祝祭)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동권의 1966년도 조사보고서³⁵⁾의 진행과정은 남대천 백사장의 가설당(假設堂)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 3월 20일 : 신주근양
- 4월 15일 : 봉영, 대관령성황제, 산신제
- 5월 3일 : 여성황제, 거화행진, 무악, 관노가면극, 농악

32)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 287.

33)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p. 289-290.

34)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pp 61-71.

35)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p. 39.

- 5월 4일 : 궁도대회, 체육대회
- 5월 5일 : 무악, 관노가면극, 농악, 그네대회, 씨름대회, 궁도대회, 체육대회
- 5월 6일 : 무악, 관노가면극, 농악, 그네대회, 씨름대회, 체육대회
- 5월 7일 : 무악, 소제

이 조사보고서의 강릉단오제 제의는 현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신주빚기가 음력 3월 20일이므로 현재의 4월 5일의 신주빚기 일자가 다를 뿐이다.

4. 대성황사복원과 그 의미

대성황사는 강릉 단오제의와 관련된 중요한 제의의 공간이었다. 이 대성황사는 일제의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멸실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원인이 되어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강릉단오제의의 모습도 변화를 맞게 된다. 대성황사에서 진행되었던 제의는 남대천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산신을 모시던 행차가 국사서낭신 행차로 변화되었으며, 대성황사에 안치되었던 신목은 국사여서낭당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사여서낭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대성황사의 12신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던 범일국사지신만 유일하게 대관령국사성황사로 공간 이동을 했다. 대성황사에 모셔졌던 12신은 산신계 신, 지모신계 신, 장군신계 신, 성황신계 신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2신은 대성황사에 좌정했던 신들이다. 이 12신들 역시 대성황당이 사라지면서 강릉단오제의 제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운명이 되었고, 대성황사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공간의 상실이 이루어지면서 단오제와 관련된 또 성황당에도 영향을 주어 그 기능과 공간의 상실을 가져왔다 할 것이다. 대관령산신행차에서 화개를 앞세우고 들러 곳을 하였다고 한 관련 성황당은 시내에서 북쪽의 약국성황과 시내 동쪽의 대창리 성황당이 그것이다. 음력 3, 4, 5월에 걸쳐 대성황사 중심의 팔단오(八端午) 민속대축제(民俗大祝祭)였던 강릉단오제는 대성황사를 잃어버림에 따라서 현재의 단오제 모습으로 축소되거나 개편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강릉단오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훌륭한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가 되었다. 바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강릉단오제의 전통문화적 우수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겠다. 이후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강릉단오제의 관광화, 세계화는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어떻게 이를 잘 꾸리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1967년 강릉단오제는 국가중요문화재지정 이후 많은 변모와 발전을 이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훼손된 단오제 관련 유적과 제의들은 다시 복원과 재현을 서둘러야 한다. 그 복원의 의미는 바로 단오제의 사상과 기층 민속의 가치를 복원을 의미 한다. 그 정점의 한

가운데에 있는 문제가 바로 대성황사이다. 대성황사는 팔단오의 유교 제의, 무속제의 뿐만아니라 관노가면극, 민속놀이, 난장 등과 같은 강릉단오제의 중요 민속문화 특소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성황사의 모셔졌던 12지신은 모두 강릉과 관련된 인격신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적 교훈과 충, 효, 예의 가치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교육 현장이며, 철학적 바탕이 되는 이 대성황사의 복원이야말로 강릉단오제의 잃어버렸던 복원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대성황사의 복원은 강릉단오제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하는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것이다. 이 대성황사의 복원을 중심으로 강릉단오제의 상설화 계획³⁶⁾을 도모하고 대성황사를 축으로 하여 강릉단오제박물관, 강릉단오제민속촌을 건립³⁷⁾하여 단오제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강릉단오제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전통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중요한 문화재로 널리 각광을 받아왔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민속문화의 결정체로 전국 유일의 오랜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며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강릉단오제의 튼튼한 역사적 뿌리는 고대 제천의식에 두고 있다. 이는 상고시대에 숭배되었던 다양한 자연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제의(祭儀)의 전통이다. 부족사회에서 숭배되었던 자연신은 천신, 산신, 해신, 부족장신 등이었는데 수렵, 농업, 가축, 전쟁에서의 승리, 풍어 등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의식이 점차 부족단위에서 마을단위로 변모되었다. 옛 문헌을 통해 보면 강원도에서는 강릉 단오제의와 같은 양상의 전통의식으로 삼척의 오금잠제, 태백의 산신제, 양구의 단오서낭제 등이 있으며 꽤 흥미롭다. 강릉단오제의 중심공간이었던 대성황사(大城隍祠)에는 12신을 모셨는데 12신 가운데 태백산산신이 있어서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삼척의 오금잠제와 태백의 산신제, 양구의 단오서낭제 등은 오늘날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강릉단오제는 역사, 지리, 환경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역사의 굴절을 경험하면서도 질박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강릉단오제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강릉이라는 한 지역을 벗어나 세계적인 문화의 장으로 승화되었다. 세계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강릉단오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대성황사의 복원과 팔단오의 복원은 강릉단오제라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첫 단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36) 근자의 강릉단오제 상설화를 위해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오제 행사를 위한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릉단오제 연구만을 위한 강릉단오제연구소 또는 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37) 김경남,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계승>, 『강릉단오제백서』, 강릉문화원, 1999. pp.50.

강릉 대성황사 복원과 그 의미

김경남(국제아세아민속학회 사무총장)

1. 머리말

강릉 단오제의의와 관련한 중요한 제의의 공간은 바로 대성황사(大城隍祠)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서낭당으로 약국성황, 대창리성황이 있다. 대성황사는 지금 강릉의 칠사당 뒷편에 위치했었다. 1894년 7월에서 1896년 2월초까지 약 19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갑오개혁시기에 대성황사는 멸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갑오개혁은 반상(班常)의 계급타파, 문벌을 초월한 인재의 등용, 인신매매의 금지, 천민대우의 폐지 등 전통적인 양반체제 하에서의 신분제도를 철폐하였다. 이 외에 죄인의 고문과 연좌제(連坐制)의 폐지, 조혼금지, 자유의사에 의한 과부의 재혼, 양자제도의 개정, 의복제도의 간소화 등 인습적인 전통을 근대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갑오개혁은 조선 개국 이후 500년을 이어온 구제도를 일신한 제도상의 근대적 개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따라 강행된 타율적인 개혁이므로 국내의 항일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가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침략의지를 드러내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강릉단오제의 중요한 제의 공간인 칠사당 뒤편의 우리 고유의 믿음처였던 대성황사가 퇴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본인에 의하여 오월 단오날 대관령국사서낭신을 모시고 지내던 무속제의가 금지되기에 이른다. 강릉지역 한학자였던 심일수의 일기를 참고 있는 『遯湖遺稿』에는 ‘융희 3년 을유 5월 단오 무격이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맞이하는 무격희를 일본인이 금지하여 폐하기 시작하였다’¹⁾라고 적고 있다. 융희 삼년은 1909년이니 일제 침략이 시작되자마자 곧 바로 우리 민족의 기층신앙에 대한 탄압을 제일 먼저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멸실된 대성황사는 근래에 와서 가설 대성황사라 할 수 있는 남대천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성황 공간 중심의 팔단오(八端午)로 진행되던 단오제는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대관령산신 김유신 중심의 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서낭 범일국사 중심의 제의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성황사의 멸실(滅失)은 제의의 공간, 제의의 내용, 신격의 변화 등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대성황사의 복원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이 책은 심일수(1877-1947) 선생의 문집이다. 문집은 시편, 서편, 제문편, 잡지편으로 편성되어 있다. 잡지편 속에 일기가 들어 있다. 일기의 내용은 광무 9년(1905)에서 1949년까지의 기록이다. ‘隆熙三年乙酉五月端午迎大關嶺國師城隍神巫覡戲始廢日人禁之也’

2. 대성황사 관련자료 검토

○ 李荇 外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4, 1530, 강릉대도호부, 사묘

- 성황사 : 부 서쪽 백보(百步) 지점에 있다.
- 김유신사(金庾信祠) : 화부산에 있다. 신증 : 지금은 성황사와 합쳤다.
- 대관산신사(大觀山神祠) : 부 서쪽 40리 지점에 있다.

○ 허균, 『성소부부고』, 권14, 문부11, 1611, 大嶺山神贊 莛書.

· 마을 사람들이 신봉하여 해마다 5월 길일에 대관령으로 가서 그 신을 맞이하여 부사에 모신 다음 5일에 이르면 잡희를 베풀어 신을 즐겁게 해 준다.

○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p. 285-295.

· 제사는 ‘단오제’ 라고 부르며 매년 음 3월 20일부터 신주를 빚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 달 건너 4월 1일과 8일에 현주와 무악이 있고, 14일 저녁에서 15일 밤에 걸쳐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에 있는 성황당에 받들어 모신다.

· 그러나 대성황당 즉 강릉의 읍성황당은 지금은 완전히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마을 서부 작은 언덕위에 옛날의 위치를 더듬을 수 있을 뿐이었다.

· 더욱이 대성황당에 모신 열두 신위는 갑오경장 때 모두 땅속에 묻어 버렸으나 이 근주(李根周) 씨의 기억하는 바로는 흥덕왕 김유신, 송악산신, 강문부인, 초당부인, 연화부인, 서산, 송계부인, 범일국사, 이사부 등이 있었던 것 같다. 옹은 이 열두 신의 이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의 무격 중 강릉 유일의 생존자 조개불(趙介不)을 찾아 봤으나 역시 전부는 알지 못했다.

○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집 조선총독부, 1931. pp. 279-281.

· 국사성황강신제 -- 봉화와 악대의 줄이 수십 리에 이르니 자못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하여 신목은 읍내의 소성황을 시작으로 각 관아를 돌아 대성황(지금은 없으며 그 흔적만 있다)에 봉안된다. 호장은 단오굿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격을 대동하고 매일 참배를 한다.

○ 吳晴, 『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1931, p. 147.

· 강원도 강릉읍에서 행해진 것인데 옛날에는 매년 5월5일이 되면 읍내 사람들은 헛대 등을 가지고 대관령에 이르러 신을 맞이하여 관아에 봉안하고 여러 가지 재미 있는 놀이로 받들어 모셨다.

○ 瀧澤 誠, 『增修臨瀛誌』江陵古蹟保存會, 1933.

· 황혼이 되어 관사에 이르면 횃불이 들판을 메우고 관청의 하인들이 이를 맞아 성황사에 안치하였다.

○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pp 61-71.

·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면 신간은 읍내의 관민이 맞이하여 읍내 입구에 있는 소성황(小城隍-흔히 여성황이라 부른다)에서 잠시 쉬고 이어서 군수 관사 및 육방 관사 등의 관아를 돌아 마지막에 마을의 대성황(大城隍-지금은 폐지된 수비대 연병장의 자리가 그 흔적이다. 당시에는 10칸의 커다란 신당이였다. 가운데에는 성황신 외에 다른 산신 및 장군신이 모셔지고 있었다)에 이른다.

○ 秋葉 隆, 『朝鮮巫俗の 現地研究』 養德社, 1950, pp, 122-123.

· 성황신간에 의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의 대성황사에 봉하고 신주를 바치는 자로는 첫 헌관은 호장, 다음 헌관은 부사색, 셋째 헌관은 수노 마지막 헌관은 성황직이었다.

○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 대성황당은 지금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측후소가 들어 앉았다. 원래는 강릉시의 대성황사가 있었으며 대관령국사성황을 이곳에 모셔 놓고 제사를 하던 곳이다. 일인(日人)이 들어온 후로 행사가 억제되고 사우도 퇴락하였다는 것이다.

· 대성황사에는 12신위를 봉안하였다는 바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서산송계부인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성황당덕자모왕지신, 신무당성황신, 김유신지신, 이사부지신, 초당리부인지신, 연화부인지신, 범일국사지신이다.

강릉단오제의 중요 공간인 대성황사의 존재는 이미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다. 그리고 대관령에 대관산신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화

부산에 모시던 김유신사를 성황사에 합쳤다²⁾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김유신 장군의 마을신의 인격화 과정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대관령산신이나, 대성황사의 12지신의 하나로 좌정하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성황사의 존재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된 지 70여년 이후 교산 허균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을 그의 저서 『성소부부고』 대령산신찬 병서에 기록했다. ‘마을 사람들이 신봉하여 해마다 5월 길일에 대관령으로 가서 그 신을 맞이하여 부사에 모신 다음 5일에 이르면 잡희를 베풀어 신을 즐겁게 해 준다.’³⁾ 여기에서 부사에 모신다는 것은 ‘부사의 성황사에 모신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대관령산신을 김유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관령산신을 모시고 강릉부내(江陵府內)의 성황사에 봉안하는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성황사와 관련된 기록은 허균의 기록 이후 일본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1928년 강원도와 강릉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추엽용(秋葉隆)은 강릉단오제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조사하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에 있는 성황당에 받들어 모신다’⁴⁾ 고 기록하였으며, ‘그러나 대성황당 즉 강릉의 읍성황당은 지금은 완전히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마을 서부 작은 언덕위에 옛날의 위치를 더듬을 수 있을 뿐이었다.’ 고 하였다. 그리고 대성황사에 모시던 12지신에 대해서도 ‘더욱이 대성황당에 모신 열두 신위는 갑오경장 때 모두 땅속에 묻어 버렸으나 이근주(李根周) 씨의 기억하는 바로는 흥덕왕 김유신, 송악산신, 강문부인, 초당부인, 연화부인, 서산, 송계부인, 범일국사, 이사부 등이 있었던 것 같다. 옹은 이 열두 신의 이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의 무격 중 강릉 유일의 생존자 조개불(趙介不)을 찾아 봤으나 역시 전부는 알지 못했다.’⁵⁾ 고 언급하고 9신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황당에 대해서도 ‘여성황당은 남대천가에 폐잔한 작은 사우(祠宇)로 남아 있었다. 입구에는 靈神堂 庚寅四月上幹 月波 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고 그 안에는 土地之神位 라고 먹으로 쓴 흰 나무의 신위가 있고 약간의 제기도 있어 아직도 신앙이 절멸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라고 했다. 추엽용은 특히 대성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음력 3월 20일 신주빚기를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3개월에 걸쳐 행하여지는 제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도 ‘조선의 유신이라고 불려지는 갑오혁신 이래 끊어지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⁷⁾ 라고 하였다.

대성황당의 또 다른 기록은 추엽용의 『일본민속학』에 소개한 ‘강릉단오제’ 이후 이듬해 193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

2) 李荇 外,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4, 1530, 江陵大都護府, 祠廟

3) 許 均, 『惺所覆瓿藁』, 권14, 문부11, 1611, 大嶺山神贊 竝書.

4)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p. 285-295.

5)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6)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7)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집에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선생영조(善生永助)가 조사한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국사성황강신제를 설명하면서 ‘봉화와 악대의 줄이 수십 리에 이르니 자못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하여 신목은 읍내의 소성황을 시작으로 각 관아를 돌아 대성황(지금은 없으며 그 흔적만 있다)에 봉안된다. 호장은 단오굿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격을 대동하고 매일 참배를 한다.’⁸⁾ 고 하였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가 간행된 오청(吳晴)의 『朝鮮の年中行事』의 기록은 ‘매년 5월 5일이 되면 읍내 사람들은 햇대 등을 가지고 대관령에 이르러 신을 맞이하여 관아에 봉안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받들어 모셨다.’⁹⁾ 고 간략하게 대성황사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1933년 강릉고적보전회가 편찬한 증수 임영지에서는 영신행렬이 ‘황혼이 되어 관사에 이르면 햇불이 들판을 메우고 관청의 하인들이 이를 맞아 성황사에 안치하였다.’¹⁰⁾ 고 기록하였다.

대성황사의 관련된 기록으로 1937년 村山智順의 『部落祭』의 기록이 있다.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면 신간은 읍내의 관민이 맞이하여 읍내 입구에 있는 소성황(小城隍-흔히 여성황이라 부른다)에서 잠시 쉬고 이어서 군수 관사 및 육방 관사 등의 관아를 돌아 마지막에 마을의 대성황(大城隍-지금은 폐지된 수비대 연병장의 자리가 그 흔적이다. 당시에는 10칸의 커다란 신당이였다. 가운데에는 성황신 외에 다른 산신 및 장군신이 모셔지고 있었다)에 이른다.’¹¹⁾ 하였으며 대성황사의 위치와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10칸의 커다란 신당이라 하였고 12신을 언급하는 듯한 성황신 외에 산신 및 장군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산신을 모신 행렬이 여성황에 잠시 들리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여국사성황당의 위치와 단오제와의 관계 등 그 의미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950년 추엽용의 『朝鮮巫俗の現地研究』가 있다. 이 책은 1930년 보고된 강릉단오제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쓴 논문이다. ‘성황신간에 의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여 읍내의 대성황사에 봉하고 신주를 바치는 자로는 첫 현관은 호장, 다음 현관은 부사색, 셋째 현관은 수노 마지막 현관은 성황직이었다.’¹²⁾ 고 하여 산신맞이 행사와 대성황당에서의 단오굿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1966년 임동권에 의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있다. 이는 강릉단오제를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강릉의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단오제의 유래와 전설, 유적, 행사내역, 무굿, 관노가면극, 금기, 대관령 성황 축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성황당은 지금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측후소가 들어앉았다. 원래는 강릉시의 대성황사가 있었으며 대관령국사성황을 이 곳에 모셔 놓고 제사를 하던 곳이다. 일인

8)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집 조선총독부, 1931. pp. 279-281.

9) 吳 晴, 『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1931, p. 147.

10) 瀧澤 誠, 『增修臨瀛誌』 江陵古蹟保存會, 1933.

11)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pp 61-71.

12) 秋葉 隆, 『朝鮮巫俗の現地研究』 養徳社, 1950, pp, 122-123.

(日人)이 들어온 후로 행사가 억제되고 사우도 퇴락하였다는 것이다.’¹³⁾ 라고 하여 대성황사가 일인들에 의하여 퇴락하였다는 현지 주민들의 제보를 실어 놓고 있다.

3. 대성황사 12지신과와 팔단오

대성황사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보면 대성황사는 1530년경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 최초로 확인된다. 이 기록 이후 허균의 기록에서는 1603년 경에는 대관령산신을 맞이하여 부사의 성황사에 모시는 기록 또한 확인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의의 공간으로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퇴락하여 멸실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하겠다. 대성황사의 멸실은 강릉단오제의 전반에 걸쳐 개편을 가져왔다. 대성황사는 강릉 단오제의와 관련된 중요한 제의의 공간이었다. 이는 특히 신격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추업용은 대성황사에 모시던 12지신에 대해서도 ‘더욱이 대성황당에 모신 열두 신위는 갑오경장 때 모두 땅속에 묻어 버렸으나 이근주(李根周) 씨의 기억하는 바로는 흥덕왕 김유신, 송악산신, 강문부인, 초당부인, 연화부인, 서산, 송계부인, 범일국사, 이사부 등이 있었던 것 같다. 용은 이 열두 신의 이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의 무격 중 강릉 유일의 생존자 조개불(趙介不)을 찾아 봤으나 역시 전부는 알지 못했다.’¹⁴⁾ 고 언급하고 9신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영조의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보고서에는 11지신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보면 성황지신, 송악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성황당덕자모왕지신, 신라김유신지신, 강문개성부인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신라장군지신, 초당리부인지신¹⁵⁾ 이다. 이 기록에는 아직 성황지신과 신라장군의 구체적 인격화의 언급이 없다. 그리고 12지신 가운데 ‘송계부인지신’의 언급이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대성황사의 12지신의 언급은 임동권이 처음이다. ‘대성황사에는 12신위를 봉안하였다는 바,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서산송계부인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성황당덕자모왕지신, 신무당성황신, 김유신지신, 이사부지신, 초당리부인지신, 연화부인지신, 범일국사지신’¹⁶⁾ 이라 하였다. 범일국사신과 이사부신 그리고 송계부인신의 등장이 앞선 기록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성황사의 멸실은 대성황에서 진행되었던 제의의 개편과 공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강릉의 입구 남대천변에 위치했던 여서낭당도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산신을 모시던 행차가 국사서낭신 행차로 변화되었으며,¹⁷⁾ 대성황사에 안

13)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14) 秋葉 隆, 위의 책, 같은 곳.

15) 『生活狀態調査(其三) 강릉군』 조사자료 32집 조선총독부, 1931. p. 279.

16)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p. 28.

치되었던 신목은 국사여서낭당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국사성황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황당에서 이루어지던 단오제의는 현재의 흥제동 위치로 서낭당이 이동하면서 가설 성황사를 설치¹⁸⁾하여 제의의 공간만 남대천변으로 남게 된 까닭이겠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성황사의 12신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던 범일국사신만 유일하게 대관령국사성황사로 공간 이동을 했다 하겠다. 대성황사의 멸실은 단오제의 또 다른 제의의 공간이었던 다른 서낭당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리하여 시내 북쪽에 위치한 약국성황이나 동쪽에 위치한 대창리 성황당의 제의도 퇴락하는 배경이 되고 말았다.¹⁹⁾ 과거 제의 때에는 제관, 임원, 무격 등이 大昌驛馬를 타고 대관령을 왕복하고 신목을 모시고 도착하였으며, 이 대창리 성황당에는 肉城隍堂과 素城隍의 二位를 모셨다 하고 육성황을 창해역사, 소성황에는 강릉출신 매월당 김시습(1434 ~ 1493)을 제사 했다²⁰⁾는 것이다.

대성황사의 12지신은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성황당덕자모지신, 신무당성황신, 김유신지신, 이사부지신, 초당리부인지신, 서산송계부인지신, 연화부인지신, 범일국사지신 등이 봉안되었던 곳이다.²¹⁾ 이렇게 많은 神을 모신다는 것은 한국 신앙의 특징²²⁾인 多神의 신앙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속적 경향이 지역적 특색의 한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山神系, 地母神系, 將軍神系, 城隍神系로 분류할 수 있다.²³⁾

12지신 가운데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계열이 바로 山神系 神들이다. 자연숭배 대상으로서 名山은 대표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 명산에 성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이의 위력을 인간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산에 제를 올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속신앙에 의하여 전국 각처의 명산을 지정하여 삼국시대부터 제사를 거행한 사실²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조에도 일정한 명산을 영험한 곳으로 정하여 치제하거나 이곳에 神號加上 山神加封²⁵⁾ 함으로써 이를 숭배하여 신의 陰佑를 얻으려 했음을 『고려사』의 여러 곳에서 살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태조 때 봉호를 내리는 데²⁶⁾에도 치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대

17) 이에 대해 장정룡 교수는 강릉단오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국사성황신 영신행사에 대한 재고증이 필요하며 팔단오의 복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의 주신격은 산신이며 영신행사는 산신을 봉안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고증적 측면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릉시, 『강릉단오제 천년사 자료집』, p.109.

18) 임동권, 위의 책, p. 43. ‘대성황사가 지금은 없으므로 금년에는 근래의 前例에 따라 남대천백사장에 미리 마련한 가설당에 모셨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국사성황을 흥제동 여성황사에 봉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적어도 1966년 까지만 하여도 대성황사 제의의 공간이 살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 임동권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61년 도로공사 때에 대창성황사는 철거되었다고 한다. [임동권, 강릉단오제(『한국민속학논고』, 서울 : 집문당, 1971)], p. 221.

20) 임동권, 위의 책, 같은 곳.

21) 임동권, 앞의 책, p. 221.

22)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 : 형설출판사, 1977, p. 39.

23) 김선풍 · 김정남, 『강릉단오제연구』, 보고사, 1998, p.

24) 김부식, 『三國史記』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條,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分爲大中小祀”

25) 『고려사』, 世家十一, 肅宗 一七年 九月 名山大川皆加德號라 했고, 또 「同書」 世家二十七, 元宗三十四年 五月條에는 “以先冊無等山 神陰助討賦命禮司加封爵號春秋致祭”라 한다.

성황사의 산신계열의 많은 신들이 좌정할 수 있었던 까닭이 국가적 치제에 의한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강릉지역의 환경적 영향도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각처의 유명한 산악 신을 좌정시켰는데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감악산대왕지신, 대관령산신인 김유신지신 등이 이들이다.

大城隍祠의 12신 가운데 女神은 城隍堂德慈母之神, 草堂里夫人之神, 西山松桂夫人之神, 蓮花夫人之神이다. 女神이 제의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우리 나라 원시 신앙 가운데 巫俗的 汎神論과 관련이 있다.²⁷⁾ 그리고 신화적 질서의 세계에서도 여신은 대지의 지모신으로의 상징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신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상징은 결국 지모신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모신과 관련된 속성은 바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수신, 대지신, 곡신 등의 원형 상징²⁸⁾임을 말해주고 있다.

마을제사의 신이 되는 경우는 인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 죽어서 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은 국가를 수호하던 사람, 마을을 개척한 사람, 위기에 있는 나라를 지킨 장군, 위협한 동물을 퇴치한 영웅²⁹⁾등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강릉 대성황사 12신 가운데 金異斯夫之神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에서 좌정하게 된 장군신이다. 김이사부장군은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을 정벌하였던 인물로 그는 이 지역과 관련이 있기에 神으로 좌정하게 되었다. 장군신은 무신(武神)으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재난을 막아 주는 신이다. 이러한 장군은 신가에도 나타나는데 <군웅>으로 오방신장과 다른 장수를 청배하여 오신하게 된다.

성황신은 고려 때부터 一城一邑의 수호신으로 권장해 온 신으로서 지방의 주·군·부락의 지방관리, 또는 부락민이 제사를 지냈다.³⁰⁾ <성황>은 중국 전래의 신앙으로 마을 수호기능과 명칭상의 발음이 비슷하여 우리 나라 <서낭> 신앙과 같이 혼용된다. 대성황사의 12神 가운데 이 성황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신은 神武堂城隍과 범일국사이다. 신무당성황신은 「東國歲時記」의 五月 端午條에³¹⁾ 씨름(각력회)을 했는데 공간적 배경이 남산의 왜장(지금의 예장동)과 북악산 신무문(神武門, 경복궁 뒷문)이었다. 여기에서 신무문은 바로 대성황사에서 볼 수 있었던 神武堂城隍神의 명칭과 같고, 단오와 관련된 풍습인 씨름 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유래한 신이 아닌가 한다. 범일국사신은 현재 강릉단오제사의 主神인 대관령 국사서낭신으로 모셔지는데, 대성황사 철폐 이후 유일하게 대관령으로 성황사를 옮겨 단독으로

26) 『朝鮮實錄』太祖元年 壬申 八月조에는 三軍癸酉春正月丁卯 吏曹請封境內名山大川城隍海島之神 松嶽隍曰鎮國公 利寧安邊完山城隍曰啓國伯 智異無等錦城啓龍紺岳三角白岳諸山晉州城隍曰國白其餘皆曰護國之神라 했다.

27) 박용식, 『한국신화의 원시 종교사상 연구』, 서울 : 일지사, 1984, p. 22.

28) 박용식, 앞의 책, p. 57.

29) 최길성, 앞의 책, p. 202.

30) 村山智順, 「朝鮮의 鬼神」, 東文選, 1990, p. 126.

31) 洪錫謨, 「東國歲時記」五月 端午條, 丁壯年少年 會於南山之倭場 北山之神武門後爲角力之戲

좌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성황사의 퇴락은 제의 의식 과정에도 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추엽용이 처음 언급했던 팔단오(八端午)의 모습이 그것이다. 추엽용의 1930년 기록에서 자세히 팔단오를 처음 언급하고 있다. 이후 단오제와 관련된 근대의 기록들도 음력 3월 20일 단오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 기점으로 하여 전개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팔단오는 추엽용의 1950년 『朝鮮巫俗の 現地研究』에서도 나타난다. 이후 임동권의 조사보고서에도 팔단오에 대한 언급이 있다. 추엽용의 팔단오³²⁾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월 20일 : 神酒謹釀
- 4월 1일(初端午) : 獻酒와 巫樂
- 4월 8일(再端午) : 獻酒와 巫樂
- 4월 14일 : 奉迎出發
- 4월 15일(三端午) : 山神奉迎, 大城隍祠 奉安
- 4월 27일(四端午) : 巫祭
- 5월 1일(五端午) : 花蓋, 官奴假面劇(本祭始作)
- 5월 4일(六端午) : 官奴假面劇, 巫樂
- 5월 5일(七端午) : 官奴假面劇, 巫樂
- 5월 6일(八端午) : 火散(燒祭), 奉送

또한 4월 15일 대관령에서 영신을 하여 대성황사에 봉안 하여 4월 16일부터 5월 6일 단오가 끝날 때 까지 21일 동안 매일 날이 밝기 전에 호장, 도사색, 수노, 성황직, 내무녀가 배례를 행한다고 하였고³³⁾ 1937년 村山智順의 『부락제』에는 4월 27일에는 읍내의 시장이 열리는 장날을 기하여 걸립을 하며, 이는 무격의 한 무리가 신악을 울리면서 신간을 앞세워 시내를 행진하여 제사비용을 거둔다³⁴⁾고 기록하고 있어 꽤 흥미롭다. 이처럼 팔단오는 대성황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제의의 기간과 내용 또한 다채롭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래의 강릉단오제는 음력 3, 4, 5월에 걸쳐 대성황사 중심의 팔단오(八端午) 민속대축제(民俗大祝祭)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동권의 1966년도 조사보고서³⁵⁾의 진행과정은 남대천 백사장의 가설당(假設堂)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 3월 20일 : 신주근양
- 4월 15일 : 봉영, 대관령성황제, 산신제
- 5월 3일 : 여성황제, 거화행진, 무악, 관노가면극, 농악

32)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 287.

33) 秋葉 隆, <江陵端午祭>, 『일본민속학』, 2권5호, 1930, pp. 289-290.

34)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pp 61-71.

35) 任東權, <江陵端午祭>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자료』, 서울 : 문화재 관리국, 1966. p. 39.

- 5월 4일 : 궁도대회, 체육대회
- 5월 5일 : 무악, 관노가면극, 농악, 그네대회, 씨름대회, 궁도대회, 체육대회
- 5월 6일 : 무악, 관노가면극, 농악, 그네대회, 씨름대회, 체육대회
- 5월 7일 : 무악, 소제

이 조사보고서의 강릉단오제 제의는 현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신주빚기가 음력 3월 20일이므로 현재의 4월 5일의 신주빚기 일자가 다를 뿐이다.

4. 대성황사복원과 그 의미

대성황사는 강릉 단오제의와 관련된 중요한 제의의 공간이었다. 이 대성황사는 일제의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멸실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원인이 되어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강릉단오제의의 모습도 변화를 맞게 된다. 대성황사에서 진행되었던 제의는 남대천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산신을 모시던 행차가 국사서낭신 행차로 변화되었으며, 대성황사에 안치되었던 신목은 국사여서낭당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사여서낭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대성황사의 12신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던 범일국사지신만 유일하게 대관령국사성황사로 공간 이동을 했다. 대성황사에 모셔졌던 12신은 산신계 신, 지모신계 신, 장군신계 신, 성황신계 신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2신은 대성황사에 좌정했던 신들이다. 이 12신들 역시 대성황당이 사라지면서 강릉단오제의 제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운명이 되었고, 대성황사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공간의 상실이 이루어지면서 단오제와 관련된 또 성황당에도 영향을 주어 그 기능과 공간의 상실을 가져왔다 할 것이다. 대관령산신행차에서 화개를 앞세우고 들러 곳을 하였다고 한 관련 성황당은 시내에서 북쪽의 약국성황과 시내 동쪽의 대창리 성황당이 그것이다. 음력 3, 4, 5월에 걸쳐 대성황사 중심의 팔단오(八端午) 민속대축제(民俗大祝祭)였던 강릉단오제는 대성황사를 잃어버림에 따라서 현재의 단오제 모습으로 축소되거나 개편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강릉단오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훌륭한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가 되었다. 바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강릉단오제의 전통문화적 우수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겠다. 이후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강릉단오제의 관광화, 세계화는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어떻게 이를 잘 꾸리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1967년 강릉단오제는 국가중요문화재지정 이후 많은 변모와 발전을 이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훼손된 단오제 관련 유적과 제의들은 다시 복원과 재현을 서둘러야 한다. 그 복원의 의미는 바로 단오제의 사상과 기층 민속의 가치를 복원을 의미 한다. 그 정점의 한

가운데에 있는 문제가 바로 대성황사이다. 대성황사는 팔단오의 유교 제의, 무속제의 뿐만아니라 관노가면극, 민속놀이, 난장 등과 같은 강릉단오제의 중요 민속문화 특소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성황사의 모셔졌던 12지신은 모두 강릉과 관련된 인격신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적 교훈과 충, 효, 예의 가치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교육 현장이며, 철학적 바탕이 되는 이 대성황사의 복원이야말로 강릉단오제의 잃어버렸던 복원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대성황사의 복원은 강릉단오제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하는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것이다. 이 대성황사의 복원을 중심으로 강릉단오제의 상설화 계획³⁶⁾을 도모하고 대성황사를 축으로 하여 강릉단오제박물관, 강릉단오제민속촌을 건립³⁷⁾하여 단오제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강릉단오제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전통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중요한 문화재로 널리 각광을 받아왔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민속문화의 결정체로 전국 유일의 오랜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며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강릉단오제의 튼튼한 역사적 뿌리는 고대 제천의식에 두고 있다. 이는 상고시대에 숭배되었던 다양한 자연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제의(祭儀)의 전통이다. 부족사회에서 숭배되었던 자연신은 천신, 산신, 해신, 부족장신 등이었는데 수렵, 농업, 가축, 전쟁에서의 승리, 풍어 등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의식이 점차 부족단위에서 마을단위로 변모되었다. 옛 문헌을 통해 보면 강원도에서는 강릉 단오제의와 같은 양상의 전통의식으로 삼척의 오금잠제, 태백의 산신제, 양구의 단오서낭제 등이 있으며 꽤 흥미롭다. 강릉단오제의 중심공간이었던 대성황사(大城隍祠)에는 12신을 모셨는데 12신 가운데 태백산산신이 있어서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삼척의 오금잠제와 태백의 산신제, 양구의 단오서낭제 등은 오늘날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강릉단오제는 역사, 지리, 환경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역사의 굴절을 경험하면서도 질박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강릉단오제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강릉이라는 한 지역을 벗어나 세계적인 문화의 장으로 승화되었다. 세계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강릉단오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대성황사의 복원과 팔단오의 복원은 강릉단오제라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첫 단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36) 근자의 강릉단오제 상설화를 위해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오제 행사를 위한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릉단오제 연구만을 위한 강릉단오제연구소 또는 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37) 김경남,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계승>, 『강릉단오제백서』, 강릉문화원, 1999. pp.50.

서울의 단오굿 - 마포나루굿

홍태한(중앙대학교)

1. 머리말

서울은 마을굿의 도시라 할 정도로 많은 마을굿이 지금도 남아있다³⁸⁾. 당주무당이라 하여 마을굿을 주관하는 무당이 온전하게 전승을 책임지고 있고, 다수의 마을사람들도 적극 참가하여 마을굿을 마을의 잔치로 만든다. 이러한 서울의 마을굿은 대개 부군당굿 계열, 도당굿 계열, 산신제 계열 등으로 나뉘는데, 제일은 대개 정초와 시월로 양분된다. 부군당굿이 주로 정초를 중심으로 연행된다면, 도당굿은 시월에 제일을 잡아 연행한다³⁹⁾. 이러한 연유로 단오에 마을굿이 행해지는 지역은 거의 없다. 과거 여러 기록을 보아도 단오에 서울 지역에서 마을굿을 행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개인굿은 양상이 다르다. 정월에 다수의 개인굿이 연행되기는 하지만, 단오 무렵에도 재수굿이 연행되고, 특히 무당 자신의 신명을 빌어주는 진적굿이 다수 행해진다⁴⁰⁾. 대개 서울지역의 굿판에는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하면 굿이 줄어든다.’라는 속설이 있어, 단오 무렵에는 개인굿이 연행은 되어도 정월이나 시월만큼은 다양하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단오 무렵에 개인의 재수를 비는 굿을 올리고는 있다.

그런데 마포나루가 있던 마포 지역에는 과거 단오 무렵에 나루굿을 연행했다는 단편적인 증언이 있어 주목된다. 마포나루라면,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장편 무가인 <황제풀이>에도 그 분위기가 나올 정도로 상업이 흥했던 지역이다⁴¹⁾. 서해 연안에서 소금을 싣고 온 배가, 정박하여 소금을 내리는 지역이 마포 일대였고, 그 흔적은 지금도 마포 건너편인 강서구 염창동에 염창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있다.

마포의 무속인들은 50년대까지만 해도 마포 나루에서 벌이던 단오굿을 기억한다. 그들은 마포의 여러 선주들과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마포의 무당을 불러 한 판 크게 굿을 벌였던 일을 소상하게 증언한다. 그러나 물산의 운송이 배에서 육지교통으로 바뀌면서 마포 나루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지게 되고,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마침내 마포의 나루는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전통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 마포 지역은 과거부터 서울의 서쪽 무속을 지탱하던 중심지였다⁴²⁾. 지금은 마포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재개발되어 여러 무당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마포 용산 일대에는 다수의 무당들이 모여 살았다. 대부분이 3대 이상 대를 이어 무업에 종사해온 그들은 현재 남아있는 용산 마포 지역의 10여개 마을굿을 담당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아파트로 마포 일대의 주거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다수의 무당이 마포에 거주하고 있으며, 마포부군당굿,

38) 서울의 마을굿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한강변의 마을굿』, 서울역사박물관, 2007이 가장 자세하다.

39) 홍태한, 「서울지역 부군당굿과 도당굿의 변별성」, 『남도민속연구14』, 남도민속학회, 2007 참조.

40) 진적굿은 무당의 재수를 위해 하는 굿으로 재가집의 굿이 거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행한다. 따라서 진적 굿은 대개 5,6월에 가장 많이 연행된다.

41) 홍태한, 「황제풀이 무가 연구」, 『한국의 무가3』, 민속원, 2006.

42) 서울 무속은 동쪽과 서쪽이 확연히 달랐다 한다. 현재는 획일화되었지만, 동서쪽의 편차는 무가, 연행방식 등에 다양하게 보인다. 홍태한, 「서울 무속의 제에 대하여」,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참조.

마포불당굿, 마포 당인리부군당굿, 마포구 합정동부군당굿 등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포나루에 내려오던 마포나루굿을 다시금 재현했을 때 마포의 여러 무속인들이 적극 참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현재 해마다 단오에 한강변에서 연행되는 마포나루굿은 마포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단오를 대표하는 마을굿이 되었다. 비록 마포나루라는 과거의 전승환경은 사라졌고, 나루굿의 주축인 주민들의 구성 성분도 변화했지만, 마포의 다수 주민들이 마포에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마포의 무당들과 함께 나루굿을 연행하고 있다.

마포나루굿은 강굿과 육지굿으로 이루어져있는 특징적인 곳이다. 한강 중심에 나가서 용왕을 모셔와 굿청에 좌정하게 한 후 12거리 굿을 진행하고 다시 용왕을 강으로 돌려보내는 점에서는, 대관령에서 신을 모시고 온 후 잘 대접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강릉단오굿의 흐름과 흡사하다. 무속인들은 단오 무렵이 용왕을 모시기 가장 좋다고 한다. 기운이 가장 성한 때에 용왕을 모셔 사람들의 복을 빌게 되면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단오에 행하는 마포나루굿은 단오의 기운을 받는 의미를 담고 있어 단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서울 지역에 남아있는 단오굿으로 마포나루굿의 전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쓴이는 마포나루굿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몇 년전부터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고, 마포나루굿을 담당하는 무속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마포나루굿의 실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비록 재현된 곳이지만, 과거부터 마포에 내려오던 단오굿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 현재 전승되고 있는 서울의 여타 마을굿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포나루굿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마포나루굿의 현재적 상황과 담당자

가. 마포나루굿의 현재적 상황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마포나루에는 상당히 많은 굿이 있었다고 고로(古老)들은 증언한다. 6.25가 끝나면서, 그리고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굿을 하는 이가 줄어들게 되고 종내는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던 마포 무속인 김동순이 마포구청의 도움을 받아 재현한 것이 마포나루굿이다.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포구에서 기획한 이 행사는, 구청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많은 무속인들이 자비를 부담하면서 참가했다 한다. 과거에 보았던 마포나루굿 재현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1990년에 시작이 된 마포나루굿은 2008년 현재 18회째를 맞이한다. 일회성 행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마포에 거주하면서 의욕을 가진 무속인들이 중심이 되다보니 지금까지 전승이 되어 온 것이다. 처음 마포나루굿이 재현될 때는 서울의 여러 지역 무속인이 참가하는데 특히 마포에 거주하던 무속인들이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즐겁게 참여했다. 또한 황포돛배가 한강에 진수되면서 마포나루굿은 그 진면목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황포돛배가 비록 지금은 강가에 그냥 묶여있다가 사라졌지만, 처음에 진수되었을 때는 그 상징성이 대단했다. 마포 나루가 재현되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다. 말끔하게 단장한 한강에 황포돛배가 뜰로 인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이 황포돛배가 마포나루굿에 들어오면서 굿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주민들은 마포나루굿을 현재적 의미를 가진 축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마포라면 지금의 여의도 복단을 가리킨다.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마포구 도화동 마포동 일대가 전통적인 마포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마포나루곳이 전승되는 장소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포나루에서 용왕을 모시던 곳은 마포대교 복단의 한강변이다. 용머리라 불리는 곳으로 이곳은 한강이 굽이쳐 흘러가는 곳이다. 이 곳을 중심으로 강둑이 있었고 강둑에는 여러 상인들이 전을 벌여 상업에 종사했다 한다. 지금도 몇몇 무속인들은 이 지역을 찾아와 술과 음식을 바치면서 용왕에게 인사를 드린다. 특히 이곳에서 보면 마포불당이 바로 한 눈에 들어온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굿판을 펼치고 마포나루굿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마포에 거주하는 무속인들은 지금의 마포대교 복단이 마포나루굿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이곳은 멀리 밤섬이 바라보이고 강 건너편으로는 노들⁴³⁾이 보여 배의 왕래가 잦은 수운의 중심지였고 물산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마포의 여러 상인들을 모아놓고 굿을 하기에 가장 좋았다 한다.

그러나 1988년에 이루어진 한강개발로 인해 더 이상 이 지역은 굿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강변을 따라 고수부지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마포대교 부근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 마포나루굿의 연행이 가능한 넓은 공원부지를 개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넓은 공원을 가지게 되었지만 마포대교 부근만큼은 적절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2차선 포장도로가 깔려 있는 있으나 도로를 둘러싼 공간이 부족해 마포나루굿을 연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마포구청에서 마포나루굿을 재현하면서 굿의 연행장으로 잡은 곳이 지금의 성산대교 근방이다. 전통적인 지역적 개념인 마포에서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부근도 마포구에 속하며 마포구청과 매우 근접한 곳에 있어 굿이 열리는 장소로 잡은 것이다. 상당히 넓은 공터가 있고, 특히 성산대교 바로 아래에는 굿을 하기에 적절할만큼의 공간이 있어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쁠 경우에도 무리없이 굿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다. 현재 개발된 고수부지는 강북으로는 강변북로를 강남으로는 88대로를 끼고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군데 군데 지하통로를 뚫어 놓아 그곳을 이용해 한강변에 나간다. 이런 점에서 성산대교 부근은 접근성이 매우 좋다. 월드컵 구장앞으로 흘러오는 홍제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모여들기 좋다. 난지지구와 양화지구가 인접해 있어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위치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산대교 지역은 전통적인 마포의 개념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마포, 현대적인 마포의 개념에 매우 어울리는 곳이다. 마포라면 이제는 전통적으로 지금의 마포 부근을 의미하기 보다는 마포구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현대적인 축제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마포나루곳이 과거에는 어떤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 중심으로 전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산대교 지역은 마포구청과 거리가 가깝고 마포의 상징이라 할 월드컵 구장이 가까이 있어 마포의 문화적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산대교 지역을 마포나루곳의 전승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지역은 배가 접근하기에도 매우 용이하게 여러 편의 시설이 되어 있다. 마포나루곳에서는 배를 타고 강심에 나가 굿을 연행하는 거리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도 이 지역은 적합하다. 멀리 밤섬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행주산성과 행호라 불리는 잔잔

43) 지금의 노량진 부근으로 노들제라 불리는 서울의 무속 유파가 존재했던 곳이다.

한 한강 하류가 보이고 있어 용왕을 맞아들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용왕이라면 바다에 있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한다. 성산대교 근처까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바닷물이 밀려온다. 따라서 용왕의 존재를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더욱이 성산대교 건너편에는 염창동이 있다. 염창동은 소금 창고가 있던 곳으로 마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현재 염창도당국이 전승되고 있다. 염창도당국이 전승되는 염창동은 강서구에 속하지만 수운과 상업적인 연계를 고려할 때 마포구와 긴밀하다. 성산대교 근처에서 마포나루곳을 함으로써 한강을 둘러싼 전통적인 마을곳이 하나로 연계되는 것이다.

나. 마포나루곳의 담당자

현재 마포나루곳의 당주무당 역할을 하는 이는 호기희이다. 호기희는 마포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정통 무속인으로 마포나루곳이 재현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호기희는 마포 무속의 계보에서도 독자성을 가진다. 한국 무속의 특징상 어느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무업을 전승하는 경우는 없다. 신부모와 신자식이라는 사승관계가 명확한 가운데 무업이 전승된다. 마포에 거주했던 여러 무속인을 살펴 호기희의 정통성을 확인해 본다. 이러한 계보를 통해 마포나루곳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되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마포지역에서 이름을 떨친 무속인들의 계보를 본다. 마포는 마포동과 공덕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한다. 마포동에는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공덕동 원효로 쪽에는 무속인들이 대거 거주했다 한다. 마포동에 거주하는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무속인들은 곳을 하러 자주 다녔다 한다. 꼭 나루곳이 아니더라도 재수곳이나 진오기곳 등을 자주 했다고 한다. 마포동에 거주했던 무속인 중 마포나루곳과 관련이 있는 여러 무속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은은어멈 문덕순

마포에 거주한 무속인 중 가장 먼저 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무당이다. 밤쥐, 새우젓집을 비롯한 여러 신탈을 두어 마포를 중심으로 활동한 무속인들의 조종(祖宗)이라 할만하다. 일찍이 김태곤 선생은 문덕순의 무가와 무속 사례를 서울의 대표적인 무속 사례로 여기고 치밀하게 조사하여 소중한 자료적인 집적을 낳았다⁴⁴⁾. 김태곤 선생의 한국무속도록에 사진이 몇 장 실려 있어 생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문덕순의 자료는 60년대 서울 마포 무속의 실상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마포의 이름난 대부분의 무당이 문덕순과 줄이 닿아 있다.

(2) 밤쥐 최인순

마포에서 대를 이어 무업에 종사한 정통무당이다. 남이장군당⁴⁵⁾을 주재하기도 했고 현재 마포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여러 무속인들 대부분이 마포의 대표적인 무속인으로 밤쥐를 기억하고 있다. 최인순의 조카가 최형근 약사로 그는 마포나루곳의 당주약사이면서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33호 성동구아기씨당 당주약사이기도 하다. 밤쥐의 신어머니가 은은

44) 김태곤 선생의 『한국무가집1』에 은은어멈의 무가가 수록되어 있고, 은은어멈을 중심으로 한 마포무속의 실상은 『한국무속연구』에 수록되어 있다.

45) 현재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0호이다. 용문동부군당국이 정식 명칭이지만, 주신으로 남이 장군을 모시고 있어 이렇게 부른다.

어멈 문덕순이다. 문덕순은 1960,70년대에 김태곤 선생이 조사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무속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밤쥐와 동년배로 마포지역에서 활동한 무녀로는 부군집, 새우젓집, 구개남 등이 있다. 구개남은 돼지엄마 최종용의 신어머니로 구개남이 구송한 무가는 흥태한의 서사무가당금애기 연구 부록편에 수록되어 있다⁴⁶⁾.

(3) 오장엄마, 말집아줌마

이름보다 별호가 더 알려진 무속인들이다. 이들은 마포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 실제로 나루굿을 했던 사람들이다. 마포나루굿이 재현될 때도 말집아줌마는 참가하여 과거 마포나루굿을 살리는 데 기억을 보태주었다. 오장엄마의 신딸이 이병옥인데 이병옥은 현재 마포나루굿의 당주무당인 호기희의 생모이다.

(4) 유순엄마

이발소집 할머니로도 알려져 있다. 남이할머니라는 무속인과 함께 주로 활동했다. 유순엄마의 신딸이 고목나무이고 고목나무의 신딸이 현재 마포나루굿의 당주무당인 호기희이다.

(5) 청치마

마포에서 활동한 무당으로 현재도 마포나루굿에 참가하는 수년이네 안방자의 신어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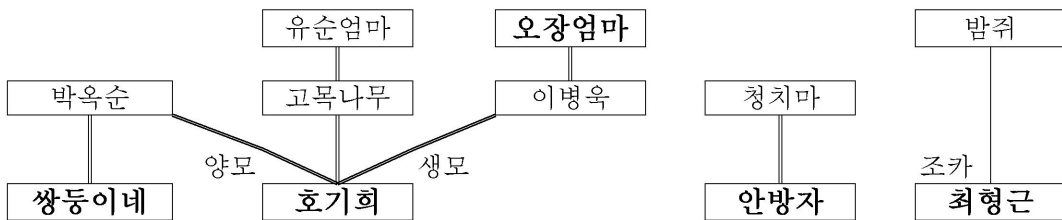
(6) 박옥순

당주무당 호기희의 양모이다. 별호를 백두산이라 한다. 현재 마포나루굿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쌍둥이네 최화자의 신어머니이다.

(7) 꽃방집을 비롯한 서대문 거주 무속인

서대문 냉동에 거주하는 여러 무속인도 마포 무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설자네 할아버지와 금준이네 아저씨는 모두 악사로 마포 무속인과 함께 어울려 굿을 연행했다. 설자네 할아버지는 마포에 거주하던 억만이처와 함께 주로 활동하였다.

이상 여러 무당들의 계보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이름 중 진하게 표시한 것은 마포나루굿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연조로 볼 때 밤쥐, 유순엄마, 새우젓집, 오장엄마, 혼빼미아줌마, 말집아줌마 등이 비슷하다. 이러한 계보로 볼 때 현재 마포나루굿의 당주 무당으로는 호기희가 적합하다. 마포나루굿의 초창기 구성원인 오장엄마의 신계보를 이은 이병옥이 생모이고, 마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박옥순이 양모이기 때문이다. 박옥순은 쌍둥이네를 신딸로 두었는데 쌍둥이네와 호기희가 함께 마포나루굿을 맡아 진행하는 것은 마포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마포나루굿의 당주악사인 최형근 또한 이 계보에 일정부분 포함된다. 최형근은 악사로 서울굿판을 주름잡고 있지만,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무속인들과 혈연적, 계통적

46) 흥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연구』, 민속원, 2001.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포나루곳의 재현된 곳이지만, 담당자를 통해 그 전통성이 확인된다.

3. 마포나루곳의 절차와 특징

마포나루곳은 서울곳의 일반적 흐름을 따르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마포나루곳의 절차를 제시한다. 먼저 곳을 준비하기 전의 준비과정부터 제시한다.

연행은 실제 무당이 곳판에서 곳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곳은 음악과 춤, 그리고 말이 합쳐진 종합예술이다. 곳에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는 각 거리별로 어떻게 연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가. 준비과정

단오 무렵이 되면 당주무당은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한다. 무당은 함께 일할 무당과 악사를 맞춘다. 전통적인 서울곳에서는 악사가 반드시 일을 함께 했다. 악사는 곳판의 경비 문제를 총괄했고 예능적인 면 뿐 아니라 곳의 제반 사항에 관여했다. 하지만 지금은 악사 없이 곳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갈수록 악사의 위상이 약화되었고, 심지어는 악사는 무당에 불려가서 일을 하고 일당만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느낌까지 준다.

전화를 통해 곳날이 통보되면 악사는 기록을 하고 해당된 날짜에 시간에 맞추어 곳판에 간다. 대개 피리를 부는 악사 한 사람이 곳판에 참가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쟁이, 삼쟁이가 참가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미리 연락받은 악사가 다른 악사를 불려서 함께 가는데 미리 연락받은 악사는 곳을 뎨 무당과 오랫동안 일을 해 호흡이 잘맞는다. 이렇게 곳을 뎨 무당에게 전속된 악사를 당주악사라 하여 불려간 악사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 당주악사는 무당과 워낙 막역하여 모든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곳이 끝난 후 비용을 분배할 때 참가하여 자신의 몫과 다른 악사의 몫을 받기도 한다.

무당과 한 번 인연을 맺은 악사는 그 자리를 단골로 여기고 다른 일과 겹칠 때에도 다른 자리는 포기하고 반드시 참가한다. 악사들 사이에는 이러한 단골 자리를 절대로 넘보지 않는 원칙이 있다. 무당은 대개 내림곳을 할 때 참가한 악사를 자신의 신부모와 동일시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부른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한 무당이 다른 악사를 부르게 되면 조금 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악사가 다른 악사가 이미 자리잡은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곳을 맡은 무당은 혼자 힘으로 모든 곳거리를 맡아 진행할 수 없다. 이리하여 다른 무당에게 함께 일을 하자며 부르는데, 그 무당이 단골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리하여 서울곳에는 전적으로 자신의 단골이 없이 남의 곳에만 전문적으로 참가하는 무당이 있는데 이를 청송무당이라 한다. 이들은 서울곳의 모든 곳거리에 능하여 기술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청송무당은 서울곳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그는 강신무로 분명 단골이 존재했을 것이나 시간이 갈수록 곳에만 전념하고 단골이 떨어져나가게 된 경우이다. 청송무당은 곳에 불려가게 되면 철저히 당주무당이 시키는대로 한다. 당주무당은 그날 곳을 맡은, 곳을 뎨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송무당은 자신의 기예가 아무리 뛰어나도 당주무당이 시키는 대로 한다. 만약 굿을 하는 과정에 자신의 의사와 상반되게 굿이 진행되어도 절대 내색하지 않는다. 공수를 주어도 철저히 당주무당을 위한 공수를 준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잘 위했으니 앞으로 당주무당을 잘 위하고 또 조상을 위하여 굿을 하라는 식이다. 대개 서울굿에서 당주무당이 불사거리를 놓고, 청송무당이 상산부터 별상, 신장, 대감을 논다. 청송무당은 그날 진행되는 굿의 총비용을 알 수 없고 굿이 끝난 후 당주무당이 주는 일당을 받는 식으로 참가한다.

현재 서울굿판에는 모든 굿거리에 능한 무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리하여 청송무당이 매우 각광을 받는데 단골이 있는 무당보다 오히려 청송무당이 더 많은 굿을 하여 상당한 경제적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이 청송무당의 존재로 인해 서울에 존재하는 동서남북의 굿이 획일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송무당의 존재로 인해 서울굿의 예능적 측면이 일정한 수준을 가질 수 있었다. 청송무당은 굿판에 미리 와서 상차림을 돕거나 재가집과의 면담을 통해 당주무당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철저히 청송무당은 당주무당의 보조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인적 구성이 마쳐지게 되면 무당은 장보기를 한다. 무당은 준비해야 할 재물이 많다. 과일전에 들러 과일을 준비하고 정육점에 들러 재물로 쓸 돼지와 소갈비를 맞춘다. 지금은 무당마다 단골 가게가 있어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주문하고 그러면 과일전과 정육점에서는 직접 모든 재물을 준비하여 굿청으로 배달해주기도 한다.

굿이 시작되기 전에 무당들은 상을 차린다. 상을 차리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준비해온 음식을 정성껏 올리고 굿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무복을 옆에 건다. 악기와 무구를 진열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악사들은 도착하여 악기를 조율한다. 부정청배와 가망 청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굿판에 악사들이 참가하겠지만 마포나루굿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악사들도 일찍부터 와서 대기한다. 모든 굿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도 주당을 물린다. 여러 사람들이 몰려 오기 전에 주당을 물려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 주당물림

주당살을 물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무당은 장고를 앞에 놓고 앉고 또 다른 무당은 제금을 손에 들고 옆에 앉는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굿당이 라면 모든 사람은 당밖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마포나루굿이 거행되는 곳은 야외 공간이므로 일정한 거리만큼 물리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구나 무복을 하나씩 잡는다. 아니면 장고에 손을 얹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 주당살이 사람에게 실리지 않는다 한다. 무당은 명명 빈 장단을 올리고 다른 무당은 제금을 힘껏 올려 굿청을 정화한다.

다. 부정청배

무당은 장구를 앞에 놓고 앉아 긴 청배를 시작한다. 청배 장단⁴⁷⁾에 맞추어 여러 신격들을 나열하고 그 신들이 굿판에 오기를 바란다. 부정청배가 진행되는 동안 악사들은 옆에서 조

47) 서울굿에서 앉아서 굿을 연행할 때 치는 장단이다. 이밖에 서울굿의 장단으로는 휘몰이, 상산, 굿거리, 별상, 당악, 노랫가락, 타령, 만수바지 등이 있다.

용히 대기하며 굿판의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주 준비를 시작한다.

부정청배에서 무당은 여러 신격들을 나열하다가 중간에 장고를 크게 울려 염을 짓는다. 일종의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되기도 하고, 굿판에 모셔지는 신격들의 종류가 달라질 때 이렇게 한다. 대략 40여분 정도로 여러 신격들을 모신다.

모든 신격이 모셔지게 되면 무당은 휘몰이 장단으로 무가를 구송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 잣물과 고춧가루물은 들은 무당이 빠르게 굿판을 씻어낸다. 물론 굿판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소지에 불을 붙여 역시 굿청을 둘러내어 굿판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제시한다.

부정청배는 신들을 부르기 위해 굿판을 정화하는 거리이다.

라. 가망청배

무당은 청배 장단에 맞추어 여러 신격을 다시 청배한다. 가망은 근원신이고 조상신이므로 마땅히 불러 모셔야 하다. 가망이 들어옴으로 인해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가 하나로 합일되면서 굿문이 열리고 만날 수 있다. 가망청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다른 무당은 용왕을 모시러 출발한다.

가망청배는 장구 장단에 사설을 이어부르면서 진행되는데 모든 가망이 다 청배되었으면 본향노랫가락을 부른다. 본향은 근원이고 고향이니 가망과 의미가 같다. 노랫가락은 신을 불러 모시면서 받드는 것이므로 이제 굿문이 열렸으니 어서 들어오시라는 뜻이다.

노랫가락이 끝나면 굿판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이 신령상앞에 나가 인사를 한다. 비로소 굿문이 열려 신들이 인간세계에 강림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서울 개인 굿에서는 진적이라 한다. 마포나루굿에서는 이 부분에서 식전행사를 한다. 굿판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마포나루굿이 열리게 된 과정, 마포구가 나가야 할 방향 등이 공지된다. 이는 새로운 모습이지만 과거의 전통을 온전하게 계승했다 할 수 있다.

인사가 끝나게 되면 상산노랫가락을 부른다. 상산은 장군신이니 인물신의 으뜸이다. 이러한 장군신을 불러 모시는 것은 과거 무속의 흔적이다. 과거 무속에서는 장군을 불러 모시는 거리를 대거리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마. 용왕모시기

이제 마포나루굿의 주신이라 할 용왕을 모시러 간다. 무당은 황철익을 걸치고 면류관을 머리에 써서 위엄을 나타내었다. 신장기를 들고 배에 오른 무녀는 악사의 반주에 맞추어 강심으로 향한다. 과거에는 강심에 배를 정박시켜두고 용궁과 관련이 있는 여러 신령님들을 불러 모시고 그 자리에서 굿을 연행했으나 지금은 현대적으로 변모시켜 용왕님을 모시고 바로 육지로 나온다. 육지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용왕과 관련이 있는 여러 신격을 불러 모셔 공수를 듣는다. 용왕, 용궁부인, 용장군, 용궁신장, 용궁대감, 용궁창부 등을 모신다.

용왕모시기는 서울 마을굿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거리이다. 용왕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굿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마포나루굿의 독창적인 전통은 아니다. 성동구 아기씨당에서 거행되는 아기씨당굿의 경우에도 아기씨님 행차거리가 따로 있다. 마을굿에서 모셔지는 대표적인 신격을 모셔내는 것은 서울굿의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독

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마포나루곳의 용왕모시기는 새로우면서도 다른 마을곳과 변별되는 점이다.

바. 불사거리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친 무당은 고깔을 쓰고 불사거리를 진행한다. 만수바지로 불사신을 청배한 후 공수를 준다. 공수에는 공식적인 공수와 개별 공수가 있다. 공식적인 공수는 자신이 어떤 신격인지를 밝히고 대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다음으로 칠성신을 모셔 공수를 듣고 바라를 받아 울리며 춤을 추다가 천왕중상공수를 준다. 이 부분에서는 중상타령이 이어지고 바라를 사라고 다니면서 시주를 받는다. 다음으로 산을 주는데 장고는 짚은 장단을 치고 무당은 밤이나 대추가 담긴 접시를 들고 와 장구 위로 돌리면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부른다. 산을 줄 때 불사노랫가락을 부른다. 산을 주는 것은 일종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무당이 나누어 준 밤 대추의 숫자가 짝수면 좋다고 여기고 홀수면 다시 준다. 당의를 입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장구 치는 사람과 호구만수바지를 하고 호구 공수와 부인공수를 준다. 호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화장품 값을 받은 후 너울을 벗어야 좋다고 하며 벗어준다. 공수를 추고 치마를 벗은 후 천궁신장과 천궁대감이 이어진다.

이 불사거리는 12거리가 다 있다 할 정도로 다양한 신격들이 들어온다. 대개 무당들이 전 안에 모시는 신령님들을 다 쳐드는 거리가 불사거리이다. 요즘 서울곳에서 볼 수 있는 선녀와 동자를 놀리는 것도 불사거리에서 이루어짐으로 불사거리는 모든 신령들을 받들어 모시는 거리라 할 수 있다.

사. 도당거리

산중이를 들고 사방을 다니면서 무당은 도당과 산신을 청배한다. 이를 산바라기 또는 도당바라기라 한다. 홍철의를 입고 머리에는 홍갓을 썼다. 팔도명산의 신령님들이 모두 들어오기를 청한다. 본향공수, 산신공수, 도당공수가 곧장 이어진다. 그리고 사실을 세운다. 신령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굿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도당거리는 산거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중이는 산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근원을 쳐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도당신장을 모셔 공수를 주고 흥이 난 신장은 신장타령을 부른다. 삼지창과 월도를 놓고 신장기를 들고 병거지를 쓰고 진행하는 도당신장은 신장기가 있어 사람들에게 기점을 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오방색의 기를 주고 하나씩 뽑게 하여 그 색을 보고 뽑은 사람의 길흉을 판단한다. 붉은색의 깃발이 가장 좋다. 신장의대를 벗고 쾌자만 입고 부채를 들고 춤을 춘 다음 대감공수를 주고 대감타령을 부른다. 쾌자를 벗고 청치마를 입은 후 부채와 방울을 들고 노란몽두리를 걸치고 대신공수를 준다. 대신타령을 불러 흥을 돋우고, 말명, 호구, 제장공수가 이어진다.

서울지역의 개인곳에서는 불사거리와 도당거리의 위치가 바뀌기도 한다. 서쪽은 산이 많아서 도당거리를 먼저 한다 하고 동쪽은 물이 가까워 불사거리를 먼저 한다고 하면서 동쪽곳과 서쪽곳이 매우 다름을 강조한다. 하지만 흐름으로 볼 때는 불사거리를 먼저 하고 도당거리를 하는 것이 어울린다. 하늘신을 맞은 후 지역신을 맞는 것이 도리에 맞기 때문이다.

아. 가망거리

개인곳에서 조상거리를 하기 전에 하는 거리이다. 마포나루곳은 개인곳이 아니므로 조상거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가망과 대신을 모시는 정도이다. 가망종이를 들고 가망신을 청배한 후 가망공수를 준다. 그리고 그동안 마포나루곳에 관계하던 여러 무당들의 혼령을 불러 모시는 대신거리를 진행한다.

자. 장군거리

마포나루곳에서 가장 엄숙한 거리이다. 상산장단(반염불)과 굿거리, 별상장단(허튼타령), 당악 장단에 맞추어 청철력을 걸친 무당은 사방으로 다니며 엄숙하게 춤을 춘다. 거성춤이다. 장군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리이다. 그리고 월도를 들어 상위의 제물에 올려놓고 제물을 흠향한다. 그리고 최영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군신을 불러 모신 후 공수를 준다.

차. 별상거리

미리 장군거리를 하기 전에 장군의대 속에 별상의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청철력을 벗으면 서 바로 별상거리가 진행된다. 욕심 많고 탐심 많은 별상님을 잘 불러 모셔야 오늘 올리는 마포나루곳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을 세운다. 월도만으로 사실을 세운 다음 삼지창에 준비한 육고기를 켜어 세운다. 제대로 서게 되면 마포나루곳을 받는 신령님이 흡족하게 받아들였다고 여긴다.

카. 신장거리

사실을 세운 후 신장기를 들고 바로 신장거리를 진행한다. 앞서 나온 신장들이 천궁신장, 도당신장이라 불리며 하늘신 계통과 지역신 계통이라면 여기 나오는 신장은 인물신이다. 신장공수를 준 후 흥이 오르게 되면 신장타령을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방기를 뽑게 해서 뽑은 기의 색에 따라 맞는 공수를 준다.

타. 대감거리

여러 대감을 모시기 위해 만수바지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악 장단에 맞춰 댄 후 곧장 대감공수를 주기도 한다. 마포에 거주하던 양반대감과 글문대감 등을 불러 모신다. 흥이 오르게 되면 대감타령을 부르기도 한다. 텃대감을 불러 모시기도 하고 마포에 거주하는 도깨비 대감을 모셔 익살스럽게 놀기도 한다. 텃대감을 모실 때에는 지계위에 항아리를 짊어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지계에는 복어를 한 마리 꽂았다.

대감거리는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명을 돋우는 거리이다. 무당은 족발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을 퍼주는 시늉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옷섶을 열어 복을 받는 시늉을 한다. 신장거리를 거치면서 흥이 오르고 열린 마당이 된 대감거리는 한바탕 신명이 넘치는 거리이다.

마포에서 행하는 밤섬부군당곳의 경우에는 대감거리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참가하고 별비를 쓰고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춘다. 마포나루곳에서 앞으로 보완하고 가장 신명나게

분위기를 돌아야 할 거리가 대감거리이다. 기왕이면 여러 명의 무당이 함께 나와 타령을 부르고 주민들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흥을 돋운다면 마포나루곳이 가진 축제적인 성격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 제석거리

제석거리는 따로 노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사거리에 들어가 함께 노는 것이 요즘의 서울곳판의 모습이다. 하지만 제석이 가진 성격을 고려할 때 성주거리 직전에 노는 것이 의미가 있다. 사람들의 복을 관장하는 제석을 불러 모시는 것은 곳이 가진 덕을 베풀어 주는 기능과 맞물린다.

만수마지로 제석을 청배한 후 공수를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왕과 호구를 불러 모셔 공수를 듣는다.

하. 성주거리

마을곳이어서 성주거리가 없이 군웅거리를 하거나 황제풀이를 하여 대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을곳의 흐름이다. 하지만 마포나루곳에서는 군웅신을 따로 모시지 않고 황제풀이를 구송하지 않으므로 대동성주를 불러 모신다. 곳판에 참가한 사람들 하나 하나에게 그 집에 모셔진 성주의 말씀을 전달하며 한 해동안의 운수를 빌어준다.

왕신, 화덕장군, 굴대장군을 불러 모셔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거. 창부거리

창부의대를 입은 무당은 부채를 들고 창부만수마지를 한다. 그리고 공수를 준다. 이 창부신은 액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신격이다. 흥이 오르게 되면 창부타령을 부른다. 곳판에서 부르는 창부타령이 따로 독립된 것이 민요와 잡가의 창부타령이다.

창부거리는 곳판에 참가한 약사들을 위한 거리이기도 하다. 곳판에서 약사는 창부대신으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너. 뒷전

창부거리가 끝나게 되면 모든 곳거리가 다 끝난 셈이다. 무당들은 상을 털어서 곳판에 온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과일과 떡 등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준다. 서울곳의 위대한 정신인 노나뎃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곳판의 정리에 들어간다. 상을 털고 곳이 진행되면서 소용된 여러 물건을 정리한다. 무구를 비롯하여 무복을 정리하여 가방에 넣고 약사들도 돌아갈 준비를 한다.

한 쪽에서는 장구를 치는 무당과 북어를 손에 든 또 한 사람의 무당이 곳판에 오기는 왔으나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여러 잡신들을 불러 먹이는 거리를 진행한다. 이것이 뒷전이다. 뒷전도 열두거리가 있다 할 정도로 격식을 갖추어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진행하지 않고 수비와 영산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뒷전만수바지를 통해 여러 신들을 나열하고, 걸립, 터주대감, 지신, 장님, 맹인, 성황, 영산, 수비들을 불러 먹인다. 북어를 밖으로 던져 머리가 밖으로 향하면 굿판에 온 하위신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만족한다는 뜻으로 여긴다. 부정을 막기 위해 쓰고 남은 오색다리를 무당들이 서로 마주 잡고 찢는다. 뒷전은 대개 무당들만이 진행한다. 일반인들은 모두 돌아간 뒤다. 개인굿에서도 뒷전에 들어가기 전에 재가집에게 뒤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한다.

더. 마포나루굿 짜임의 특징

마포나루굿의 기본적인 제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당물림
- 2) 부정청배
- 3) 가망청배
- 4) 용왕모시기
- 5) 불사거리
- 6) 도당거리
- 7) 가망거리
- 8) 장군거리
- 9) 별상거리
- 10) 신장거리
- 11) 대감거리
- 12) 제석거리
- 13) 성주거리
- 14) 창부거리
- 15) 뒷전

이러한 흐름을 서울 지역의 일반적인 굿거리와 비교해보면 마포나루굿의 특징이 보인다. 먼저 서울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수굿과 비교해본다. 채수굿의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당물림
- 2) 부정청배
- 3) 가망청배
- 4) 불사거리
- 5) 산거리
- 6) 조상거리
- 7) 상산거리
- 8) 별상거리
- 9) 신장거리
- 10) 대감거리

- 11) 성주거리
- 12) 창부거리
- 13) 뒷전

이러한 재수곳과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재수곳에 있는 조상거리가 마포나루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포나루곳이 개인곳이 아닌 마을곳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인곳에서는 재가집의 조상을 불러서 위해야 하겠지만 마포나루곳에서는 마을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상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마포나루곳에는 용왕을 모시는 거리가 별도로 있다. 이것은 마포나루곳이 용왕에 대한 관념이 분명히 있는 강안곳(江岸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여러 곳 중 한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대표적인 곳이 마포나루곳이다. 그러므로 용왕을 특별한 주신으로 모시는 곳이 마포나루곳이고 그래서 용왕을 모시는 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들어가 있다.

다른 마을곳과 비교해보면 마포나루곳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성이 발견된다. 하나는 군웅을 모시는 거리가 따로 없는 것이다. 군웅이라면 마을을 수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군웅거리에서 무당은 사방으로 화살을 날려 마을에 들어오는 액을 물린다. 이태원부군당곳이나 봉화산도당곳에서 군웅거리의 성격이 확인된다. 그러나 마포나루곳에서는 군웅신을 모시는 거리가 따로 없다. 다만 군웅을 쳐들기 위해서 성주거리를 후반부에 진행한다. 이때의 군웅은 다른 마을곳의 군웅과는 달라 주신을 따르는 부속신으로서의 성격을 보인다.

군웅신을 모시는 거리가 없다는 것은 마포나루곳이 강곳이기 때문이다. 군웅을 모시는 마을곳은 도당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즉 육지곳이다. 마포나루곳처럼 용왕을 직접 불러 모시는 거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포나루곳은 군웅거리가 빠지고 용왕을 모시는 거리가 오히려 의미있게 들어간 것이다.

다음으로 성주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성주신이라면 가옥신이다. 대개 마을곳에서는 성주신을 따로 모시는 거리가 없다. 있다고 해도 대동성주를 모신다. 그런데 마포나루곳에는 성주거리가 있다. 강곳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특이한 부분이다.

마포나루곳은 강곳과 육지곳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용왕을 모시러 가서는 용궁과 관련된 모든 신격들을 다 쳐든다. 육지로 돌아와서는 불사거리부터 진행하는데 이때에는 육지와 관련이 있는 열두신격을 다 쳐든다. 이러한 것은 다른 마을곳과 변별되는 점이다.

처음에 주당을 물리고 부정청배와 가망청배를 하는 것은 서울곳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 다음에 강으로 용왕을 모시러 가는 부분이 마포나루곳의 변별성이다. 강곳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마포나루곳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초반부 - 서울곳의 일반적 흐름
- 중반부1 - 강곳
- 중반부2 - 육지곳
- 중반부3- 서울곳의 일반적 흐름
- 종반부 - 서울곳의 일반적 흐름

이렇게 본다면 마포나루곳은 서울곳의 일반적 흐름을 가지면서 강곳과 육지곳이 결합된 양상이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곳에서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중적인 구조

라 할 이러한 구조가 보이는 곳은 충남 부여지방에서 행하는 은산별신제가 있다. 은산별신제는 상당곳과 하당곳이 있고 장승을 따로 모신다. 상하당곳의 결합이 은산별신제의 모습이 라면 마포나루곳은 강곳과 육지곳의 결합이다. 같은 마포지역에 있는 불당곳과 비교해도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가 명확하게 보인다. 불당곳은 강에 나가 용왕을 맞는 부분이 없이, 서울곳의 일반적인 12거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확연하게 다르다.

마포나루곳은 이처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함으로 인해 한국곳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강을 끼고 있으면서 육지곳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 마포나루곳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마포나루곳의 각 거리는 청신(淸神)-오신(娛神)-공수-송신(送神)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신령을 청배하여 놀린 후 공수를 듣고 신을 돌려보내는 식으로 거리가 진행된다. 강신무가 주재하는 곳판이어서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당이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은 오신의 과정이다. 그리고 무당의 입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말들이 나온다. 올해 운수가 어떠할 것이고, 마포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식의 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수를 받으면서 한 해동안 가려야 할 것을 가리면서 대비해야 할 것은 대비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은 마포나루곳이 가진 종교적인 기능이다.

4. 마포나루곳의 축제적 의미

마포나루곳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행요소를 활용한다.

먼저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곳판의 여러 악기 중 가장 중요한 악기는 장구이다. 장구는 지휘자의 역할을 다하여 악사들을 리드한다. 장구를 치는 무당은 곳을 진행하는 무당의 사정에 가장 알맞은 속도와 음 높이를 잡아준다. 악사들 중에는 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곳거리를 진행하는 무당의 성량과 높이에 맞는 음을 바로 잡아 곳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타령을 할 때 흥을 더 실감나게 돋우는 역할도 악사가 한다.

다음으로 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포나루곳의 춤은 방정맞지 않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흥겹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조가 필요하다. 발뒤꿈치를 움썽거릴 정도로 뛰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하는 무속인도 있다. 쉬워 보이는 춤이지만 막상 해보게 되면 곳판의 신명을 북돋우면서 상황에 어울리게 춤을 추기가 쉽지 않다.

노래가 있어 곳판의 분위기를 돋운다. 신명이 난 신령은 타령을 불러 젖힌다. 신장타령, 대감타령, 대신타령, 창부타령 등을 불러 곳판에 신명이 넘치게 한다. 곳을 구경하는 관객들도 단순한 구경꾼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곳판의 연행에 참가하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다. 엄숙하게 노랫가락을 불러 신령님을 청배한다. 장구와 악기의 화합 속에 울려 퍼지는 노랫가락은 마포나루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려준다.

화려하고 다양한 무복의 활용, 부채와 방울을 중심으로 한 무구의 적절한 사용, 곳판을 풍성한 잔치 느낌 나게 만들어주는 각종 상차림 등은 이러한 마포나루곳을 대동 의식이 넘치게 한다.

축제에서는 하나의 핵심적인 상징이 있어야 한다. 서울 마을곳에서는 마을곳에서 모셔지는 신격이 핵심적인 상징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을 마을의 주신으로 가져옴으로써 인해 마을사람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다양한 여러 인물을 마을의 주신으로 숭배한다. 보광동의 김유신 장군,

용문동의 남이 장군, 무후묘의 제갈공명이 마을곳에서 대표적으로 모셔지는 신격이다. 또한 무당이 참가하는 마을곳은 아니지만, 공민왕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드는 지역도 있고, 관우를 모시는 관우신앙은 서울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그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기 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수용되어 구심점 역할을 한다. 마을곳에서 일정한 한계를 두게한다. 마을곳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 변화상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포나루곳에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용왕신이 하고 있다. 강에 나가 용왕을 모시고 와서 좌정하게 한 후 그 앞에서 모든 곳을 진행한다. 용왕이 직접 들어와 공수를 주기도 하고, 모든 곳거리에서도 용과 관련이 있는 여러 신격들이 연이어 들어온다.

이와 함께 당주무당이 전승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어 마을곳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다. 청송무당은 서울곳의 획일화를 가져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서울지역에는 동쪽제와 서쪽제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무속의 지역적 편차가 분명 있었다. 대부분의 무당이 자신의 신도를 데리고 있는 당주무당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기술자라 불리는 청송무당이 대거 등장하면서 지역적인 편차가 사라지게 되었다. 동쪽제와 서쪽제가 섞인 곳들이 등장한다. 이와 함께 개인 신당이 아닌 공공화된 장소인 곳당에서 곳이 연행되면서 곳의 획일화는 더 빨라진다. 과거에는 개인집에서 곳을 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무속인끼리만 정보소통이 원활하고 이로 인해 다른 무속인들의 곳은 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곳당에서는 모든 지역의 무속인들이 다 모여서 곳을 한다. 이러한 기회가 많아지다보니 지역적인 편차가 점차 없어진다.

하지만 마을곳에는 당주무당이 권위를 가지고 존재함으로 인해 곳 자체의 변개가 쉽지 않다. 기량이 뛰어난 청송무당이 존재하고 있어도 단골과의 관계가 있어 청송무당이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러다보니 마을곳의 원형은 지켜질 수 있다. 마포나루곳에서는 마포의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 당주무당이 마포 지역의 여러 무속인과 힘을 합하여 나루곳을 전승하고 있어 그 틀이 지켜질 수 있었다.

이러한 원형을 지키려고 하는 단한 마을곳은 마을곳의 틀은 지키게 했지만 시대의 변화상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을곳은 시대 변화를 매우 손쉽게 받아들이면서 현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한다. 이것은 마을곳이 가지고 있는 열린 측면이다. 다양한 현대사회의 변화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곳판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킬 수 있다.

마포나루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함으로써 축제성을 더 높인다. 먼저 마을 주민들이 곳판에 참가한다. 이들은 몇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1)소임을 맡은 주도적 주민 2)적극적 참가 주민 3)소극적 관객 주민으로 대별된다. 주도적 주민들은 당곳 보존회 임원으로서 마을곳이 진행되는 동안 무당으로부터 공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공동 관심사를 모아 무당에게 전달해 신령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마을곳의 제의성을 책임지는 주민이다. 적극적 참가 주민은 곳이 끝날 때 까지 곳판에 있으면서 무당의 공수에 반응을 보이고, 음식을 나누다가 흥이 나면 곳판에 끼어들어 춤을 추며 신명을 돋우는 주민들이다. 곳판의 모든 사정에 아주 밝아 곳절차, 곳의 진행방식, 음식의 배부 등 모든 면에 관여한다. 이들은 곳판의 놀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인물이다. 주도적 주민들과 서로 대응되어 마을곳의 양면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소극적 관객 주민은 곳판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진 채 끝까지 곳을 구경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곳의 세부적인 사정에는 관심이 없고, 곳판에서 나누어주는 음식은 받으면서 끼어들지 않는다. 곳판의 놀이와 제의를 구경하는 관객으로

서울 마을곳의 다층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여기에 최근 마포나루곳에는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기관장들은 과시성 있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기관장의 욕구에 마을곳은 적절한 행사로 보인다. 이들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마을곳의 축제성을 높인다. 용산구 용문동 부군당곳에서는 전야제로 꽃을 받아오는 행사를 하는데 부대 행사로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고, 신당 앞의 왕복 4차선 도로를 막고 2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는 큰 판을 벌이게 했다.

현재 마포나루곳은 마포구청과 마포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한 행사이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곳판에 참가하다가 다른 마을곳과 달리 의자에 앉아 무대위에서 공연되는 마을곳을 지켜본다. 그리고 구청에서 준비한 음식물을 나누어 받아 먹으며 관객으로서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걸립이나 추렴도 없을 뿐 아니라 나루곳이 열리는 곳이 한강변이어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일부러 곳을 보러 가야 한다. 다른 마을곳은 마을 중심부에서 곳을 연행하므로 오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지만 마포나루곳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이 대감이나 신장을 놀 때 객석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다투어 공수를 들고 별비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 행정기관에서 시작한 했으나 마을주민들이 곳판에 끼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축제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나타낸 셈이다.

하지만 이 마포나루곳이 마포 축제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마포나루곳은 마을곳이다. 마을곳이라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상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신앙을 고려할 때 마을신앙의 상징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당목이다. 나무는 하늘의 신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올 때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태백산 신단수 아래였다는 기록이 있어 나무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산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이미지는 한국인의 원초적인 이미지이다.

둘째는 입석이다. 많은 마을 신앙에서는 수구택이의 역할을 하면서 신성성을 나타내는 입석이 발달되어 있다. 충청남도 지방의 경우에는 탑신앙이라 하여 돌을 숭배하는 신앙이 발달되어 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돌은 신성성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셋째는 당집이다. 현재 서울에 전승되는 마을곳의 장소를 보게 되면 반드시 당집이 있다. 당집은 마을을 수호해주는 신격이 거주하는 장소이면서 정해진 시간에 마을곳을 올리는 장소이다. 평상시에도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엄숙한 공간이고 정해진 시간에만 문이 열리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당집 안에는 신격을 상징하는 무신도가 걸려있고 신을 상징하는 위패가 모셔져 있기도 하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포 밤섬부군당곳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⁴⁸⁾.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입석과 당목은 성산대교 지역이 한강변이어서 쉽게 설치할 수 없다. 당목이 일 이년 자란 나무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묵은 나무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당집이다. 현재

48) 주지하다시피 밤섬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은 대거 육지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마을의 수호신인 부군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당집을 모셔 자신들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한 차례 더 부군당이 옮겨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당집이 있음으로 인해 마을곳이 단절되지 않고 전승될 수 있었다. 현재도 아파트 촌에 둘러싸여 있지만 당집이 있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밤섬주민들이 모일 수 있다. 평상시에는 굳게 닫혀있지만 당집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다양하다. 마을 주민들은 당집을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체라 본다.

마포나루트를 연행하고 있는 장소에 서울지역의 다른 마을신당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당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 당집을 짓기 위해서는 당집이 들어설 장소를 주변 보다는 다소 높게 돈을 필요가 있다. 당집을 짓고 당집안에는 용왕신과 마포도당신을 함께 모시고 당집 앞에는 마포나루곳의 의미를 알려주는 현판을 설치한다. 한강변에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나오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마포나루곳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마포나루곳의 현재적 상황을 중심으로 구조를 살피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도 지적했다. 서울 단오를 대표하는 마포나루곳이 비록 재현된 곳이지만,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특징적인 곳거리 속에 살아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마포나루곳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 의미, 예를 들어 산업 경제 구조의 변화와의 관련성, 전체 서울 무속에서 마포나루곳이 차지하는 위상 등에 대해서는 보충되어야 한다.

앞으로 마포나루곳은 서울의 단오를 대표하는 곳이 될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단오 풍속을 재구하여 마포나루곳의 전통성을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참고문헌>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0

김태곤, 『한국무가집1』, 집문당, 1979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한강변의 마을곳』, 서울역사박물관, 2007

홍태한, 「서울 무속의 제에 대하여」, 『서울곳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홍태한, 「서울지역 부군당곳과 도당곳의 변별성」, 『남도민속연구14』, 남도민속학회, 2007

홍태한, 「황제풀이 무가 연구」, 『한국의 무가3』, 민속원, 2006.

홍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연구』, 민속원, 2001.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의 실상⁴⁹⁾

이한길(강릉대 국문과 강사)

1. 들어가는 말

원주는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예로부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문물이 오고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들고남에 따라 자연히 다양한 문물과 문화들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습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리적 바탕 위에 수많은 인물들이 명멸하였다. 대체로 원주사람의 품성은 활발하면서도 기상이 굳세어 절의로써 표상되곤 하였는데, 이것이 원천석을 비롯하여 수많은 절의지사, 애국지사를 배출한 원동력이 되었다.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였기에 생각하는 바도 남달라 확 트인 시각과 내일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

성현은 『허백당집』에서 “원주사람들은 나는 날부터 그 부모가 먼저 곡식을 주어 재물과 곡식의 근본을 삼게 하였고, 해마다 이자를 늘려 받도록 했으며 대단히 앓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만큼과 같이 중하게 보았다”⁵⁰⁾고 하였다. 『강원도지』에는 『여지승람』의 말을 인용하여 저축하기를 좋아하고 부유함과 화려함을 숭상하고 농업과 상업에 힘쓴다고 하였다.⁵¹⁾ 오늘날 최승순은 조선조 원주인의 특성으로 4가지를 들었는데, 조선조 강원도의 수부였던 만큼 많은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원천석, 원호와 같은 충의와 절의의 인물이 많고, 영남학파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여류문인들 또한 많았다고 평하였다.⁵²⁾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전란도 빈번하여 군사적으로 요충지로서 또한 각광을 받았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9주5소경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할 때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원주는 복원소경이 되었다.

원주와 제천을 잇는 경계에 있는 흥업면 회촌마을은 이와 같은 원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마을이었다. 그리하여 2006년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대상마을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강릉의 학산마을과 더불어 선정되었다. 회촌마을 근방의 사람들은 회촌마을의 단오제가 참으로 유명하였다고 말들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유명세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하여 회촌마을의 단오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마을 자체적으로 전통을 지니고 단단하게 전승되고 있었다.

금번에 회촌마을의 단오제의 몇몇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강릉단오제의 다양한 양상들과 비교하여 단오제의 특징을 짚어내는데 일조하였으면 한다.⁵³⁾

2. 마을의 소개

회촌마을은 현재 행정편제가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로 되어 있다. 20세기초 이 지역은 원

49) 이 글은 2006년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원주시 회촌마을 인문 사회 조사보고서』에 실렸던 필자의 글 중에서 발췌하여 금번 주제에 맞게 새로 각색한 것이다.

50) 이학주, 「원주의 무형문화 실태와 전승현황」, 『강원민속학』 제18집, 강원도민속학회, 2004, 129-130쪽에서 재인용.

51) 율곡학회, 『강원도지』, 강원도, 2005, 104쪽.

52) 최승순, 「원주지역인물의 특성」, 『강원문화론집』, 강원대출판부, 2002, 392-393쪽.

53) 필자는 회촌마을 서낭제를 2006년 11월 29일, 2006년 12월 6일, 2007년 2월 7일, 2007년 3월 27일 등 4회에 걸쳐 답사하였고, 강성태(姜聖泰)(1942년 생), 대동계장 고봉열(1946년 생), 현 노인회장 조익환(趙益煥)(1936년 생), 주상철(1939년 생) 등 4인을 채록하였다.

주군 금물산면 2리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무수막, 분지울, 세동, 매남동, 한촌, 미촌, 회촌을 병합하여 매남동의 ‘매’와 분지울의 ‘지’를 따 매지리로 이름하였다.⁵⁴⁾ 이때부터 ‘매지리’라는 행정구역이 만들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원주군이 커지자 원주시와 원성군으로 분리된 적이 있었고 그때에는 원성군에 속했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원주시와 원성군이 통합되면서 오늘날의 광역 원주시가 되었다. 매지리의 위치는 흥업면의 남쪽에 있고, 동쪽에 판부면, 서쪽에 대안리, 남쪽에 귀래면, 북쪽에 흥업리와 접해 있다.⁵⁵⁾

회촌마을은 백운산 자락에 감겨 있는 마을이다. 백운산(1087m)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기를 ‘고을에서 남쪽으로 30리에 있다(白雲山在南三十里)’⁵⁶⁾고 하였다. 1640년 관찰사 이명환은 백운산을 일터 치악산의 자락이 남쪽으로 흐르면서 서쪽으로 달려 마치 용이 날고 봉이 춤추듯 달린 것이 백운산⁵⁷⁾이라 하였다. 치악산 줄기가 가리파고개 서쪽으로 뻗어 솟은 산으로 백운산 줄기 또한 거대해서 남서쪽으로 오두재를 넘어 십자봉(984m), 남쪽으로는 뱃재를 지나 갈미봉(698m), 서쪽으로는 큰양아치를 지나 덕가산(700m)을 이룬다.⁵⁸⁾ 백운산과 십자봉을 잇는 주능선은 원주와 충청북도 제천시의 경계가 되고 있는데 그 경계에 위치한 마을이 매지리이다. 오늘날 매지리의 행정구역은 7리까지가 있으나 예전 토박이 마을은 3리까지이다. 4-7리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이다. 매지1리는 무수막과 분지울 근처, 매지2리는 매남동과 미천 근처, 매지3리는 회촌과 개건너 마을 근처다. 매지3리 회촌마을과 개건너마을은 제각기 서낭당을 갖고 있다.

회촌이란 마을 이름은 전나무가 많다는 데서 유래한다. 전나무가 많아서 전어치마을이라고도 불렀다. 그렇게 많던 전나무숲은 한국전쟁 와중에 대부분 소실되었다. 마을에는 현재 40여 호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토박이가 30여 호 정도 된다. 토박이 주민들은 논은 쌀, 밭은 보리와 밀, 후작으로 콩, 옥수수, 팥 등을 농사짓고 있다.⁵⁹⁾ 한때 화전이 성했을 당시에는 80여 호가 넘게 살기도 했었다. 당시 화전민들은 옥수수, 콩, 조, 팥 등을 많이 심었고, 대략 30여 호 정도가 화전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박정희 前대통령 때 화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화전정리사업은 1970년대 중반(1974-1976)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강원도내 원주시와 원성군은 당시 각각 43호, 598호가 정리⁶⁰⁾되었는데 회촌마을에서만 대략 30여 호가 정리된 것이었다. 화전민이 빠져나가자 마을의 인구가 ½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토지문화관도 들어오고 또 전원주택을 지어 살려고 들어오는 분들도 몇몇 있어 지금은 40여 호 정도가 살고 있다. 강씨, 김씨, 이씨, 조씨 등이 토박이 성씨다.⁶¹⁾ 이 마을에 처음 배판한 것은 김씨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백천 조씨가 들어왔다. 조익환은 8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조씨들도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3호뿐이다. 김씨,

54) 『원주의 지명유래』, 원주시, 1999, 574쪽.

55) 『원주의 지명유래』, 원주시, 1999, 574쪽.

56) 김성찬 역주, 『원주지(권)』, 원주시, 2005, 42쪽.

57) 『원주읍지』에 전한다. 김성찬 역주, 『원주지(감)』, 원주시, 2004, 171쪽. 『강원도지』에도 전제되었다.

김성찬 역주, 『원주지(리)』, 원주시, 2005, 135쪽.

58) 『원주의 지명유래』, 원주시, 1999, 25쪽.

59) 현재는 과수업이나 축산업을 하는 이들도 몇몇 있다.

60) 강원도, 『화전정리사(상)』, 1980, 10쪽.

61)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원주의 土姓으로 元씨, 李씨, 安씨, 申씨, 金씨, 石씨, 亡來姓으로 崔씨, 續姓으로 趙씨를 들고 있다. 또 관내 주천의 토성으로 趙씨, 尹씨, 盧씨, 망래성으로 王씨, 童씨, 속성으로 康씨 등을 들고 있다. 김성찬 역주, 『원주지(권)』, 원주시, 2003, 23-24쪽.

조씨들이 들어온 연대는 대략 300여 년 정도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역은 논밭 농사를 같이 짓는다. 50여 년 전에는 기우제도 지낸 적이 있었다. 6월쯤 되어 날이 가물면 마을 앞 개울가에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 지내는 것을 조익환은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기우제는 지내지 않는다.

현재 회촌마을은 강원도에서 유일(唯二)하게 강릉시의 학산마을과 더불어 역사문화마을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을 역사문화마을로 만드는데 공헌한 것은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여러 민속놀이를 개발하여 출연할 만큼 전통민속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민속 중 매지농악은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내에서도 너무 유명한 농악이 되었다. 농악을 한 연대는 상당히 오래되어 잘 고구할 수는 없지만,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는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때 사물(四物)(징, 북, 장구, 소고)이 다 타버려 농악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그때 퇴비증산운동에서 강원도대회에서 1등을 하여 농악기를 상품으로 수령하여 다시 금 농악을 재건할 수 있었다. 또 농악으로 걸립을 하여 현재의 마을회관도 지을 수 있었다. 그 후 여러 대회에 나가 수상하면서 매지농악의 전통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존 조사 자료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 서낭제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별도의 논문은 찾지 못하였고 이 마을의 서낭제에 대한 소개자료를 세 편 찾았다. 이에 그 자료를 아래에 기재하여 예전 이 마을의 서낭제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펴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료1〉은 월간 『태백』 1993년 6월호(통권72호)에 실린 장정룡의 글이고, 〈자료2〉는 1994년 발간된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실린 김의숙의 글이다. 실린 연도는 1994년이지만 조사연도는 1993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자료3〉은 2000년 발간한 『원주 시사』에 실린 글이다.

〈자료1〉 원주 백운산 단오서낭제

이 마을은 이른바 백운산 아래의 매화낙지혈로서 명당에 속하는데 경치가 수려하다. 매지3리인 회촌마을에는 전나무가 많아서 그와 같이 불렀다는데, 요즘에는 민속마을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해까지 10년째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원주군을 대표하여 지정다지기, 논매기와 호미씻이, 터다지기, 성추풀이, 대동제놀이, 백중놀이, 매지농악놀이 등을 가지고 계속 출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마을은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니 산천과 인심이 한데 어울려 미풍양속을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5월 5일 ... 제사준비는 우선 이 마을에 부정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즉 해산하는 일이 있게 되면 사람이나 우마나 일주일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흉한 일이 생긴다고 하며, 동네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가재도 못 잡게 한다. 성황당에는 이를 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두는데 남과 다투지 않는다. 제물은 물건 값을 깎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한다. 돈육을 제물로 쓸 때는 돼지털이 희거나 검거나 단색으로 된 것을 택하며 털색이 섞인 것은 쓰지 않는다. 음력 5월 4일 자시가 되면 목욕제계를 한 제관은 도포를 입고 마을 성황당에 주과포 제물을 진설한다. 제관의 주관 하에 동네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절은 네 번을 하고 축문을 읽은 다음 각 호구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장문의 축문을 읽은 다음의 술잔을 올리고 한지를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소지의식으로 끝을 맺는다. 이 마을에서 모시는 백운산 성황당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마을 입구에 있었는데 오래 전에 故조몽천 씨의 꿈에 현몽하기를 “여기는 비가 와서 사태가 날 터이니 나를 산등성이로 옮겨달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산사태가 나서 성황당이 묻힐 뻔했다고 한다. 지금 성황당 안에는 백운산성황지신 신위라고 쓴 목판 위패와 함께 새로 그려서 달아놓은 남녀 성황신의 화상이 걸

려 있다. 전에 있던 화상에는 “4283(1950).5.1 오원세 화(畵)”라고 쓰여 있다.⁶²⁾

〈자료2〉 흥업면 매지리 산신제

원주군의 민속신앙제로서 전통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흥업면 매지리 회촌(전어치)마을의 산신제이다. 백운산 자락에 서 있는 한 칸의 산신당에는 ‘白雲山城隍之神位’라고 쓴 위패 위에 부부신을 함께 그린 탕화를 모시고 있다. 남신은 위엄이 있어 보이는 젊은 신으로 호랑이를 손으로 잡고 있으니 위패에는 성황이라 하였지만 산신이다. 성황이라 한 것은 장소의 하향에 따라 천신→산신→서낭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계로 차용하여 쓰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신앙에서 특수한 것은 영서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부부신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동해안의 서낭제에서는 여서낭당에 할아버지서낭의 위패를 합위하여 서낭제를 거행한다. 강릉 안인진의 해랑당에는 여서낭의 위패 옆에 ‘金大夫之神位’라는 위패를 함께 모셔놓고 있으니, 이러한 남녀신의 합위 현상은 음양의 결합을 통해서 빛어지는 생산과 풍요를 유감받으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신제사는 매년마다 단오날에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하고 축문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신의 위엄을 기린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여기의 산제 때는 5-6명의 무당이 참여하여 당굿을 하였으며, 원주에서도 구경꾼과 장사꾼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제주는 3년상이 나가고, 부인이 임신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고, 바깥출입을 3일간 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제기도 옛 풍습대로 나무와 떡갈나무잎만을 사용한다.⁶³⁾

〈자료3〉 회촌 단오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백운산 산신령은 이 마을의 수호신이며 영험을 지닌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단오날에는 성황당에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은 모든 농사일을 쉬고 친립을 하는 날로 잡고 있다. 1910년대 회촌의 단오제가 절정기였을 때는 단오굿을 3일간 계속했고 교통이 불편했는데도 20km밖의 원주시내 사람들이 이 마을 단오굿을 구경왔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심한 단속과 70년대의 미신타파운동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단오굿은 쇠퇴하여 지금은 마을의 산신제로 축소됐다. 생기와 복덕이 좋은 사람을 제주로 정하여 산신을 모시는 행사로 끝나고 있다.

단오제는 단오날 백일 전에 시작된다. 단오날 백일 전에 마을대동계원 전부가 모여 단오제 비용을 정하고 주렴을 한다. 제의를 주관할 유사도 정하고 제주도 정한다. 제주로 결정된 사람은 최소한 일주일은 금욕을 해야 한다. 부부는 각방을 쓰고 매일 목욕재계를 하고 초상집이 생겨도 문상을 가지 않는다. 문병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욕을 해도 안 된다.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보면 부정이 탄다고 한다. 백운산 산신당에도 금줄을 메고 황토를 갈며 회나무를 쫓아 부정함을 막는다.

단오 전날인 음력 5월 4일, 해뜨기 전에 마을 입구에 있는 성황당에서 성황굿을 한다. 1910년대에 만해도 이름난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고 한다. 성황맞이 굿을 마친 마을사람들은 무당을 앞세우고 산신당을 올라가서 다시 강신(降神)굿을 벌인다. 단오날 자시에 제주와 유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산신당에서 백운산 신령께 제사를 지낸다. 고축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모두 올린다. 마을사람들은 단오날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리면 영험이 있다고 믿어 이날 치성을 많이 드린다.

회촌마을 성황당은 마을뒷산인 백운산 밑에 있는데 당 안에는 남녀 서낭이 함께 있는 그림이 걸려 있고 또 그 옆에는 서낭신이 타고 다니던 말 그림도 있다. 특히 남신(男神)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다. 위패에는 ‘백운산성황지신(白雲山城隍之神)’이라 쓰여 있다. 그림으로

62) 장정룡, 「원주 백운산 단오서낭제」, 월간 『태백』 93.6월호(통권72호), 134-137쪽.

63) 김의숙, 「원주군의 민속」,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군, 1994, 367쪽.

미루어 보아 남신은 산신이면서 서낭신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호랑이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산신을 의미하지만 그 옆에 탈이 있다는 것은 성황신으로 변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성황당의 신격은 산신과 성황신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성황신의 성격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⁶⁴⁾

이외에도 매지리를 언급한 글들이 몇 편 더 있으나 앞서 언급한 자료의 재인용이다. 1997년 발간한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1994년 김의숙의 연구성과가 그대로 전재되어 있어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창식이 『강원민속학』 제19집에 발표한 「원주 지역동제와 성신앙」에서도 회촌마을 서낭제와 관련한 부분은 김의숙의 연구성과를 인용하고 있다. 신경철은 「지명에 나타난 원주의 토속신앙」에서 산신제와 서낭제를 구분하면서 회촌마을의 제사를 산신제로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상기 김의숙의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있다.⁶⁵⁾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7년 편찬한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편)』은 근래에 조사된 가장 방대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촌마을의 서낭제는 빠져 있어 아쉽기만 하다. 아울러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의 마을신앙』에서도 찾을 수 없다.⁶⁶⁾

4. 신격의 정체

강릉단오제의 주신이 산신이나 성황신이나 하는 논의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주신이 한 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면 주신은 2위(位)가 될 수도 있고 3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논지가 회촌마을 단오제의 주신을 논의하는데도 유효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기존자료를 보면, 자료1의 서낭제(이때는 성황제의 개념인 듯), 자료2의 산신제, 자료3의 단오제 등 다양한 명칭이 언급되었다. 이는 회촌마을의 신격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즉 산신과 성황신의 혼용이 눈에 띈다. 이는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신격이 전승과정에서 산신에서 성황으로 변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촌마을의 신격이 산신과 더불어 성황신, 즉 2위가 동시에 배향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시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희구하는 제의는 천제로부터 비롯하였다. 이후에 산신제, 성황제 등의 개념이 순차적으로 수입되었고, 서낭의 개념 또한 확충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회촌마을의 제의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산신제로서의 회촌마을 단오제

상고시대부터 제천의례를 즐겨 행하였던 것은 우리 민족의 특징이었다. 이와 같은 천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실로서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마자 행정구역의 정비와 아울러 사전(祀典)을 서둘러 정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쉬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통

64) 원주시, 『원주시사(민속문화재편)』, 2000, 139-140쪽.

65) 신경철, 「지명에 나타난 원주의 토속신앙」, 『원주일』 제6호, 1996, 214-215쪽.

66) 2007년 발간한 이 책에는 전국의 마을신앙을 CD로 제작하여 첨부하여 놓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원주시와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제작과정 상 실수로 보인다.

일신라시대 사전(祀典)을 정비하면서 치제했던 대사·중사·소사 중에는 원주와 관련된 지명이나 치악산 등의 명칭을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는 없다.⁶⁷⁾ 그러나 5소경 중의 북원소경으로, 후에는 북원경으로 더욱 중요해진 원주가 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당시 기록의 누락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다.

조선조 시대 사전의 정비과정에서 치악산이 소사로서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조 시대는 고려조의 사전(祀典)을 이어받았다고 생각되기에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도 치악산은 치제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물며 원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통일신라시대보다 더 떨어진 고려시대에도 치악산이 치제 되었다면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 강했던 통일신라시대나 삼국시대에 당연히 치악산은 치제 되었음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없는 것은 고려시대에는 대사, 중사, 소사의 구분을 지역명칭이나 산천의 명칭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사』 예지 길례 조에 보면, 산천신(山川神)에 대한 제사는 잡사(雜祀) 항목에 해당한다. 잡사에는 노인성(老人星), 초제(醮祭), 악해독(岳海瀆), 산천(山川), 성황(城隍), 역대시조묘(歷代始祖廟), 벽병제(壁兵祭) 등을 들고 있다. 고려사에서 잡사라는 항목을 설정한 이유는 중국의 유교식 제례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중 산천제라는 항목에서 치악산의 제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시대에서 사전(祀典)의 정비 때 탈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방 향토자료에 의하면 치악산에서 제사가 있어왔음은 원주문화원에서 편찬한 『원운곡거의(元耘谷居義)』⁶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워낙 장문이므로 이의 내용을 요약 기술한 김성찬의 글로 대신하여 살펴본다.

고려말에 이르러 운곡 원천석은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치악산에 단을 쌓고 매년 봄과 가을에 단군과 기자를 위시하여 고려조의 역대왕, 덕 있는 선비와 살신성사(殺身成義)하고 부강진기(扶綱振紀)한 성인자(成仁者), 조선왕조에 신복 노릇을 거절하고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제사지내고 있음을 볼 때 치악산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지냈던 유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⁹⁾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사(大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낼 때도 있었고 지내지 않을 때도 있었다. 본래 대사에 해당하는 것은 천제인데, 천제는 중국의 황제만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예법이기 때문이었다.⁷⁰⁾ 그래서 태종 때에는 중사와 소사가 주로 행해졌는데, 강원도 치악산은 중사였다. 그러나 세종 조에 이르러 사직과 종묘의 제례는 대사(大祀)로써 치제하였고, 중사와 소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더 확충되었다.

치악산제사는 일명 치악산동악제라고도 불렸다. 원래 동악제라 하면 동악이라 이름 붙인 곳에 지내야 한다. 5악의 선정은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달리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5악

67) 『삼국사기』 잡기 祭祀조에 보면, 大祀로는 3산(내력, 골화, 혈례)를 들고 있는데, 이 3산은 대체로 경주 근처의 진산으로 추정된다. 中祀로서 5악(동쪽의 토함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부악), 4鎮, 4海, 4瀆 및 기타(6곳)을 들고 있고, 小祀로서 霜岳(고성군 금강산), 雪岳(간성군 설악산), 花岳(경기도 가평) 등 24곳을 들고 있다.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1(10판), 152쪽.

68) 전석만, 『원운곡거의』, 원주문화원, 1990, 12-45쪽.

69) 김성찬, 「치악산사(雉岳山祠)에 대한 고찰」, 『원주월』 제13호, 원주문화원 부설 원주월심기협의회, 2004, 149-150쪽.

70) 중국 고래의 예법인데, 이 시대에 들어와 중국 명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시대에 명 태조의 명에 의해 홍무(1368-1398)년 간에 새로 편찬된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조선에서는 많이 참조했다.

은 삼각산(중악), 구월산(서악), 지리산(남악), 금강산(동악), 백두산(북악)이었다.⁷¹⁾ 따라서 동악제라 하면 금강산제여야 하는데, 치악산제에도 동악제란 이름이 붙은 것은 혼용되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원주 관내 여러 산신제는 치악산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의 역시 이 치악산 산신제의 맥락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회촌마을의 주신은 백운산 산신령이라 한다. 마을을 뒤로 휘감으면서 제천시 백운면으로 넘어가는 백운산 산자락이 원주시 치악산의 능선과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 회촌마을이다. 그래서 이 곳 회촌마을의 서낭당이 있는 지역은 백운산 신령과 치악산 신령이 만나는 곳이라는 풍수도 전해진다. 회촌마을의 산신제는 과거 원주와 충주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인근 근방에서 가장 유명했으며 아울러 단오절에 행해졌으므로 단오축제로서도 자리잡았던 제의였다.

2) 성황신으로서의 회촌마을 단오제

원주에서 성황제를 지낸 기록은 성황사가 존재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성황사(城隍祠)가 원주에도 있었다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등에 ‘성황사재주남이리(城隍祠在州南二里)’라 하여 전한다.⁷²⁾ 또한 『관동지』에 보면, 정조 임자년(1792년) 장계를 들은 뒤 여단으로 옮겨 봉안하였다(城隍祠在州南二里矣 正廟壬子狀聞後移奉于厲壇)고 하였다.⁷³⁾



사진1) 위패와 서낭 탕화

회촌마을의 신격은 사진1)의 위패를 보면 ‘백운산회촌성황신위(白雲山檜村城隍神位)’라 적혀 있다. 표면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백운산 자락에 있는 회촌마을의 성황신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이 위패를 만들어 봉안할 당시 이 위패를 만든 이도 이런 뜻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위패는 12년 전에 새로 만들어 봉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12년 전의 위패에는 회촌이란 두 글자가 삭제된 백운산성황지신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었음은 현지 주민들의 증언 및 자료1)과 자료2)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회촌이란 이름을 더 집어넣은 뜻은 백운산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백운산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회촌마을의 성황만을 지칭하기 위한 뜻으로 이 두 글자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회촌이란 두 글자를 집어넣음으로써 회촌마을의 성황이란 뜻은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백운산성황이라 칭했을 시의 중의적인 뜻은 자연스레 소멸하게 되었다. 백운산성황이라 칭했을 당시에는 백운산의 성황이란 뜻도 되지만, 이보다는 백운산신과 성황신을 아울러 병칭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백운산이란 글자에서는 산신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성황이란 글자와 더불어 두 명의 신위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시 성황이란 마을을 지키는 새로운 신격으로 고대의 산신 개념을 대체하여 만들어진 개

71) 『세조실록』 2년 3월.

72) 김성찬 역주, 『원주지(건)』, 원주시, 2003, 71쪽, 118쪽, 185쪽.

73) 김성찬 역주, 『원주지(곤)』, 원주시, 2003, 56쪽.

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황이란 개념이 처음 문헌에 보이는 것은 고려 성종 15년(996년)⁷⁴⁾이다. 그러나 산신의 개념은 앞 장(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물론 그 이전부터 보인다. 그렇다면 치악산 자락인 이 곳에 처음에는 산신을 신봉하는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마을이 발달하면서 차츰 성황신도 모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이 마을은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주민의 반은 화전촌이었다. 따라서 이 무렵에 성황을 모셨을까 의문이 얼핏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황곳이 1910년대에도 연행되었고(자료3),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동계가 몇 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이 마을의 성황신앙 역시 몇 백 년은 된 것으로 추정한다.

3) 산신과 성황신의 합좌

위에서 논의한 바처럼 회촌리 매지마을 단오제의 주신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날 비록 성황이라고들 답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결코 성황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산신에서 성황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 단초를 백운산 성황지신이라는 과거의 명패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무렵에는 산신과 성황을 동일한 신격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두 신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종종 있는 일이다. 산신을 성황으로 오인하였던 오인하지 않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제의가 단오절에 행해졌고 그리고 두 명의 신위가 모셔졌다는 것이다. 이 증거를 탕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 1위 탕화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아울러 그려져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말은 마을의 신격에 대해 할머니(조익환, 주상철)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할아버지(강성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다. 할머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산신은 원래부터 여신이라 하였고, 할아버지라 주장하는 측은 치악산이 여신이니 그 옆 자락에 붙어 있는 백운산은 남신이라 주장하는 것이었다.

본시 치악산은 신라 이래로 국가의 치제 대상이었다. 백운산에 관한 기록은 고문헌에서는 찾을 길 없지만⁷⁵⁾ 바로 인접한 치악산이 국가의 소사(小祀)로서 치제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백운산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산신의 성적구별에 있어 고려 이전까지는 대부분 산신은 여성이었다. 김유신에게 나타난 신라의 3여신을 비롯하여 고려 호경대왕 설화에 나타난 여신까지 산신의 성별이 여성이었으므로 치악산이 여신임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백운산에서 발생했다. 백운산과 치악산이 동격에 놓고 비견되는 산이라면 백운산도 여신이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서낭당 안에 안치해놓은 탕화에서도 짐작되는 바 있다. 주민들의 말로는 표독스럽게 그려놓은 여신이 바로 백운산 산신이라고 한다. 워낙에 험한 산이기에 기가 세고 암팡지게 그려놓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 의문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에게 떠도는 말인데, 지금의 서낭당이 있는 곳이 치악산의 정기와 백운산의 정기가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치악산과 백운산의 신령을 각각 남녀신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치악산은 옛날부터 이미 여신으로 신봉되었기에 백운산은 부득불 남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백운산 신령을 남신이라 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74) 기록을 보면, 왕육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縣성황당 남쪽 귀룡동에 장사지내 달라고 한다. 그 아들은 후에 고려 8대 임금 현종(1009-1031)이 되고 아버지를 추증하여 안종이라 하였다. 안종이 죽은 것은 성종15년이었다.

75) 조선조 문헌에는 백운산이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에는 白雲山在南三十里, 『여지도서』에는 白雲山在官門南三十里上有大井, 『대동지지』에는 白雲山南三十里幽深重阻라 하였다. 김성찬 역주, 『원주지(전)』, 원주시, 2003, 42쪽, 107쪽, 164쪽, 292쪽.

이미 여신으로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일부 남신으로 보는 주민도 있었지만 마을의 연장자들은 모두 여신으로 생각하므로 필자는 여신으로 규정짓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탕화 속 남신의 정체에 대해서 치악산과 관련지은 논의는 중단하고 다른 관점에서 탕화속 남신의 정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치악산과는 별개로 백운산의 또 다른 남신으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서낭을 음양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 일대에서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해안 어촌에서는 대부분의 마을이 음양으로 나누어진 서낭을 모시고 있었다. 이를 김의숙은 음(陰)이 지닌 풍요의 논리와 양(陽)이 지닌 재앙퇴치와 같은 힘의 논리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⁷⁶⁾ 음양이 지닌 생생력(fertility)을 빌려와 풍요를 담보하고 진경제해(進慶除害)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음양의 서낭으로 구도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빌려와 탕화 속에 구현된 남녀신의 모습을 굳이 산신이나 성황신, 혹은 치악산신이나 백운산신으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백운산 내에 살고 있는 남녀 산신, 혹은 남녀 성황신으로 규정지을 수도 있다.

애초에는 산신이든 성황이든 둘 중의 하나만 신봉했을 것 같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산신과 성황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면서 문제는 복잡해졌다. 진실로 산신내외분만이었는지 아니면 성황내외분만이었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물론 산신과 성황을 동일인으로 생각하고 쓴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다른 마을의 사례에서 보듯이 산신과 성황을 별개로 여겼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그래서 진실로 이 마을의 산신과 성황이 별개였다면 이 부분의 진승이 마을에서 혹시 단절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그렇다면 탕화 속에 보이는 남녀신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굳이 산신의 범주만 상정하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성황신의 개념까지 염두에 두고 부부라는 음양의 상생력을 도모코자 한 것이라면 남신을 성황신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신은 여신이고 성황신은 남신의 구도인데, 이와 같은 구도는 전남 순창의 성황제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순창의 성황제 역시 단오제이면서 산신제이자 성황제이다. 성황사에 부부성황신을 配位하였는데 여성황은 대모산성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⁷⁷⁾했다. 이를테면 여신은 산신이였다. 이와 같이 남자성황, 여자산신의 구도가 아마도 회춘마을 탕화에서 찾을 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강릉의 단오제이다. 이 행사도 역시 산신제이고 성황제이다. 강릉의 단오제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산신인 김유신이나 성황인 범일국사 모두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로 남신이 분명하므로 정씨녀라 하여 여성황을 다시 배위시켰다. 이와 같은 산신제와 성황제의 습합은 사실 과거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종실록』에 보면 산천성황(山川城隍)⁷⁸⁾이라 기록해놓고 있는데 이는 산신성황으로 해석된다. 산신제와 성황제의 습합 내지는 혼동이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회춘마을 신격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여신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백운산을 끼고 형성된 다른 마을⁷⁹⁾들도 모두 조사를 해본 후에야 인근 마을에서 백운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76) 김의숙, 『한국민속제 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137쪽.

77) 송화섭, 「〈성황대신사적기〉를 통해본 순창의 성황제」, 『성황당과 성황제』,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341쪽.

78) 『세종실록』 권72 세종8년 4월.

7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2리는 백운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10월 15일 산신제를 지내는데, 남신이라고 한다. 이창식, 『충북의 민속문화』, 푸른사상, 2003, 368쪽.

4) 서낭제로서의 회촌마을 단오제

산신제나 성황제나 논리의 연장선에서 필자는 이 두 용어를 통어하는 용어로서 서낭제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성황을 한글로 발음하는 차원에서 서낭이 아니라 산신과 성황과 기존의 좁은 의미의 서낭을 모두 통어하는 개념으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각각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필자가 추후 서낭제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자 한다.

① 천제

상고시대 하늘에 제향하는 제천의례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였다. 이 천제의 흔적은 『삼국사기』나 『삼국지』 등등의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여의 영고(12월),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이 그 실례다. 천제의 전통은 오늘날 마을제의와 같은 동제에서도 그 이름을 빌려와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강원도에서는 태백산의 천제, 고성군 거진읍 봉포리와 화포리의 천제, 동해시 동호동의 천제, 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와 호산4리, 신기면 고무릉리와 대평리⁸⁰⁾ 등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다.

천제란 모름지기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천제는 후대로 내려갈수록 차츰 산신제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유풍이 남아 있는 제사는 기우제일 것이다. 그런 기우제마저도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천제의 감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불교의 전래, 유학의 수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이데올로기는 왕권의 강화를 기도하는 왕실의 의지와 제휴하면서 빠르게 통일신라를 잠식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식적인 세계관에서는 불교, 유학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전(祀典)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면, 이로 인해 차츰 약화된 천제는 비공식적인 세계, 즉 민간에서 힘을 얻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신들의 혼합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민간신앙에서 천신 외에도 다른 여타 신들과 같이 치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였다.

② 산신제

초기 제천의례에서부터 벌써 산신제와 습합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예(濊)의 무천이 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하고 주야로 음주가무를 하였으며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다(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⁸¹⁾고 하였다.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다는 점에서 오늘날 산신령으로서 기능하는 호랑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이 시절에 이 지역에서는 산신제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이 배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산신제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산신제는 천제 이후에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천제가 하늘에 대한 제사라면 산신제는 산에 대한 제사를 의미한다. 하늘로 향해 우뚝 솟아 있는 산을 향한 제사는 산이 상징하는 바가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이어서 천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제와는 분명 구별되는 면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발생한다. 무형의 대상물인 하늘과 유형인 대상물인 산이 가지는 차이점만큼이나 천제와 산신제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노정하는데, 우선 하늘신이란 것은 인격신이 될 수 없지만, 산신은 산신령이란 개념으로 변하면서 인격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하늘신은 하늘만이 대신할 수 있지만 산신제의 대상인 산신은 역사적 인물이 사후 산신이 되어 산신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발생한다. 또한 중국의 영향

80) 삼척지방의 천제에 대해서는 장정룡, 『삼척지방의 마을신앙』, 삼척문화원, 1993, 127쪽, 141-142쪽 참조.

81) 『삼국지』 권30 위지30 동이전.

하에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적으로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천제는 중국의 천자만이 지내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임금인 제후의 소관인 산천제(山川祭), 즉 산신제만 지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처럼 산신제의 뿌리는 원래는 천제를 대신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천제 이후 세속화되고 인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천제로부터 분리되면서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해가기 시작했다.

나말여초 도입되기 시작한 유학은 고려 성종 무렵 통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점차 행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제례 역시 유교식 제례의 영향을 받아 변모되기 시작하여 산신제의 분화가 일어나, 유교식제례로서의 산신제와 유교식 제례에서 어긋나는 산신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양자 모두 국행제(國行祭)임은 분명하나 전자는 조정에서 파견된 제관이 치제하나 후자는 왕실에서 행하는 별기은제(別祈恩祭) 같은 것으로 무격이 치제한다.⁸²⁾

③ 성황제

성황신앙은 중국에서 6세기중반 위진남북조 북제시대에 이르러 성읍의 수호신으로 믿어졌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는 성황에게 가호를 하였고, 송대에 이르러 널리 퍼졌다. 우리나라에 성황신앙이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로 보이는데, 고려 성종(981-997) 때 경상도 사수현에 성황당에 대한 언급이 아마도 최초인 듯하다.

(安宗 郁이) 일찍이 은밀히 현종(안종의 아들로 후에 왕이 됨)에게 금이 든 주머니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금을 술사에게 주어 나를 현의 성황당 남쪽 귀룡동에 장사지내되 반드시 옆에서 묻어달라”고 하였다.(嘗密遺顯宗金一囊曰 我死以金增令葬我縣城隍堂南歸龍洞必伏埋)⁸³⁾

안종이 유배지인 사수현에서 죽은 것은 성종 15년(996년)이었다. 이 무렵에 성황당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성황신앙은 이보다는 훨씬 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⁸⁴⁾ 그러나 고려 태조 이전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고려의 사전(祀典)⁸⁵⁾에서 산천제는 소사(小祀)로서 정비되는데, 이때 성황제도 소사(小祀)에 편제되었다. 이로 미루어 이때부터 성황신앙이 국가적 제례로서 정비되기 시작했음을 아울러 알 수 있다.

④ 서낭제

서낭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덕무(1741~1793)가 지은 『청장관전서』에 처음 나타난다.

길가에 돌무지가 있거나 울창한 나무가 흔들리는 곳을 시속에서는 선왕당이라 하는데 이는 성황사의 와전이다(路傍聚石 叢樹婆娑 俗爲船王堂此城隍祠之訛也).⁸⁶⁾

82) 박호원,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문연, 여기저기에서 요약.

83)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1.

84) 정승모, 김감동 등은 신라말 혹은 고려 광종(949년-975년) 년간까지 소급하기도 한다. 정승모,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촌사회의 변동」, 『태동고전연구』 7(1991), 4쪽; 김감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 한국사연구회, 1991, 11쪽.

85) 『고려사』 예지 길례.

86) 『청장관전서』 권62 서해여언 19일.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1788 ~ 1856)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서낭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도처의 고갯마루에 선왕당이 있는데 곧 성황의 와전이다. 옛 총사에서 유래된 말로 중국의 고개 위에 있는 관색묘와 같은 것이다. 혹 집을 지어 사당을 삼고, 혹 잔들을 쌓기도 하고, 수풀의 고목 아래에 돌무지를 만들어 사당으로 삼기도 한다. 행인은 반드시 절을 하며 침을 뱉고 가야한다. 혹 실을 걸어놓기도 하고, 혹 종이를 군데군데 걸어놓기도 한다(我東八路嶺峴處 有仙王堂 卽城隍之誤 古叢祠之遺意歟 是如中國嶺上之關索廟也 或建屋以祠 或壘砂石 成磊磧於叢林古樹之下以祠之 行人膜拜唾之而去 或懸絲緯 或掛紙條勃發累累然 其積磊以祠者).⁸⁷⁾

선왕당(船王堂) 혹은 선왕당(仙王堂)은 서낭당의 음차 표기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은 이 서낭당을 성황당의 오기로 여겼는데, 앞서 살펴본 성황당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무지 혹은 고목 아래의 돌무지를 지칭하는데, 또한 침을 뱉고 가기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말로 하면 국수서낭을 의미하기 쉽다. 돌무지를 지칭하는 경우 그 의미는 경계의 표시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돌무지 즉 서낭은 마을의 경계표로서 입석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앙의 대상으로의 성황당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규경도 오해했듯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황당과 서낭당의 구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위 이규경의 언급처럼 당집 형태의 서낭당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서낭당집은 성황당일 수도 있고 산신당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산신제와 성황제와 서낭제의 혼효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한다.

본질적으로 서낭당이라 지칭되었던 것은 돌탑의 형태에 신수(神樹)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⑤ 필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낭당, 서낭제의 개념

오늘날 대다수의 마을에서 공동체신앙으로서 마을제의를 올리는데, 강원도지역에서는 특히 서낭제란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 1967년도 문교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장주근의 통계에 의하면 1024건 중 722건이 성황당 혹은 서낭당이였다.⁸⁸⁾ 물론 장주근의 이 통계는 성황과 서낭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정리한 통계자료임으로 정확한 서낭당의 개수를 짐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실제 오늘날 성황당과 서낭당을 거의 같은 것으로 강원도 사람들이 간주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세밀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산신제이건 성황제이건 간에 모두 서낭제라 지칭하고 있는 것은 필자의 현지조사로 여러 마을에서 확인한 바 있었다.⁸⁹⁾

원주 회춘마을 마을제사도 학자들간에 지칭하는 명칭이 달랐다. 장정룡은 월간태백 1993년 6월호에 <원주백운산 단오서낭제>라 하여 설명⁹⁰⁾하고 있으며, 김의숙은 1994년 2월 발간된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서 산신제라 하여 설명하고 있다.⁹¹⁾ 실제 조사연도에 있어 1993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두 학자간의 시각이 하나는 서낭제요, 하나는 산신제였

87) 『오주연문장전산고』 권43 華東淫祠辨證說.

88) 장주근, 「강원지역 마을제당의 성격」,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1393쪽.

89) 필자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 동해, 삼척, 속초, 태백, 고성, 양양, 인제, 정선군 등 9개 시군의 촌락들은 거의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원주시, 평창군 일부 마을도 조사한 바 있다. 도합 11개 시군 대부분의 마을에서 서낭제란 용어가 통용되었다.

90) 장정룡, 「원주 백운산 단오서낭제」, 월간 『태백』 93.6월호(통권72호), 134-137쪽.

91) 김의숙, 「원주군의 민속」,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군, 1994, 367쪽.

다. 또한 필자가 2006년과 2007년 주민들에게 조사한 바로는 성황제라 불렸다. 따라서 이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의 마을제사에 대한 통일된 명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서낭제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원도에서 서낭제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성황제와 산신제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 사용하던 언어의 정의도 바뀌는 것이 상용이다. 과거의 산신제와 성황제의 정의는 앞서 필자가 설명한 바와 같지만, 오늘날 회촌마을의 마을제사가 산신제인지 성황제인지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사실은 이 양자가 혼합되어 있음) 아예 새로운 용어로 서낭제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서낭제란 용어가 별반 무리 없이 학계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 다만 그 개념상 의미하는 바의 외연이 필자보다는 조금 다른 듯하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다. 태백산 당골의 제사는 예전부터 산신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 조사한 바로는 성황제 혹은 서낭제라 불렸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필자는 강원도의 마을제의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서낭제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개념의 습합 탓에 동제 혹은 마을제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성황제와 산신제를 구분하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창식은 2005년 『강원민속학』 제19집에 원주군의 마을제의를 통칭하여 동제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실제 세부적으로는 성황제와 산신제의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있었다.⁹²⁾ 필자의 생각은 이미 세부 마을의 마을제이가 성황제인지 산신제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 판국에 거시적으로 동제요, 세부적으로 산신제 혹은 성황제란 규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미 세부적으로 들어가 특정마을의 제이가, 예를 들어 회촌마을의 제이가 이미 산신제와 성황제가 습합되어 있는 마당에 이를 둘 중 어느 하나의 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마을제이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서낭제란 용어로 그 위상을 대신하고자 한다.

5. 축제의 한 마당

매지리 웃마을인 회촌마을의 서낭제는 단오제이므로 음력 5월 5일에 지낸다. 주민들의 말로는 산신제이기에 홀수날에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매지리 아랫마을인 개건너마을도 홀수날인 9월 9일에 지낸다. 회촌마을의 단오제는 축제의 공간이다. 5월4일이 되면 마을주민들에게 공휴일이 찾아온다. 이 날부터 익일까지 모두가 일손을 놓고 2일간 같이 참여하여 단오서낭제를 즐긴다. 이른바 마을주민들에게 있어 단오 무렵의 이틀 간은 축제의 시간인 것이다. 회촌마을 주민들에게 있어 축제의 시간을 더욱 그럴 듯하게 만드는 것은 축제의 공간마저 신성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1) 신성한 공간

회촌마을 서낭제의 유래에 대해서 조익환은 한 200여 년은 되었을 것이라 말을 했다. 서낭제가 연면히 전승되는 과정에 악재도 몇 번 있었다. 일제강점기나 새마을운동으로 당집이 헐릴 위기가 있었다. 그때에도 당집을 헐면 우리 마을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대하여 지켜온 당집이었다. 그만큼 마을 주민들은 당집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였다.

92) 이창식, 「원주지역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제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207-235쪽(이중 매지리 회촌마을 산신제를 언급한 부분은 213-214쪽).

회촌마을 서낭당이 있는 곳은 풍수가 참으로 묘하다. 주민들 말로는 거북머리형이라고 한다. 당집이 놓인 곳 좌우로 커다란 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다. 마치 거북이의 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당집 뒤에서 보았을 때 좌측에는 엄나무 3그루가, 우측에는 피나무 7그루가 서 있다. 이를 각기 삼신목, 칠성목이라 주민들이 부르고 있지만, 이는 3과 7이라는 숫자에 의거해서 단순히 부르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집이 있는 곳의 형국에 대해서는 다른 설들도 많다. 어떤 이는 발이 없기 때문에 거북의 형상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거리 형국이라 전한다. 실이 흘러내려 오다가 뭉친 곳이 이곳이라는 뜻이다.

칠성목 앞에는 조그맣게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제사가 끝나면 이 곳에다가 떡을 조금 따로 떼어놓는다. 지금은 모두가 배불리 먹으니 이 떡을 건들지 않지만, 예전 배고팠던 시절에는 이 떡도 서로 먹으려 했었다. 삼신목 앞에는 구덩이를 파고 제주를 해 물어놓는다. 이외에 이 칠성목과 삼신목에 대한 전설이나 이용은 없다.

한편 회촌마을 당집의 좌우에 있는 칠성목과 삼신목 외에도 당집 앞면의 좌우에 또 각각 한 그루씩 엄나무가 있어 콧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여준다. 주민들은 이 엄나무 두 그루가 지킴이가 아닌가 추측한다. 엄나무는 가지나무라고도 하는데, 가시가 많아서 예로부터 잡귀를 쫓는데 사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잡귀의 범접을 막으려 심어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었다.

칠성목과 삼신목의 나이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을 것이라 동네주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조익환은 어렸을 적에 본 크기나 지금 크기나 똑같다고 한다. 필자가 측정해본 나무밑둥 둘레는 칠성목(우측의 나무)은 630cm, 삼신목(좌측의 나무)은 400cm, 지킴이 엄나무 두 그루는 좌측나무가 290cm, 우측나무가 240cm이었다. 주민들은 자연스레 이 나무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킴이 엄나무 두 그루는 의도적으로 심지 않고서야 그 위치에 있을 리가 없어 보였다. 풍수의 형국으로 짐작하면 마치 거북이든 용이든 무슨 동물의 머리 형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집이 예전에는 마을 입구 개울가에 있었다. 병자년(1936년) 가력⁹³⁾이 날 때에 동네 어른들 꿈에 선몽을 했다고 한다. “내가 자리를 옮기고자 하니 빨리 나를 옮겨달라.” “어디로 옮깁니까?” 하니 “뿔 소리가 날 것이다. 방울 소리가 나면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여 옮긴 곳이 지금의 자리라고 한다. 당집을 옮기고 곧바로 장마가 져 예전 당집이 있던 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와 같이 회촌마을 당집이 있는 곳은 신성함이 느껴지는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 의도적으로 신성성을 더욱 부각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전설도 만들어내었다.

2) 축제의 날

동네사람들은 음력 5월 4일을 마을의 공휴일로 삼아 하루 일손을 놓고 같이 참여하는데, 마을에서 당집으로 올라가는 길의 풀도 뽑고 길도 청소하고 마을 안팎을 깨끗이 한다. 당집이 있는 곳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다. 과거에는 여자들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여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물론 부정하지 않은 여자). 서낭제를 지낼 때에는 동네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내 면사무소에도 연락을 하여 초청을 한다.

1950년대 이전에는 무당들도 참여를 했었다. 동네에도 무당이 살았었는데, 이 무당뿐만 아니라 원주의 유명한 무당들이 참여한 것으로 짐작하는데, 그 자세한 사정은 오늘날 전하

93) 이 지역 사투리로 장마를 의미한다.

지 않는다. 조익환이 구술하기로는 자기 부모님 세대에서 무당들이 참여했다고 하고, 강성태가 구술하기로는 단오굿을 3일 정도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 3일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단오를 전후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단오굿이 거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로 미루어 단오문화권이었던 것임은 분명하다. 추장 남효온의 『추강냉화』를 보면 강원도 영동지방의 민속에 3-5월 중에 택일하여 무당을 맞이하여 산신께 제사를 지낸다⁹⁴⁾고 하였다. 회촌마을은 비록 영동은 아니지만 이와 동일한 단오문화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단오문화권에서 단오제를 거행하는 것은 모내기를 끝내고 쉼 때 즐겨 행했다. 강릉의 단오제도 모내기 이후의 감사제 성격이 강하다. 강릉의 예전 촌노들은 농사철 모내기철에 머슴들을 부릴 때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모를 빨리 심어야 단오 구경을 가지. 빨리 못 심으면 올해 단오 구경은 없어.” 이런 말들은 단오가 갖고 있는 제의적 속성 외에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유희적 속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회촌마을 주민들이 5월 4일은 마을 공휴일이었다는 말이 이와 상통한다. 아마도 이 무렵을 전후하여 마을의 주요 농사일이 끝났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은 마을제의를 날이기에 앞서 축제의 시공이었다.

제의 2-3일전에 장을 보아 5월 4일부터 제물을 손질한다. 예전엔 아침 일찍 먹고 마을회관에 모여 돼지 잡을 준비를 했다. 과거에는 반드시 당집이 있는 곳에서 제물을 장만했었다. 지금은 일부 제물은 마을회관에서 장만하여 갖고 올라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집이 있는 곳에서 대다수의 제물을 장만한다. 점심 때가 지나면 제물을 경운기로 실어 서낭당으로 나르는데, 이때 풍물패가 앞에 서서 길놀이를 하면서 먼저 올라간다. 매지마을의 풍물은 매지농악대를 구성하는 주요 성원으로 이 마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유명하다. 복장은 평상복일 수도 있지만 이 날만큼은 농악대 복색을 다 갖추어 나오기도 한다.

저녁은 당집이 있는 산동성이에서 해먹는다. 어두워지면 당 안에 촛불을 밝혀놓았다. 지금은 전깃불을 밝혀 놓는다. 밖에는 황덕불을 해놓는데, 5월이라 하여도 위치가 산 속이고 또 밤이면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이다.

회촌마을 서낭제는 이처럼 길놀이를 하여 당으로 올라가고 하루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여 흥겹게 노는 것은 강릉단오제의 영신제 행사와 비슷하다. 모두가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길놀이를 거친 후 제의가 거행되고 이후 단오날은 마을의 한마당 잔칫날이 된다. 제의와 아울러 축제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3) 축제와 사람 : 대동계

동네에 대동계가 있어 단오제 등 마을의 주요 행사를 관리하고 있다. 마을의 대동계의 역사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마을에서 기록으로 남겨진 바도 없어 그 연원을 짐작할 길은 없다. 다만 전대 대동계장이었던 조익환이 기록하는 바에 따르면 적어도 몇 백 년은 된 듯 싶다. 조익환의 기억에 의존하여 전대의 대동계장을 기록했는데 조종상 이전의 대동계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록도 없어서 편의상 조종상부터 1대라 칭하고 기록한다. 대동계의 기금을 처음 만들 때는 이자를 놓기도 하였다. 회촌마을은 농악이 성했는데, 농악놀이를 하여 시상금을 받아도 대동계에 넣어 관리하였다. 상이 나면 가서 도와주고 또 사례금을 받으면 그것도 대동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대동계 임원들의 임기를 2005년에 계주는 3년으

94) 추업룡, 『조선민속지』,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192쪽.

로 결정하였다. 사실 모든 동네의 일은 대동계장과 반장이 같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 회촌마을 단오제의 대동계장 >

1대 이전 : 불명

1대 조종상 : 조익환의 증조뻘. 150여 년 전의 인물이다. 대동계장을 몇 십 년 간 했다.

2대 조영휘(=조몽천) : 조익환의 15촌 아저씨로 살아 계신다면 110세 정도 된다. 조종상의 대를 이어 대동계장을 역임했는데 젊어서부터 대동계장을 시작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대동계장을 역임했다.

3대 이상현 : 조영휘의 뒤를 이어 대동계장을 했는데 4년 간 역임했다. 원주 시내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대동계장을 더 하지 못했다.

4대 조창환 : 조익환의 6촌 동생. 매지리 이장을 보면서 대동계장도 같이 겸직했다. 재임기간은 대략 20여 년⁹⁵⁾이다. 지금은 사망했다.

5대 조익환(1936년 생) : 7년 간 대동계장을 역임했다.

6대 고봉열(1946년 생) : 2008년 현재 7년째 대동계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3호뿐이지만 백천 조씨는 이 마을에 김씨와 더불어 처음 들어온 성씨인데, 조익환(1936년 생)은 자신이 8대째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한 연대가 대략 300여 년이다. 조익환은 마을의 대동계가 생겨난 것은 200여 년 정도로 짐작하고 있었다. 물론 200여 년이란 수치는 앞서 대동계장을 역임했던 백천 조씨의 선조들 때문으로 짐작하는데, 백천 조씨가 그의 8대조부터 거주해왔다면(조익환이 기억하지 못하는 훨씬 윗대를 포함한다면) 대동계의 유래도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4) 축제의 정신과 확대 재생산

회촌마을은 18년 전부터 대보름을 기해 달맞이 행사를 하고 있다. 전통민속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 현실이고 보니 회촌마을의 달맞이 행사는 희소성을 띄어 근방에서는 꽤 알려진 전통민속행사가 되었다. 오늘날 잊혀졌던 민속을 하나둘 복원하기 시작하는 마을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는 있으나 회촌마을은 다른 마을과 비교해보았을 적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전통민속의 발굴과 복원과 힘을 쏟았고 또한 많은 민속을 보존하고 있었기에 이른바 유명세를 타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마을이자 행사가 되었다. 오늘날 대보름이 되면 근방의 많은 사람들이 회촌마을의 달맞이 행사를 보러 찾아오곤 한다. 젊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전통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늙은이들은 과거의 향수에 빠져들어 삼삼오오 찾아와 참다운 민속의 맛을 느끼고 간다. 이를테면 산 교육의 장으로 회촌마을은 자리매김 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촌마을이 앞서가는 것은 대보름 달맞이 행사만은 아니다. 농악도 그러한데 주민들이 40여 호에 불과해지자 매지농악은 전수자(중고등학교 학생)에 관심을 기울려 일찍이 전수생을 받아들여 현재 30여 명이 이르는 학생들(영서고)이 농악을 배우고 있다. 60-70년대 원주를 대표하는 농악이었던 오리동 농악이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현실임을 감안할 때 매지농악이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 원주를 대표하는 농악으로 성장한 것은 일대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간 회촌마을만의

95) 이 분의 재임기간에 대하여 조익환은 4년이라고 했으나 주상철은 20여 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상철이 군 제대 후 마을일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대략 30여 년 간 대동계 총무일을 하면서 한참동안 같이 일을 했기에 확실하다고 강조하기에 이 부분만큼은 주상철의 뜻대로 정리했다.

전통민속에 대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촌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단오서낭제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매지리 주변 마을에서는 전승되는 서낭제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회촌마을만은 단오서낭제를 보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낭제를 확대 생산하기에 이르러 대보름 서낭제마저도 복원하였다. 서낭제의 축소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킨 것이 매지리 회촌마을인 것이다.

이 마을의 달맞이 행사는 대보름 당일에만 치러진다. 음력 정월이므로 날씨는 여간 쌀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령인 회촌마을의 주민들은 전통민속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마을 주민들의 전통민속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마을은 이 행사를 위하여 대보름달맞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간은 조익환 노인회장이 주관하였고 2007년은 고봉열 대동계장이 주관을 하였다.⁹⁶⁾ 행사의 시간은 대보름 당일 14시부터 22시까지 이어진다. 행사의 내용은 제기차기, 윷놀이, 농악, 줄다리기, 햇불 돌리기, 망우리(망월) 돌리기, 달집태우기 등이다. 행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렇다. 2시부터 온갖 민속들이 실제 참가해볼 수 있을 정도로 펼쳐져 있고 또한 농악이 공연을 하면서 길놀이를 시작한다. 이렇게 흥을 돋우다가 오후 17시가 되면 당산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 제사상의 제물차림은 단오 때 차리는 제사상과 동일하다. 제사의 진행방식도 단오 서낭제와 동일하다.⁹⁷⁾ 서낭제의가 끝나면 양편으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다. 동네주민들이 편을 갈라 하는데 구경은 이들도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마치면 어느덧 달이 떠오를 때가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각자 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마을전체로서는 달집을 태운다. 달집을 태울 때 그 속에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집어넣어 그 불에 한 해의 나쁜 것들을 모두 태운다. 달집태우기가 끝나면 햇불 돌리기, 망우리 돌리기 등의 야밤행사로 이어지고 농악도 또한 공연을 한다.

대보름 달맞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뽀뽀뽀뽀해도 서낭제와 달집태우기다. 축제의 기본적인 성격인 제의성과 유희성과 민속성을 아울러 고려한 행사였다. 이로 인해 회촌마을의 서낭제는 이제 1년에 2번, 단오와 대보름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되었다.

6. 맺음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의 서낭제를 알아보았다.

가장 주요한 것은 이 마을의 서낭의 정체성이었다. 여러 모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마을의 서낭을 여신으로 상정할 경우 산신은 여신, 성황은 남신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분석하는 게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백운산 산신으로서의 남자산신, 여자산신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성황신앙과 산신신앙의 습합으로 파악한다면 산신은 여신, 성황은 남신으로 보는 게 온당해 보인다.

서낭당이 있는 곳은 참으로 묘한 곳이었다. 얼핏 생각해보면 오대산 적멸보궁이 있는 비로봉 줄기가 생각날 만큼 명당으로 여겨졌다. 누구는 풍수가 거북이 형국이라 하고 누구는

96) 이 마을의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사실 관의 협조도 있었던 터라 초창기 위원장을 대학교수를 비롯한 외부인들이 한 적도 있었다.

97) 2007년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악천후로 인하여 행사의 대부분이 취소되었다. 조익환 노인회장의 구술에 의하여 이 부분을 기재한다.

실타래 형국으로 파악하지만 주요한 것은 참으로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전설 또한 흥미롭다. 비록 필자가 병자년(1936년) 포락이라 하여 이 전설이 발생한 연대를 근대로 잡았지만 주철상(1939년 생)은 그보다도 훨씬 윗대에서 전해오는 전설이라 하였다. 연대가 언제이든 간에 역시 주요한 것은 이야기와 전설의 현장이 명실상부하게 딱 들어맞아 감탄사가 튀어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전설은 마을의 발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마을 입구에 과거에 소류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소류지가 없어지면서 이 전설은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류지가 없어지면서 서낭당도 옮겨야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서낭당을 옮길 수밖에 없는 전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을입구 개천가에 있던 서낭당을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것은 1930년대 무렵으로 짐작된다.

회촌마을 서낭제는 산신제와 성황제가 습합되었다. 또한 단오문화권의 유품으로 5월5일 제사가 행해진다. 제물로 보아서는 메를 올리지 않으므로 벼농사와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밭농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 마을이 단오를 기점으로 하여 쉬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생업과 관련하여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서낭제가 단오제인 것이 분명하고 과거에는 3일간이나 대굿을 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분명 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김택규는 초여름에 수확하는 천신례로서 보리나 밀을 들었다. 이 보리와 밀은 가을보리와 가을밀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쌀 농사 후 가을에 심은 보리와 밀을 이듬해 봄 혹은 초여름에 수확하는 것이다.⁹⁸⁾ 이럴 경우 천신례로서 단오제가 거행되었다. 즉 신에게 수확물을 바쳤는데, 그런데 회촌마을은 메를 바치지 않으므로 곡물천신례라고 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것 역시도 과거의 진승이 단절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통돼지나 소머리를 바치는 것으로 보아 수렵의 흔적이 강하고 또한 천제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하기로는 또 깊은 산간마을인 경우 혹은 메를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곤 하였다.

마을의 주요행사가 서낭제를 포함하여 대동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향촌사회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여실히 반영해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나라에서 정한 리장, 반장도 있지만 2007년 현재 여전히 마을의 실권은 대동계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인 문제도 대동계장을 통해 정부에 건의를 하고 대동계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입안된다. 마을의 공동기금도 대동계에서 관리한다. 또한 대동계가 조직될 정도라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만큼 생업에 유리한 무엇인가가 생산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대동계를 통하여 향촌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산촌이든 농촌이든 간에 회촌마을 나름의 전통을 잘 보존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오늘날 역사문화마을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

98) 임장혁, 「단오의 생태민속학적 고찰」, 『강원민속학』 제17집, 강원도민속학회, 2003, 17쪽.

북한지역 단오절의 실제와 양상

장정룡(강릉대 교수)

I. 머리말

북한은 전통적인 민속명절 가운데 단오절을 중시하였다. 이는 지난 1989년 국가의 공식적인 법적 민속명절로 단오절을 부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한국에서 강릉 단오제를 단독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이를 세계화하면서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명절을 강화하고 단오절을 법정 민속명절에서 제외하였다.

북한정권은 인민의 주체성을 사회이념화 하면서 민속문화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개조의 대상으로 보는데, 단오절을 포함한 북한의 전통명절은 인민성 등 사회주의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한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으로 전승된 단오명절은 남쪽과 북쪽이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북한은 전통문화조차 교시문화의 일환으로 다루면서 단오 때 행해지는 봉산탈춤이나 북청 사자놀음판과 탈을 개조하는 등 인민성과 현대성에 부합한다는 구실로 군중유희로 바꾸고 있다.

남북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1960년대 이후 북쪽은 전통문화를 교조적 민속, 정책적 민속, 일인에 의한 통제와 규격화된 사회주의적 교시민속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체제,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위배된 문화를 주체사상의 확산과 봉건잔재 타파라는 미명하에 과감하게 變改하였다.

따라서 같은 북한의 민속놀이라 하여도 남북분단 이전 월남 실향민의 것과 현존 북한의 것이 이질화의 길을 걷고 있는 형편이고, 내용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민속극의 경우 북한은 유물사관의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새롭게 복원, 개작하였고, 세시풍속과 관련된 민속놀이 대부분이 북한정권과 관련된 군사놀이나 체육경연 등으로 바뀌었다. 널뛰기와 그네뛰기도 정월 대보름날이나 단오절과 관련 없이 민족체육대회용 놀이로 바뀌었으며, 농악도 5월 1일 국제노동절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에서 극장이나 야외공연 종목이 되었다.

북한에서 민속예술 또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지만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창조자들의 세계관 미숙성으로 일련의 제한성을 갖는다 전제하고, 현대성의 원칙에서 비판적으로 연구·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측의 전통문화관에 입각하여 민족문화예술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온전한 통일한국의 한민족 문화지향을 위해서는 북한체제로 변개되기 전 이북5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고유의 민속문화를 시급히 정리해야 하겠다. 속초지역에서는 실향민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함경도 주민을 중심으로 한 민속조사나 이북5도 실향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⁹⁹⁾

오늘날 50년 넘은 분단의 고착화는 단일민족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정권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념과 이해, 방법과 접근, 조사와 보존 등 일체의 학문적 접근을 획일화하고 통제하여 이질화는 더욱 깊어졌다.

99)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장정룡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북한의 정책적 교시민속정책은 민속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민속놀이의 생산성과 고유한 정서를 왜곡시켜 영웅성·전투성을 강조한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적개심이나 중요성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전래민요는 일인독재의 찬양이나 노동당 정책가요로 개작하고 민속무용도 정치성을 강조하였으며, 옛날이야기는 개작·개편·첨가하여 변형시켜 체제수호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속은 일부 설날이나 수릿날, 한가위 등의 명절을 형식상으로는 복원했으나 그 실체는 일인독재의 찬양문화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북한 민속연구는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탓에 분단 전 조사 자료나 월남민들에 의한 간접조사, 중국연변이나 북한문헌에 의한 자료 등을 활용해야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한국 민속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북한민속의 원형적 연구와 체계적 정리, 변화된 북한민속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¹⁰⁰⁾

주지하듯이 한국단오절의 메카이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다각적인 국제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북한은 단오절을 1989년에 국가명절로 지정했으나 2005년에 들어와 폐지하고 각종 문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¹⁰¹⁾

북한은 1990년에 중국어로 출간한 《조선민속》 절일편에서는 원단, 한식, 단오, 중추절과 칠석, 동지를 기술하였고, 단오에 대하여 여름철 최대의 절일이라 하고 이날 山牛莠糕, 艾葉糕를 만들고 擗交(씨름), 秋千(그네), 拔河(줄다리기), 가면유희와 오락활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다.¹⁰²⁾ 그러나 2005년 이후의 최근 문헌에서도 단오절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단오절을 배제한 상황에 대하여 북한민속에 정통한 일부의 중국조선족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강릉단오제를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대한 북한식 노여움의 표출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하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북한은 중국과 함께 북방문화의 대표적 민속으로 단오절을 강조하여 왔으며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중국과 공동 등재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과 중국이 보여주는 단오절에 대한 행보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이미 조선족의 그네, 널뛰기, 농악무를 국가급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고, 씨름은 국가급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길림성급 24개 지정항목에 냉면 등과 함께 포함되었다. 아울러 중국 전역 4개 지역의 단오절 민속을 하나로 묶어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북한은 최근의 식량난 등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통명절의 흥겨움도 줄어들었고, 새로 제정된 국가적 명절이나 사회주의 명절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

100) 199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북한민속종합조사연구》의 경우도 1950년대에 월남한 실향민 중심의 간접적 북한민속조사였다. 그 내용은 구비전승, 신앙전승, 세시풍속, 관혼상제, 식생활, 의생활, 음악, 무용, 공동생활구조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01) 북한에서 북쪽 단오절에 대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94년에 출간된 《조선의 민속전통》 5권에는 단오가 들어 있으나 2004년에 간행된 《조선민속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2005년에 나온 리정남, 《조선의 사계절 민속》(평양출판사)의 여름부분에서 유두와 삼복만 말하여 단오는 배제하였고, 여름철 민족음식에서 썩떡, 여름철 민속놀이에서 씨름과 그네를 서술하고 있다. 최근 2007년에 저술된 신희창, 〈여름철의 절기와 민속풍습〉 《민족문화유산》 2, 주체96(2007), 45~47쪽을 보아도 단오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음력 4월부터 6월까지 들어 있는 24절기의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를 언급하고 삼복이나 유두 민속은 복날 먹는 누렁개 단고기 장, 닭탕, 보리밥에 파국과 팔죽 그리고 유두날 물맞이, 모래찜질 등에 대해서는 민족풍습이라고 자세히 언급하여 단오라는 용어자체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102) 方皖柱, 《朝鮮民俗》平壤 外文出版社, 1990, 78쪽

키면서 단오절의 의미를 축소·배제하였다.

한편으로 “민속놀이를 장려하여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에는 제4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를 개최하고 ‘아리랑’이라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펼치는 등 집체적인 활동이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⁰³⁾

이러한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한민족 민속문화의 동질성과 고유성 그리고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북단오절의 이질화 현상에 대한 시급한 진단이 요구되는바 본고도 晚時之歎이라 하겠다.

II. 북한지역 단오절의 특징

세시풍속은 이른바 연중행사로서 한 해 네 계절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별한 날짜 중심의 민속이다.¹⁰⁴⁾ 여름 세시풍속에 들어가는 단오는 여름철 북쪽의 최대명절이다. 전래 속담에 “오뉴월 장마에 돌도 크다.”고 하듯이 모든 식물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며, 한 해 농사에서 중요한 때라 농민들의 일손도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음력 4월 모내기가 끝나면 농민들은 하루를 쉬면서 김매기 준비를 하였는데 북한의 3대 민속명절의 하나인 오월단오가 그 날이다. 북한에서는 이 날을 ‘전통민속명절’ 또는 ‘민간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중시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전통명절은 비교적 간소하게 지켜지는데 이른바 사회주의명절이 최대의 명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지역 여름철의 민간명절 가운데 대표인 단오날의 중요성은 일찍이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도 나타난다. 즉 “추석날에 선조들의 산소에 찾아가며 단오날에 즐겁게 노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들의 풍습입니다.”¹⁰⁵⁾라 하였고, 김정일의 어록도 “우리 인민들은 오월 단오명절에 씨름, 그네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¹⁰⁶⁾

그러나 이러한 세시명절도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생활에서는 전인민적 명절행사가 되었다. 즉 과거의 민속행사들의 사회적 토대가 변했고,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실질적 변화는 1960년대 단오명절에 대한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수하고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킨 데 대하여 심대한 주의를 돌리고 있는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건전한 민족오락, 민족경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려왔다. 그리하여 씨름·그네뛰기·널뛰기·활쏘기 등 민족오락, 민족경기가 근로자들의 새로운 사회생활, 새로운 생활감정에 맞게 한층 더 높은 단계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지난날 주로 단

103) 《민족문화유산》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1호, 36쪽 화보에는 ‘런일 초만원을 이룬 씨름경기장’ ‘관람자들의 열기면 응원모습’ ‘비교씨름경기의 한 장면’ ‘경기에서 우승한 씨름 선수들’ 사진 4장을 게재하였다.

104)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19쪽

105) 《김일성저작집》 20권 37쪽

106) 《민속명절과 풍습》 금성청년출판사, 1992, 64쪽

오명절에 진행되던 씨름·그네뛰기 등 오락·경기는 오늘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과 역사적 8·15해방을 기념하는 민족오락경기로서 민주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며 천리마 시대 근로자들의 즐거운 명절을 한층 더 흥겹게 하고 있다.¹⁰⁷⁾

북한의 전통명절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원되었다. 1988년에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하고, 1989년에는 설날과 한식, 단오 등이 공식적 민속고유명절로 부활됨으로써 설날인 음력 1월 1일, 단오, 추석 등이 민속명절의 중심이라 할 수 있었다. 그 후 1991년 한식은 민속명절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부터 단오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민속명절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2005년 발간된 북한 민속명절음식 소개책자에 설명절음식(떡, 지짐, 떡국, 산적, 당과류와 음료, 과일, 술), 정월대보름음식(오곡밥, 복쌈, 국수, 검정나물, 술), 한가위음식, 동지음식 등 네 명절에 대한 것만 소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¹⁰⁸⁾

민속명절인 단오가 제외된 반면 북한의 10대 국가명절인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위 5대 민속명절인 음력설, 양력설,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단일민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기본설명절로 정하고 단오는 '수리날'로 부르고 추석은 '한가위'로 그 명칭을 고유어로 바꿨다. 그러나 2005년부터 수리날을 국가민속명절에서 제외함에 따라 현재 북한의 민속명절은 음력설, 정월대보름, 한가위 등이 3대민속명절로 손꼽히고 특히 음력설에는 3일간 휴무를 실시한다.

북한의 민속명절은 이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명절을 즐기고 특식배급도 나와서 명절분위기를 누리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휴무일 대신 일요일 중 하루를 노동일로 지정하여 보충노동을 하고 특식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설날과 한가위에는 농촌과 일부 도시인들 가운데 차례를 지내고 있으며, 추석날 성묘는 거주지 시군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녀올 수 있게 묵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단오날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축제를 열거나 기념하지 않고 다만 여성들이 썩떡을 먹거나 전국씨름대회 등 민속놀이 중심의 명절행사로 축소되었다.

마을 또는 협동농장별로 민속대회를 열고, 씨름, 널뛰기, 그네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도시의 공장이나 기업은 유원지나 공원에서 놀이장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도 참가한다. 최근 몇 년 식량난이나 물자부족이 심각하지만, 막상 놀이판이 열리면 노래나 춤만은 끊어지지 않는다. 북한에서도 5월의 단오절을 표상하는 음식물은 썩떡이며 지금도 단오절이 되면 여성들이 썩을 뜯어서 떡을 만든다.¹⁰⁹⁾

이처럼 북한에서 단오의 경우 국가제정의 법정명절에서는 제외되어 수리날 또는 단오절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집체적인 민속놀이나 체육오락행사 중심으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107) 황철산, <단오의 유래와 행사> 《고고민속》 1962년 3월호, 주장편, 《풍습으로 본 북한의 주민생활》 공보처, 1993, 17쪽 재인용

108) 립찬영, <민속명절음식> 《조선의 특산료리》 평양출판사, 2005, 244~250쪽

109) 유경재, <단오절을 통해 본 문화변용> 《아시아의 단오민속》 국학자료원, 2002, 117쪽

Ⅲ. 북한단오절의 실제와 양상

1) 단오절 유래

북한에서는 단오날 유래를 고대 마한지방의 풍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 중국 초나라 때 굴원이 멩라수에 빠져 죽은 날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하고, 수릿날의 어원도 수레바퀴 모양의 썩떡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력 5월 5일을 단오명절로 한 것은 멀리 고대시기부터였다. 옛 기록에 고대 진국의 마한지방에서는 봄씨불입을 끝내고 김매기를 앞둔 시기 어느 하루를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명절로 즐기었다고 한다. 이 기록에 음력 5월 5일이라는 기록은 없으나 봄씨불입이 끝난 다음에 즐겨 놓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후세의 단오와 같은 절기이고 진행한 민속놀이와 의례도 단오날의 것과 유사하다. 오월단오라는 말은 5월의 첫 5일이라는 뜻이다. 즉 오월단오는 음력 5월 5일을 의미한다. 먼 옛날 어떤 선비가 이 날에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를 애석히 여겨 그가 죽은 날인 5월 5일을 명절로 쇠게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오월단오를 일명 ‘수리날’ ‘술의날’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한자말로 ‘천중절’ ‘중오절’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서 ‘술의’라는 말은 ‘수레’에 대한 옛 표현으로 이날에 썩떡을 수레바퀴모양으로 만들어 먹은 데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다.¹¹⁰⁾

주지하듯이 단오의 고유한 우리말은 수릿날이고 이날은 곧 태양을 뜻한다. 단오명절이 기록된 것은 신라 때인데 삼국사기에는 ‘단오’를 향찰로 표기하여 ‘수리’라 부른 것으로 보이며 명절의 연원은 삼국시대까지 소급 추정된다고 하겠다. 고려 말 元天錫(1330~?)은 “新羅是日號爲車”라 하여 신라 때부터 ‘수리’라 불렀음을 추론하였는데¹¹¹⁾ 한글로 기록한 <동동> 이외 문헌에는 한자로 ‘車’ ‘車衣’ ‘戊衣’ ‘戊依日’ ‘水瀨’ 등으로 다르게 쓰였으나 모두 향찰식 표기다.¹¹²⁾ 이들 자료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五月五일에 아으 수릿날 아츨藥은 (樂學軌範 ‘動動’)
- 俗以端午爲車衣(金富軾, 三國史記 卷二, 文武王)
- 端午俗稱戊依日, 端午衣曰戊衣 (유만공, 세시풍요)
- 端午俗名戊衣 戊衣者 東語車也(洪錫謨, 東國歲時記)
- 國人稱端午曰水瀨 謂投飯水瀨 享屈三閭也(金邁淳, 冽陽歲時記)

이처럼 ‘수리’ ‘술의’는 高·上·日·神을 뜻하는 고대어로 삼국시대 5월과 10월의 農功始畢期에 태양신에게 제사한 신앙적 기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¹¹³⁾ 이에 대해 양주동은 다

110) 이정순 외, 《열두달민속이야기》 근로단체출판사, 2002, 93~94쪽

111) 元天錫, 《耘谷詩史》 卷5

112) 장정룡, 《강릉단오제 현장론 탐구》 국학자료원, 2007, 205쪽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投飯水瀨는 말할 것도 없고 車輪狀 艾糕로써 수리를 설명코저 함도 本末의 顛倒이다. 수리의 語原은 차라리 高上에서 찾을 것이다.…上과 峯(峯수리-峯우리)의 古訓이 並히 수리(特히 峯의 義의 ‘수리나미고개’는 車輪로 對譯됨)인즉 무릇 ‘높은꼭대이’가 수리이니 端午日의 午時를 漢語에도 ‘天中’이라 함과 合致된다. 이러한 推想은 一方 嘉俳의 語原이 ‘半中’의 義입과 對照하여 興味있는 일이다.¹¹⁴⁾

《동국세시기》에 “단오의 속명은 술의일로서 술의는 우리말로 수레바퀴를 뜻한다.”라 하였는데¹¹⁵⁾ 여기서 수레바퀴는 태양이며 수레바퀴를 돌리는 신은 태양신으로 유추된다. 그것은 고구려 고분유적인 중국 집안 5호 무덤 천장의 수레바퀴를 끄는 신선 그림이 새겨져 있음에서 유추된다.¹¹⁶⁾ 따라서 단오날에 먹는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든 시절음식의 車輪形 수리치떡은 태양을 상징한 것으로 양기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해석된다.¹¹⁷⁾ 이 날을 ‘水瀨日’이라 하여 밥을 水瀨에 던져 屈三閭를 제사한 것에서 나왔다는 것은 중국기원설에 따른 것이다.¹¹⁸⁾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는 이유에 대하여 조선시대 홍석모는 “음력 오월이면 남편을 군대에 보낸 녀인들이 수리취떡을 만든다. 수리취라는 이름이 수레와 비슷하므로 남편이 수레를 잘 몰며 몸을 다치지 말라는 녀원에서 생긴 풍습이다.”라는 재미있는 설명도 있으나,¹¹⁹⁾ 북한 학계에서도 ‘수리’에 대하여 수레바퀴설보다는 높은 곳이나 산봉우리, 꼭대기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수리, 이 단어는 어떤 물체의 제일 꼭대기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정’은 ‘이마 정’이다. ‘이마’는 눈썹으로부터 머리털까지의 부분이다. 그러나 이 한자 ‘정’은 어떤 물체의 가장 윗부분을 표시한다. ‘수리’는 산봉우리다. 때문에 한자 ‘봉’을 수리봉이라고 하였다.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 봉우리다. 그러므로 정수리는 솟구멍이 있는 머리의 꼭대기부분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순 한자어휘로 표현하면 ‘정상’이 된다.¹²⁰⁾

‘수리’라는 말은 “높은 부분, 산봉우리, 꼭대기”를 가리키는 오랜 고유말이다. 《삼국유사》에는 ‘봉우리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지명 ‘봉성’을 ‘술이홀’(述爾忽)이란 말로 대치시킨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술이’는 ‘수리’에 대한 한자표기이다. 이것은 봉우리와 수리가 같은 뜻을 가진 말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도 높은 주봉으로 되는 산봉우리를 ‘수리봉’이라고 하며 제일 사납고 날개가 크며 높이 나는 새를 ‘수리’ ‘수리개’라고 한다. 지명이나 동물이름들에서 쓰이는 높은태를 가리키는 말¹²¹⁾

113) 신라에서는 정월에 日月神에게 하례하는 궁중풍습이 있었다. 《隋書》卷81, 東夷傳 新羅, “每正月旦相賀…其日拜日月神”

114)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54, 103쪽.

115) 洪錫謨, 《東國歲時記》, 端午條, 1849년.

116) 《고구려문화》,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도판 39쪽.

117) 장정룡, 《강릉단오제》, 집문당, 2003, 147쪽 “단오의 수리치떡은 떡이 아니고 약이고 태양이다.”

118) 金邁淳, 《洌陽歲時記》, 1819年, “國人稱端午日 水瀨日 謂投飯水瀨 享屈三閭也”

119)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한시집》(3) 평양 문예출판사, 1985, 252쪽 홍석모 〈세시기속시〉 ‘수리취떡(艾糕) 수리취 푸른 이팔 동글납작 돌아날 때(艾葉青青獅足翻) 그 잎 넣어 바퀴같이 수리취떡 빚는다네.(打成粉糕象輪圓) 사람과 범모양 떡에 찍어서(刻人鑱虎除邪厄) 액운을 막는다고 팔기까지 한다네(更擅時需賣餅天)”

120) 럽중률, 《조선말단어의 유래》 평양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1, 147쪽

121) 김인호, 《어원유래상식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20쪽

중국거주 한민족 동포학계에서도 ‘수리’의 中天說을 주장하고 있으며 ‘봉우리’의 ‘우리’도 ‘수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삼국유사》 2권에 있는 ‘문호왕법민’이란 글에는 ‘단오’란 말 아래에 “세속에서 단오를 車衣라고 한다”고 주를 달았다. 또 《동국세시기》에서는 “단오를 세속에서 戌衣라고 부르니 술의는 우리말로 수레(車)이다. 이날 쭉이를 뜯어서 흠뻑 짓쪼고 쌀가루와 한데 이겨서 과랴게 빛이 나면 수레바퀴형으로 떡을 쳐서 먹기 때문에 戌衣라고 한다.”고 하고 《월양세시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단오를 일컬어서 水瀨라고 하니 수뢰에 밥을 던져서 굴원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에서의 단오에 대한 풀이는 억지로 부회한 것 같다.

세속에서 음력 5월 5일을 단오절이라고 한다. 단오란 의미는 해가 제일 높은 오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날은 일년에 해가 제일 높은 날이다. ‘車衣’ 또는 ‘戌衣’는 다 리두식표기로서 그 단오의 뜻과 음 또는 음과 음을 빌어 기사한 것이다. 15세기의 조선말표현방식으로 표기하려면 ‘수리’이다. 여기의 ‘車衣’ 또는 ‘戌衣’의 함의는 ‘중천’(中天)이라는 것이다. ‘정수리’란 말은 한자어휘 ‘정’(頂)과 ‘수리’가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다. 이 ‘수리’는 바로 ‘車衣’ 또는 ‘戌衣’였다고 본다. ‘정수리’의 본디 의미는 ‘꼭대기의 뚜껑’이라는 뜻으로 리해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봉우리’란 말도 이와 관련된다. 그것은 한자어 ‘봉’(峰)과 ‘수리’가 합쳐져 이루어진 것인즉 ‘峰+수리→봉수리→봉우리’로 변화된 것일 것이다.¹²²⁾

2) 단오절 습속

단오날의 세시풍속은 단오굿, 씨름, 그네, 창포탕과 창포비녀만들기, 쑥과 익모초,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단오부채와 단오부적 만들기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는 현재 사라진 것도 있고 일부 전해지거나 민속자료의 측면에서 재현되는 것들도 있다.

단오날 모시옷을 입거나 창포로 꾸미는 것은 단오빔 또는 菖蒲粧, 端午粧이라고 하는데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며 머리에 윤기가 나고 잘 안 빠지며 소담스러워진다고 한다. 또한 창포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뿌리에 ‘壽福’ 글을 새겨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는다. 이렇게 가꾸는 것을 단오빔이라고 하는데 강릉지역에서는 창포뿌리를 깎아 물들여 땀에 꽃거나 아이들 뒷덜미에 꽃아 두었다가 유두날 물에 띄워 보낸다고 한다.¹²³⁾ 여름철 모시는 최고의 입을 거리다. ‘수리’라는 말자체가 단오 때 입을 옷으로 본 견해도 있다.¹²⁴⁾

단오명절행사가 강조된 시기는 조선시대다. 단오날에는 첩자를 승정원에서 만들어 대궐에 올리면 대궐에서는 관상감에서 주사로 쓴 천중부적을 여러 신하들에게 내렸다. 또한 공조에서 단오부채를 만들어 대궐에 올리면 임금의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端午扇’이라 하였다. 《京都雜志》에서 “서울의 옛 풍속에 단오날 부채는 관원이 아전에게 나누어주는데 동짓날의 달력은 아전이 관원에게 바친다. 이것을 夏扇冬曆이라 한다.”¹²⁵⁾는 나눔의 미풍양속

122) 한진진,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 연변인민출판사, 1990, 251~253쪽

123) 최영진, 《강릉의 전통단오음식》 청옥, 2006, 10쪽

124) 윤호진 편역, 《천중절에 부르는 노래》, 2003, 민속원, 21쪽에서는 유만공의 세시풍요 단오 별주에 ‘端午衣曰戌衣’라 한 근거에서 단오날 모시옷을 입는 것만을 수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 계승되었다.

북한지역에서 오월단오명절을 준비하는 습속은 대부분 과거와 달라졌으나 일부 습속은 유지되고 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은 유지가 되나 창포비너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으므로 만들어서 꽂지 않는다. 따라서 단오빔을 입는 풍습도 사라진 과거의 풍습이 되었다고 한다.¹²⁶⁾ 따라서 북한의 단오날은 개인적 습속보다 집단유희나 그네나 씨름 등 대중성 놀이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단오가 되면 북한사람들은 이미 준비해놓았던 창포(개울가에서 여러 해 사는 풀의 한가지로 창포이라고도 한다)를 삶아 그 물에 머리를 감았다. 어떤 사람은 창포못에서 물맞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을 뿐 아니라 창포뿌리를 잘라 비너도 만들어 꽂았다. 창포뿌리 비너에는 수복(장수와 행복의 뜻)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하고 붉은색을 들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오월단오날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뿌리비너를 꽂으면 머리에 윤기가 돌고 머리칼이 빠지지 않으며 앓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미신적 관념도 없지 않지만 단오명절을 맞으며 몸을 깨끗이 거두고 치장을 하게 하려는 뜻도 담겨져 있다. 단오날에는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한 다음 붉은색, 푸른색 등의 고운 옷들을 입었다. 이렇게 차리는 것을 ‘단오장’ ‘단오빔’이라고 하였으며 이 말은 다 단오날에 색 갈 고운 좋은 옷을 입고 즐기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²⁷⁾

3) 단오절 놀이

북한의 단오절 놀이는 최근 단체놀이로 바뀌었다. 단오절을 휴무일로 정해서 놀이를 하지만 일요일에 밀린 일을 보충하고 과거에 지급되던 특식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단오절 놀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여전히 즐거운 명절놀이이다. “놀이가운데서 단오를 상징할 정도로 널리 돌아온 것은 씨름과 그네뛰기였다. 이러한 놀이는 사람들의 체력단련과 호상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말한다.¹²⁸⁾

북한에서는 단오를 ‘여인들의 명절’이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의 그네뛰기가 성황을 이룬다. 과거 평양단오명절은 유명세를 탔는데 단오날 그네뛰기에서 1등을 한 여성에게는 가정의 주부로서 살림을 알뜰히 꾸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대야’를 상으로 준다고 한다. 평양에서 개최된 씨름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북한에서는 씨름의 경우 민속놀이의 전통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민족체육종목으로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¹²⁹⁾

125) 柳得恭, 《京都雜志》卷二, 歲時

126) 유경재, 〈단오절을 통해본 문화변용〉 《아시아의 단오민속》 국학자료원, 2002, 117쪽 “오늘날 북한에서도 창포를 빗대신 머리에 꽂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거나 또 남성들은 액막이로 창포뿌리를 허리에 걸치거나 하는 풍습은 이미 찾아볼 수 없다. …단오절 등 행사도 현대적인 유희나 오락, 의상으로 대체된 부분이 많이 있다. 한편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중성놀이가 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127) 이정순 외, 《열두달민속이야기》 근로단체출판사, 2002, 94쪽

128)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146쪽

129) 리재선, 〈맺가지 민속놀이의 유래에 대한 고찰(씨름)〉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2002, 28쪽 “우리나라 씨름은 인민들의 근면한 노동 생활 속에서 창조되어 전하여 오는 유래가 오랜 민속놀이이며 우리 민족의 체질과 기호, 감정에 맞는 우수한 민족체육종목의 하나이다.”

북한의 씨름은 나이와 힘에 따라 아기씨름, 중씨름, 상씨름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대부분 원씨름으로 하고 농촌에서는 특별한 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아무 때나 살바를 매지 않고 하는 장난씨름인 ‘민둥씨름’을 많이 하고 ‘선씨름’도 한다. 씨름수는 세 가지로 손을 쓰는 수, 다리를 거는 수, 몸통을 쓰는 수로 나눈다고 한다. 씨름에서 이긴 남정들에게는 ‘장사’라 부르고 상으로는 황소를 주어왔다.¹³⁰⁾

지난 2002년부터 개최되어 2006년 제4회를 맞이한 북한의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실제 황소 900kg이 나가는 ‘대황소’와 정교하게 다듬은 금소방울을 시상하였다. 그러나 경기의 창안이나 형식, 방식, 시상 등이 이른바 남쪽과 다른 ‘敎示民俗’으로 이루어져 북한민속의 현재적 상황을 보여준다.

일찌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옷을 하나 입어도 민족성이 뚜렷한 조선옷을 즐겨입고 한국조의 노래와 춤을 추어도 우리의 민요가락과 장단에 맞추며 놀이를 하나 하여도 씨름과 윷놀이, 그네뛰기 등 민족체육과 민속놀이를 장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나라의 민족체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은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 퍼지게 한 씨름경기장의 금소방울소리에도 깃들여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주체91(2002)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체육발전실태를 료해하시고 전국적 규모의 민족씨름경기를 특색있게 조직한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경기형식과 방법, 경기시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 주시었다.

민족적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여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사람이 있었기에 씨름경기장에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송암명기소목장의 대황소가 나타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고 정교하게 다듬은 금소방울이 영예의 우승자에게 차례지는 흥겨운 모습이 펼쳐질 수 있었다. 우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족의 성지인 평양의 풍치수려한 모란봉과 풍라도에서는 4차에 걸쳐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련일 초만원을 이루며 관람자들의 열기띤 응원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¹³¹⁾

지난 2002년 단오에 북한에서 전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북한민속씨름대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되어 이만기 교수가 해설을 하였다.¹³²⁾

단오날에는 탈놀이와 농악놀이도 하는데 황해도 봉산지방에서는 단오날 낮에는 남자들이

130) 오창원, 《우리나라의 지리와 풍속》 금성청년출판사, 1991, 257쪽

131) 《민족문화유산》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6(2007), 2007년 5월 25일 발행, 6쪽

132) <CBS 노컷뉴스> 2007년 6월 22일 “천하장사 이만기, 북한씨름 해설말야” 초대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교수 XTM ‘대황소상 북한씨름대회’ 해설, 민속씨름 초대 천하장사 이만기 인제대 사회체육학과 교수가 북한씨름대회 해설자로 마이크를 잡는다. 오는 24일 오전 11시 영화오락채널 XTM을 통해 방송되는 ‘대황소상 북한민속씨름대회’에서 이만기 교수가 해설을 맡게 된 것. XTM 특집 ‘대황소상 북한민속씨름대회’는 2002년 단오에 북한에서 전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첫 씨름대회의 실황 녹화물로 이만기 교수는 최상용 캐스터와 함께 중계한다. 남한 씨름과 차이가 나는 북한 씨름 해설을 맡은 이만기 교수는 “북측 씨름은 모래판이 아닌 매트 위에서 한다는 점과 상의를 입은 채 기립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한다는 점, 체급이 없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면서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 뿌리에서 시작된 남북 씨름이 언젠가 다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기 교수는 현재 우리측 씨름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이 함께하는 씨름대회를 추진 중이다. 우승자에게는 900kg이나 나가는 ‘대황소’와 순금으로 제작된 금소방울이 주어지는 ‘대황소상 북한민속씨름대회’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2006년 9월에 제4차 대회가 열린 바 있다. 북한의 씨름 선수들은 국내 장사급 씨름대회에 출전하는 프로 선수들에 비해 그 기량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교적 가벼운 체중의 북한 선수들이 펼쳐 보이는 격렬한 기술 다툼이 국내 씨름 경기 이상의 흥미를 선사한다. 우리 씨름과 기술 용어가 다른 북측 씨름 용어에 대한 이만기 교수와 최상용 캐스터의 비교설명도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대황소상 북한민속씨름대회’는 CJ미디어가 2003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2003 남북방송인 토론회 및 방송 영상물 소개모임’을 통해 교차구매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4년 설날에 XTM을 통해 방송된 바 있다.

씨름판을 벌리고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고 저녁에는 탈판에 모여 탈놀이를 구경한다. 봉산 앞산 밑의 경수대에서 진행된 탈놀이는 사방에 화불을 걸어놓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하였다. 농악놀이는 농악무, 농악회, 농악노래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농악무에는 ‘마당돌기’와 ‘구정놀이’가 있다.¹³³⁾

마당돌기는 전원이 열을 지어 둥그렇게 돌며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는 원무이며, 구정놀이는 ‘영산놀이’라고도 하는데 잡이나 잡색이 각기 개성의 연기를 뽐내는 독무대다. 농악회는 희극적 놀이로 ‘진굿’ ‘문잡이’ ‘도적잡이’ 등과 잡색의 탈놀이로 이루어진다. 진굿은 분렬행진으로 군대가 진을 치고 조련하는 것을 본 딴 것이고 문잡이는 두 군사가 관문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모양을 형상한 놀이고, 도적잡이는 도적을 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놀이다.

함경도 북청지방의 돈돌라리춤은 속후 모래산 주변의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고, 광천지방에서는 단오날 농민들이 주동이 되어 쟁과리, 북, 장구, 징, 새납, 통소 등 민족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울리면서 마당놀이를 한다. 종성지방의 방천놀이는 여성들의 놀이로서 야외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민요를 부르고 한 해 동안 궁리해 낸 자작노래를 부르며 단오날 하루를 보낸다.

함남 광천일대에서는 마당에서 놀 때 ‘마당률’ ‘음률’ 논다고 한다. 주로 음력 단오날에 노는데 농악과 칼춤이 중심이다.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놀이패를 조직하고 마을의 ‘서재’(공동집회장)에서 준비를 한다. 마당놀이는 세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과장은 ‘마당률’로 농악놀이이다. 쟁과리, 북, 장구, 징, 새납, 무용수 등이 등장하며 무용수는 고깔을 쓰며 놀이꾼들은 상모를 돌리지 않는다. 무용수는 손목동작을 주소 사용하는데 긴 손수건을 들고, 장삼을 든 손목을 좌우로 펴고 젓히고 돌린다. 이러한 손동작은 함경도 지방 무용에만 전한다. 둘째과장은 ‘원률’로 칼춤이다. 이것은 소년들이 나와서 쌍무 또는 4인무로 되어 있으며 여자 옷차림으로 흰 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 한삼을 끼고 쾌자를 입는다. 양손에는 칼목이 꺾이는 무용칼을 쥐는다. 셋째과장은 통소경연이다. <애원성> <아스랑가> 등 함경도 민요를 주로 부른다. 기본종목은 <신아우>로 선율이 강렬하여 ‘고상한 애국주의와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혁명적인 기백과 전투적인 정신으로 고무되게 하였다’고 북한에서는 평가한다.

함경북도 방천놀이는 종성지방 여성들이 야외로 나가서 화전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오월단오와 유두 사이에 행하며 애원성, 성주풀이 등을 부르고 일제침략에 대한 반항, 조국의 운명예견, 계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연변조선족의 그네뛰기와 널뛰기, 농악무 등을 지정하였으며, 북한에서는 단오날 그네, 씨름, 탈놀이와 함께 지역별 민속체육놀이가 전승된다. 평양의 단오놀이는 다음과 같다.

평양단오명절놀이는 ‘3일놀이’라고 하여 음력 5월 4일은 창광산에서, 음력 5월 5일은 금수산(모란봉)의 앞동산에서, 6일은 금수산의 뒤동산에서 단오명절놀이를 하였다. 이때 금수산과 창관산의 로송들 가운데서 그네줄 매기에 적당하면서도 사람들이 모여 놀기도 좋은 곳에 그네가 설치되곤 하였는데 이곳에 녀인들이 때를 지어 모여 들어 그네를 뛰면서 즐기었다. 명절 옷차림을 화려하게 하고 모인 부녀자들과 처녀들, 아이들 그리고 로인들까지 초여름의 꽃향기 속에서 하루종일 그네뛰기에 날가는줄 몰랐으며 영명사 뜰앞에서 거행되는 남자들의 씨름과 광대놀이와 어울려 말 그대로 모란봉은 꽃바다, 사람바다를 펼치었다.¹³⁴⁾

133) 이정순 외, 《열두달민속이야기》 근로단체출판사, 2002, 111쪽

134) 이정순 외, 《열두달민속이야기》 근로단체출판사, 2002, 98쪽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속놀이를 강조하는 것은 인민성이 풍부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한 알기 쉽고 양반착취계급을 반영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낙천적 기상과 풍부한 정서가 넘치는 고유한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현재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민속놀이 대부분이 북한정권과 관련된 군사놀이나 체육경연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널뛰기나 그네뛰기는 단오날과 관련 없이 민족체육대회용 놀이로 바뀌어 거행되며, 농악도 5월 1일 국제노동절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에서 극장이나 야외공연 종목이 되었다. 줄다리기 역시 인민봉기의 형상으로 집단역량을 시위하며 투쟁정신을 배양하는 놀이로 장려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민속놀이를 (1) 무술연마놀이, (2) 체력단련놀이, (3) 지능겨루기놀이, (4) 인형 및 탈놀이, (5) 어린이놀이 등 다섯으로 나눈다.¹³⁵⁾ 무술을 연마하거나, 몸을 단련하는데 유익한 놀이, 머리를 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 노래와 춤이 한데 엉켜있는 가무놀이, 탈을 쓰고 춤을 추거나 행동을 보여주는 탈놀이, 인형을 조종하여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를 보여주는 인형놀이, 어린이들이 즐겨 노는 어린이놀이 등이 그것이다. 전통놀이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수박회는 <태권도>, 투호는 <화살던지기>, 람승도놀이는 <내나라 돌아보기> 등으로 바꾸었다.

북한에서는 황해도와 함경도의 탈놀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킨다 하여 발굴·복원·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탈놀이를 창조하였다. 2006년에는 봉산탈을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복원 및 개작하여 봉산탈춤의 경우 남북한 상호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봉산탈 전반형상에서 조선탈의 해학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22종의 탈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조형예술적으로 복원 및 개작하여 원전적 가치가 있게 완성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¹³⁶⁾ 북한 봉산탈춤은 1946년 6월 4일 평양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회의실(현재 당 창건사적관)에서 첫 공연이 되었는데 사리원지방민 2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후 1946년 11

135) 《조선의 민속전통》 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51쪽 “무술연마놀이 6개(활쏘기·칼쓰기·창쓰기·수박회 수박놀이·석전 돌팔매놀이, 탈타기) 체력단련놀이 14개(씨름·바줄당기기·자전놀이·짐나르기놀이·농기놀이·달리기·윤목놀이와 투호·널뛰기·그네뛰기·뚝다리놀이·격구와 타구·장치가·그밖의 구기놀이·기교놀이) 지능겨루기놀이 6개(장기·바둑·윷·람승도 중정도 성불도 작성도놀이·쌍륙·시세와 가투놀이) 인형 및 탈놀이 4개(꼭두각시놀이·봉산탈놀이·사자놀이·소놀이와 거부기놀이) 어린이놀이 체력단련놀이 40개(팽이치기·자치기·딱치치기·연띄우기·뚝치기·비사치기, 팔씨름·손잡아당기기·대말타기·말타기·썰매타기·제기차기·통차기·수박곡질·맞차기·무릎싸움·한발씨름·토끼뽕놀이·기마전놀이·길파라잡기놀이·깨끔발놀이·다리씨름·줄넘기·꼬리잡기·눈싸움놀이·목침뺏기놀이·그림자놀이·돌아잡기·까막잡기·닭잡기놀이·진놀이·진지점령놀이·수박따기놀이·수건돌리기·바람개비돌리기·사람찾기·가락지찾기놀이·가마타기·남대문놀이·그물치기놀이) 지능겨루기놀이 17개(산가지놀이·칠교놀이·실뜨기·꼬니·파별치기·고을모듬·글자찾기·풀문기·공기놀이·풀싸움과꽃싸움놀이·아이업어오기놀이·귀속말놀이·알치기·다리셈놀이·두꺼비집짓기·각시놀이·손뼉치기),

136) 《민족문화유산》 2006.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5쪽 <봉산탈의 복원 및 개작> “평양미술대학 주체미술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탈놀이로 발전한 봉산탈놀이에 쓰이는 탈을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새롭게 복원 및 개작하였다. 황해북도 봉산지방을 중심으로 인민들속에서 창작되어 즐겨온 봉산탈놀이는 그들이 행복에 대한 지향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항거의 정신을 반영한 진보적인 내용과 인민적인 춤동작이 들어 있는 귀중한 민속무용유산의 하나이다. …동지께서는 주체92(2003)년 6월 황해북도 은정축산전 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농장원들의 봉산탈춤을 보아주시고 작품에서 나오는 탈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전통적인 민속무용을 널리 보급하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가슴깊이 새긴 새세대 연구사 강남식을 비롯한 평양미술대학, 주체미술연구소 연구사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연구사업을 정열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가무놀이의 하나인 봉산탈놀이의 탈이 훌륭히 복원 및 개작됨으로써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민간미술의 우수한 전통을 소개 선전하며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학술적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또한 봉산탈의 원형을 보존하고 조선미술사교육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며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빛내일 수 있게 되었다.(조선중앙통신)”

월 사리원극장에서 봉산탈춤보존회가 결성되었고, 1955년 봉산탈춤을 기록영화로 영구보존 하도록 제작하였다. 이후 무성영화 봉산탈춤을 1987년 3월 다시 촬영하여 완성본을 만들었 으며 2003년 6월 13일 봉산군 온정리에서 농장원들이 봉산탈춤을 추었다.¹³⁷⁾ 북청사자놀 음도 무대공연, 대중오락, 체육경기응원에 도입되어 사자춤을 추고 체육대회 응원용으로 활 용되고 있다.

인형극은 꼭두각시놀이 혹은 박첨지놀이라 불린 제한된 주제의 놀이를 비판적으로 계승 발 전시킨다며 옛이야기, 과학환상작품, 계급교양과 애국주의교양작품, 우화와 동화 등 여러 주 제와 형식의 작품으로 바꾸었다. 인형극은 학생소년들에게 과학적환상의 나라를 펼쳐주는 것,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용감성과 대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인형극이나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형과 탈은 조형 예술적으로 세련되고, 산 사람이나 실물에 못지않게 다시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의 꼭두각시놀음은 전승되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인형극인 <놀보와 흥보> <무덤이> <꼬마사령관> 등이 창작 공연되고 있다.

4) 단오절 음식

한국의 단오음식은 수리치떡(艾葉糕, 車輪餅), 제호탕, 준치만두, 앵두편과 앵두화채 등이 있다.¹³⁸⁾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도행병, 준치국, 붕어찜도 단오시식이다. 단오날 먹는 수리 치떡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 날 쭉을 뜯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모양을 달구지 바 퀴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날을 ‘술의날’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단오날에 새로 돌아나는 수리취나 쭉을 뜯어 떡을 해먹으며 여러 가지 놀이로 하루를 보냈다.”고 하였다.¹³⁹⁾

북한의 열 두달 민족음식 가운데 5월중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쭉떡, 취떡, 설기떡, 상화떡이며 제호탕(청량음료의 일종)과 각서(떡의 일종) 등이다. 5월에는 햇보리, 오이가 나 오는 계절이므로 햇보리와 오이로 만든 음식들도 이채를 띤다고 한다.¹⁴⁰⁾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리취를 뜯어 떡을 해먹고 ‘떡쭉’이라 하여 참쭉을 뜯어 떡을 해먹고 있으나 가뭄과 홍수 등으로 쌀이 귀하고 쌀값이 폭등하여 쭉이나 수리취를 뜯어다가 밀가루 에 범벅으로 무쳐 먹기도 한다. 쭉떡은 쭉송편과 쭉찰떡이 있는데 “쭉은 사람의 몸을 덥게

137) 《민족문화유산》 2007,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7쪽 <민속무용 봉산탈춤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숭 고한 조국애> “오랜 역사를 가진 탈춤이 일제놈들에 의하여 파묻혀 있었지만 봉산지방에서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선조들이 남긴 유산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아내어 우리 인 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산탈춤을 더 훌륭한 민속무용으로 완성한데 대한 방 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탈춤에 나오는 춤가락들은 활달하고 독특한 맛이 있지만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서 추었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 올릴 때에는 거기에 맞게 추려서 해야 한다고, 탈을 쓰고 하는 녀두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고 춤을 기본으로 하여 향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었다.……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 재부를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 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작품의 가면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전통적인 민속무용을 널 리 보급하여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138) 최영진, 《강릉전통단오음식》 청옥, 2006, 11쪽

139)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146쪽

140) 립찬영, <음력으로 본 열두달 민족음식> 《조선의 특산료리》 평양출판사, 2005, 243쪽

하고 위장을 든든하게 한다. 쑥을 넣어 만든 떡은 향기롭게 찰기가 있으며 떡이 줄기줄기해지며 쉽게 굳어지지 않는다. 또한 맛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언급한다.¹⁴¹⁾ 이처럼 단오명절에는 쑥떡, 수리취떡, 설기떡(시루떡), 상화떡(기지떡), 제호탕, 분단, 앵두화채 등을 특색 있는 음식으로 꼽는다.

5월 단오를 상징하는 명절식은 쑥떡이다. 단오가 되면 여성들은 쑥을 뜯어다가 떡이나 절편을 만든다. 쑥떡을 계절식으로서 향기가 좋고 독특한 맛과 색 같이 있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음식물로서 널리 전해지고 있다. 그 외 단오 때에는 호박, 오이 등이 열리고 호박채, 오이채, 호박전 등을 만들어 이웃 사람과 서로 나누거나 한다. 단오에는 산과 들판의 경치가 좋은 곳에 모여서 하루를 즐긴다.¹⁴²⁾

북한 단오절에는 수리취떡과 수리취밥, 쑥떡을 많이 해먹고 있다. 단오날에 먹는 ‘수리취떡’은 쑥으로 만든 것이다. 즉 戊衣草는 쑥과 같은 종류로 《本草綱目》에서는 狗舌草라 하여 천년 묵은 좋은 쑥을 지칭했다. 산에서 나는 수리취는 쑥의 변종으로 불을 붙이는 부시깃을 하는 일이나 식용으로 먹고 향기로운 풍미는 쑥과 같은 기능을 한다. 쑥잎 등쪽의 젖빛 흰 솜털을 긁어모아 붉은 도장밥이라는 인주를 만든다. 고려시대 <동동>에 언급된 즈른 해인 천년을 장수할 약은 단오날 쑥물이나 익모초의 민간 단방약을 먹던 관습으로 보인다.¹⁴³⁾

수리취떡은 쑥잎이 작고 등이 흰 것을 골라 뜯어다가 짓이겨서 멥쌀가루 속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을 하여 만든다. 이것을 굳이 ‘쑥떡’이라 하지 않고 ‘수리취떡’이라 하는 것도 어원상 ‘수리’와 연관이 되는데 태양이 정수리에 오는 날이라는 뜻을 살린 말로 풀이된다. 수릿날 정오에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습속이 바로 이러한 뜻을 살려서 생긴 것이다.¹⁴⁴⁾

옛날에는 쑥과 수리취를 구분하지 않았다. 영거시과의 풀, 쑥으로 만드는 원래의 수리취잎을 넣어 찐 시루떡을 수리취떡이라고도 한다. 이 수리취도 향내와 약효가 쑥과 비슷하고 부시깃과 침구요법에 사용되고 쑥처럼 구설초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북한의 민속명절 요리책자에는 만드는 단오 음식감과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⁴⁵⁾

[수리취떡 음식감]

흰쌀가루 500 g, 수리취 100 g, 소금 5 g, 참기름 10 g

[만드는 법]

① 수리취는 다듬어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넣고 데쳐서 찬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다음 물을 꼭 짜고 썬다.

② 흰 쌀가루는 끓는 소금물에 익반죽하여 떡반대기를 만든 다음 찜가마의 시루에 안쳐 썬 김에서 찐다. 이것을 꺼내어 수리취를 두고 고루 치댄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둥글 납작하게 빗어서 참기름을 발라 그릇에 담아낸다.

141) 《자랑높은 조선민족음식 1. 떡》 평양 조선출판물교류협회, 1998, 화보

142) 임도준, 《조선의 민속전통》 5, 과학백과사전편찬위원회, 1994, 27쪽

143) 장정룡, <세시풍속과 강릉단오제 콘텐츠> 강원도민속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6.18, 187쪽

144) 최창렬, 《아름다운 민속어원》, 신아출판사, 1989, 108쪽

145) 김문흡·리길황, 《민속명절료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5, 114~116쪽

※ 수리취는 줄기가 곧추 자라고 가지를 치며 잎의 앞면은 기름기가 도는 푸른색을 띠고 뒤면은 세로 간 잎줄기가 있으며, 흰숨털이 덮여있는 취의 한 종류인데 작은 수리취와 큰 수리취가 있다. 수리취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고 무기질과 비타민B, C 함량이 풍부하며 맛도 좋다. 뿌리채로 캐서 수리취밥도 만들어 먹는다.

[쭈절편 음식감]

흰쌀 500g, 떡쭈 50g, 소금 5g, 참기름 10g

[만드는법]

① 흰쌀은 깨끗이 씻어 일어서 찬물에 다가 불끈 다음 물망질을 하여 베친에 싸서 물을 짜우고 해별에 부슬부슬하게 말리운다. 여기서 끓는 소금물을 부어 익반죽한 다음 큼직큼직한 반대기 모양으로 빗어 찜가마의 시루에 안쳐 김에서 찜는다.

② 쭈는 다듬어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다음 물을 꼭 짜고 절구에 넣고 찧는다.

③ 찜 떡에 쭈를 두고 잘 치댄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등글납작하게 빗는다. 이것을 떡살로 찍어 수레바퀴 무늬를 새긴 다음 참기름을 발라 그릇에 담아낸다.

※ 쭈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산기슭, 산골짜기들이나 길가, 언덕 등의 양지 바른곳에서 무리로 자란다. 우리나라에는 쭈이 35종이나 되는데 흔히 떡쭈이라고 하는 참쭈를 식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쭈에는 칼슘, 섬유소, 비타민C, B1와 엽록소가 많이 들어 있으며 쪄내올이라는 정유가 있어 독특한 향기를 낸다.

5) 단오절 생업속

단오 무렵이 되면 서해에서는 준치잡이를 한다. 준치는 ‘진어’라 불릴 정도로 서해의 고급 어족이다. 준치는 자망, 풀거리, 덩장 같은 그물을 쳐서 잡는데 음력 5월 중순에 이르면 준치들이 알을 낳기 위해 풀등(개펄, 진펄에서 썰물 때 드러나는 등마루벌)을 넘나든다. 준치는 단오 때 만두를 만들어서 먹거나 준치국을 끓여 먹는다.

준치는 꼬리에 가시가 많은데 옛 문헌에는 준치에 가시가 많은 것이 다섯 가지 우환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한다. “준치는 가시 많은 것이 한이요, 홍어는 가시 없는 것이 한이요, 누런 굴은 매우 신 것이 한이요, 순채는 이가 시린 것이 한이요, 모란꽃은 향기 없는 것이 한이로다”라고 하여 맛있고 기름진 진귀한 어족이라는 뜻의 ‘진어’ 준치의 가시를 한탄하였다. 서해의 고급어족 진어로서 준치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부터 준치는 고기 맛이 하도 좋고 가시까지 없었던 까닭에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할 때 준치를 골라가며 잡아냈다고 한다. 결국 얼마 못가서 준치는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급해난 룡왕은 비상회의를 열고 모든 물고기들을 불러 들어서 준치의 멸종원인과 대책적 문제를 토의 연구하게 하였다. 토의결과 준치에게 가시가 없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룡왕은 사람들이 준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가시 많은 물고기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모든 물고기들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 한 개씩 뽑아서 준치의 몸뚱이에 꽂아 줄 것을 어명하였다. 슬한 물고

기들이 룡왕의 어명에 따라 제각기 자기의 가시 한 개씩 뽑아서 준치의 몸뚱이에 꽂아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가시가 여찌나 많았던지 한동안 아픔을 참고 있던 준치는 동통을 이겨 낼 수 없어 그만 도망치게 되었다. 준치가 도망치는데도 술한 물고기들이 쫓아가면서 가시를 꽂아주었기 때문에 자연히 준치의 꼬리에는 가시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¹⁴⁶⁾

준치는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다 하여 진어(眞魚)라 하는데 가시가 많으므로 통째로 찌서 윗부분의 살을 나무젓가락으로 들어내고, 가운데 가시를 들어낸 다음 다시 고운체에 내려서 잔가시를 골라낸다. 살만 발라 둥근 완자를 만들어 국을 끓이거나 밀가루에 여러 번 굴러 준치만두를 만든다.¹⁴⁷⁾

IV.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단오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현지를 직접 답사하지 못하고 단오절에 대한 간접 기술 자료들을 엮었다. 아직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은 남북분단이 가져온 아픔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학자들이 직접 북한지역을 답사하여 민속연구를 시도할 날이 곧 다가오기만 바랄 뿐이다.

북한 단오절에 대해서는 주로 북한의 자료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논자의 비평이나 견해를 축소하였다. 먼저 북한단오절의 특징을 살폈고, 실제와 양상에서는 단오절 유래, 습속, 놀이, 음식, 생업속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인민들이 여전히 최고의 민속명절로 여기고 있는 단오절이지만 음력설이나 한가위날에 밀려나고, 이른바 김정일·김일성 생일 등 사회주의명절이나 기념명절, 국가명절의 기세에 눌려서 겨우 그 명맥을 잔존하는 실정이다.

앞서 논했듯이 북한 단오절은 그들의 법정 민속명절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야 어쨌든 단오절은 여타의 사회주의 명절과 달리 체육행사나 오락 등으로 축소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오습속으로 행해진 썩떡, 수리치떡 먹기, 창포머리감기 민속 등은 잔존되어 있고, 주로 놀이와 음식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놀이는 여성의 그네뛰기와 남성의 씨름이 단오날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씨름의 경우 이른바 장군님에 의한 교시민속으로 형식이나 방법, 시상 방법 등을 바꾸어 ‘대황소 전국민족씨름경기’를 2002년부터 단오날에 행하고 있으며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하여 2006년 9월에 제4차 대회가 열렸다.

단오음식은 수리취떡, 썩떡 등을 만들어 먹는 것이 민속명절요리로 알려졌다. 집단 단오놀이는 방천놀이, 마당놀이, 탈놀이 등이 있는데 봉산탈이나 북청탈의 경우 탈모양이나 색깔을 개조하여 남북한간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단오절의 전통을 계승한 강릉단오제는 지난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05년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세계적인 세시명절축제로 탄생했으며 이를 시발전의 중심으로 삼고 단오

146) 이정순 외, 《열두달민속이야기》 근로단체출판사, 2002, 113~114쪽

147) 최영진, 《강릉전통단오음식》 청우, 2006, 11쪽

창조도시를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중화민족의 전래명절인 단오절을 세계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중국의 여러 지역 다양한 단오민속을 하나로 묶어 국제적 상품으로 만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단오민속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류하고 결집하여 한민족 고유한 민속요소를 계승하여 아시아단오의 중심권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 과학원출판사, 1958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조선의 민속놀이,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재미나는 유희와 오락, 사로청출판사, 1974
김광연,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출판부, 1982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한시집 3, 평양 문예출판사, 1998
최인학, 북한의 민속,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리제오, 조선민속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최창렬, 아름다운 민속어원, 신아출판사, 1989
사회과학원민속학연구소,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한진진,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 연변인민출판사, 1990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方皖柱, 朝鮮民俗, 조선 平壤外文出版社, 1990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1991
오창원, 우리나라 지리와 풍속, 금성청년출판사, 1991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주강현, 풍습으로 본 북한의 주민생활, 공보처, 1993
한성겸, 재미있는 민속놀이, 금성청년출판사, 1994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4
인권환 외,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7
자랑높은 조선민족음식 1, 떡, 조선출판물교류협회, 1998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장정룡 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염종률, 조선말 단어의 유래,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1
장정룡 외, 아시아의 단오민속, 국학자료원, 2002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2002
리정순 외, 열두 달 민속이야기, 근로단체출판사, 2002
조대일 외, 조선민속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김인호, 어원유래상식 1, 사회과학출판사, 2005
김문흡·리길황, 민속명절료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5

- 조제화, 조선의 특산료리, 평양출판사, 2005
- 최영진, 강릉 전통단오음식, 청옥, 2006
-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 민족문화유산 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 장정룡,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박물관, 2007
- 장정룡, 속초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개발, 속초문화 23호, 2007
- 장정룡, 북한지역 북청사자놀이, 속초문화 23호, 2007
- 장정룡, 세시풍속과 강릉단오제콘텐츠, 강원도민속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2007
- 장정룡, 강릉단오제 현장론 탐구, 국학자료원, 2007

중국조선족의 단오명절풍속과 그 전승양상 연구

허휘훈 *

차 례

머리말

1. 조선족 단오명절의 전승 역사
2. 조선족 단오명절의 존재양상
3. 조선족 단오명절의 변모

마무리

키워드: 중국, 조선족, 세시민속, 단오, 전승, 변이, 정체성

머리말

조선족은 중국대지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때로부터 줄곧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오기에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 조선족의 생활문화를 지탱해준 것은 바로 민속이다. 조선족의 민속은 민족전통에 뿌리를 두고 또 주변의 타민족문화와 조화를 이룬 독특한 문화적 존재로서 자기적인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끈질긴 문화적 생명력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조선족의 민속에는 단오명절과 같은 세시풍속도 들어있으며 그것은 조선족생활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조선족의 민속과 그 전승을 연구하는 것은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간직해온 삶의 방식과 관습들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의는 조선족의 세시민속에서 단오명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조선족사회에서의 그 전승양상을 살펴보면서 조선족들이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을 어떻게 보존, 계승해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거론된 자료적 사실들은 역사적인 문헌자료에 의거하는 한편 또 연구자 자신이 조선족사회의 일원이며 그 문화의 전승주체로서 실제로 보고 겪은 것들도 포함시켰다는 것을 밝혀 준다.

1. 조선족 단오명절의 전승 역사

단오는 조선족의 전통적인 4대명절의 하나이다.¹⁴⁸⁾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족의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연변조선족민속학회 회장.

148) 조선족의 전통적인 4대 명절은 설, 청명, 단오, 추석이다.

단오민속은 그들이 조선반도로부터 지니고 들어온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선족의 단오민속은 천입초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변천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 끈질기게 민속명절로서의 전통을 기본적으로 이어오는 한편 나름대로 주변 문화의 영향도 받아들이면서 다원적 특성을 지닌 조선족 민속 문화의 한 부분으로 지속되어왔다.

조선족 단오민속의 전승 역사는 대체로 네 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조선족의 세시풍속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조선반도로부터 이주해온 시간이 짧았고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은 채 조선족 집단촌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민족습관을 지키며 생활할 수가 있었다.¹⁴⁹⁾

이 시기 조선족들이 집거해 살고 있는 농촌들에서는 단오 날부터 대엿새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즐겁게 명절을 쇠었다.¹⁵⁰⁾ 단오명절기간에 진행된 민속행사들을 보면 쑥떡, 칼떡 등 떡들을 만들어 먹고 그네뛰기, 씨름 등 놀이를 하며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가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이 시기 단오민속행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변지역의 조선족 중학교와 소학교들에서 단오 날에 체육운동대회를 열고 반일적인 성격을 띤 활동들을 거행한 사실이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1913년 단오명절 때 연길시 조선족들이 국자가에서 체육운동대회를 이틀간 열었는데 무려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였으며 체육경기 종목 외에 병식체조(兵式體操), 조선지리와 조선역사에 관한 지식경연 등과 거리행진도 진행하여 실지는 일종의 반일시위와 다름없었다.¹⁵¹⁾

그런데 1932년 위만주국 수립이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조선족의 생활문화에 막대한 피해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족들은 그에 맞서 싸우며 단오민속을 포함한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을 지켜왔다.

둘째 단계는 건국이후 17년 시기(1949~1966)이다. 이 시기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이다. 조선족은 항일전쟁 기간 일제와의 피어린 혈전에 앞장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¹⁵²⁾ 해방전쟁시기에는 국민당 반동정권과의 최후결전에서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당당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었고 또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자치정책으로 하여 자기의 자치주를 세울 수 있었다. 이는 조선족이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견실한 토대로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 조선족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이 간소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라는 민족공동체의 성립이 민족문화의 지속을 보장하고 민족적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조선족의 세시풍속은 계속 유지

149) 유병수: 「조선족 세시풍속 연구」, 박사학위논문(중국 연변대학교), 2003년, 120쪽.

150) 천수산: 『중국조선족 세시풍속』, 연변인민출판사, 1998년, 87쪽.

151) 박창목 등: 『중국조선족문화사대계7·민속사』, 민족출판사, 2000년, 416쪽.

152) 항일전쟁 기간 연변지역에서 항일 열사가 3125명이 나왔는데 그중 조선족이 3026명에 달한다.

보존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조선족들은 단오를 중요한 전통적 명절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단오 날이 되면 썩떡과 같은 절식(節食)도 만들어 먹고 성묘도 가고 그네, 씨름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했다. 그리고 해방 전부터 전해온 단오명절기간에 운동경기를 하는 풍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을을 단위로 민속놀이 경기를 벌였다. 이는 특히 조선반도 북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연변지역과 목단강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셋째 단계는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이다. 이 시기에는 이른바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들을 쓸어버리는 운동으로 하여 조선족민속이 많이 파괴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단오민속은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면서 민간에 어느 정도 잔존하였는데 그것은 절식(節食)풍속을 통해 명맥을 이어갔다. 다시 말하면 성묘와 같은 제의행사와 씨름, 그네와 같은 민속놀이는 사라졌으나 단오에 돼지나 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 풍속은 여전히 존속되었다.¹⁵³⁾

넷째 단계는 개혁개방이후 시기(1978년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문화대혁명”기간에 파괴되었던 조선족 세시풍속들이 점차 복구되어갔으며 조선족들은 명절 때마다 민족 고유의 풍속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단오민속도 회복되었으며 그것은 점차 축제화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를테면 연변의 룡정시 부유향 부유촌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오를 마을의 민속절로 정하고 해마다 경축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오 날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민족복식을 차려입고 씨름,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도 하고 물동이춤 등 민속춤도 취서 명절을 흥성하게 즐긴다.¹⁵⁴⁾

이 같은 단오축제는 연변지역뿐 아니라 기타 조선족 집거 지역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예하면 1996년 단오 날 장춘(長春)시에서는 조선족시민 7천여 명이 참가한 단오명절축제가 열리었다. 축제에서는 그네, 널뛰기, 씨름 등 민속놀이들이 진행되었고 점심회식을 한 뒤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¹⁵⁵⁾같은 날 길림(吉林)시에서도 조선족 수천 명이 참가한 단오축제가 열리었다.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민속춤들을 추었는데 그중 남도 풍격이 짙은 농악무가 특별히 인기를 끌었다.¹⁵⁶⁾이외에 요녕성 대련시에서도 근간 민족가무로 아름답게 장식된 조선족들의 단오축제가 거행되고 있다.¹⁵⁷⁾

이처럼 조선족 단오민속은 조선족의 천입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단오명절의 주요 풍속들은 조선족민중들 속에서 일종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명절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다. 물론 일부 변화도 생겼지만 그 기본적인

153) 필자가 “문화대혁명”기간에 “지식청년”의 신분으로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던 때에 직접 체험한 사실로서 경제적 여건이 괜찮을 때는 소를 잡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돼지를 잡는다.

154) 박창목 등: 『중국조선족문화사대계7·민속사』, 민족출판사, 2000년, 417쪽.

155) 김정애: 「단오명절 얼씨구 잔치 한마당(1)」, 『길림신문』 1996년 6월25일.

156) 엄정자: 「단오명절 얼씨구 잔치 한마당(2)」, 『길림신문』 1996년 6월25일.

157) 유병수: 「조선족 세시풍속 연구」, 박사학위논문(중국 연변대학교), 2003년, 158쪽.

인 것들은 시종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족 단오명절의 존재양상

단오는 여름철 민간명절의 하나로서 다채로운 내용과 행사를 포함하고 있는바 그것은 대체로 명절음식, 민속놀이, 제의행사와 기타 민속활동 등 몇 개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명절음식

조선족들이 단오 날에 먹는 명절음식으로는 쫄떡, 찰떡, 시루떡, 녹두전 등이 있다.¹⁵⁸⁾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쫄떡과 녹두전이다.

쫄떡은 쫄을 짓궂어서 쌀가루와 함께 반죽해서 파란 물이 들게 하여 익힌 뒤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쫄떡은 보통 절편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송편으로 빚기도 하는데 절편으로 만드는 경우가 보다 많다. 쫄은 사람의 몸에 지나치게 들어있는 소금기를 내보내는 작용과 함께 위장을 든든하게 하고 피부색도 좋게 한다.¹⁵⁹⁾ 이런 쫄으로 만든 쫄떡은 단오를 상징하는 명절음식 일뿐 아니라 또 여름철의 특색 있는 계절음식으로서 향기롭고 독특한 맛과 고운 색상으로 하여 조선족 민중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녹두전은 녹두를 물망에 갈아서 둥글 납적하게 지진 것이다. 녹두전의 부재료로는 김치를 가늘게 썬 것을 쓴다. 녹두전은 그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아 전(煎) 종류 가운데서 으뜸으로 꼽힌다. 이런 녹두전 역시 조선족들이 즐겨 먹는 여름철의 계절음식일 뿐 아니라 또 쫄떡과 함께 단오명절에 먹는 절식(節食)으로 민간에 오래 동안 전승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50년대까지 시골의 조선족 마을들에서는 단오가 되면 연변지역에서 일명 감주라 불리는 막걸리를 빚어서 마을 회식에도 쓰고 집에서도 마셨다.

이외에 단오명절의 식생활풍속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소를 잡아 그 고기를 마을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또 고기의 일부를 남겨 마을공동체 회식을 하는 풍속이다. 이 풍속에 따르면 단오 전날에 소를 잡아 각 부위의 고기들을 집집마다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데 이는 좋은 부위를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균등분여법이다. 고기 분여가 끝나면 남긴 회식용 고기로 마을 전체가 참가하는 회식이 진행된다.¹⁶⁰⁾ 이 풍속은 예로부터 함경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단오와 추석에 소를 잡아먹는 식생활 관습을 계승한 것으로서 육식생활이 풍족치 못했던 20세기 60~70년대에는 매우 필요했다. 그때 사람들은 대체로 육류를 1년에 세 번씩 맛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정초, 단오, 추석 등 전통명절기간이야만 가능했다. 그 뒤 개혁개방이후 민중들의 식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면서 소를 잡아 회식하는 풍속은 점차 소실되어가고 있다.

민속놀이

158) 박창목 등: 『중국조선족문화사대계7·민속사』, 민족출판사, 2000년, 416쪽.

159) 조범희, 오금순: 『계절음식』 (제2판), 근로단체출판사, 1991년, 10쪽.

160) 필자가 20세기 70년대 시골에서 6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던 시기에 직접 체험한 사실이다.

단오는 만주지역에서 볼 때 모내기가 끝나고 김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맞게 되는 명절이다. 그러기에 이 지역에 사는 조선족들은 단오를 파종이 끝난 것을 경축하고 다음 단계의 김매기를 위해 필요한 휴식을 하면서 즐겁게 노는 날로 간주한다. 따라서 단오 날은 여러 가지 즐거운 민속놀이로 흥성거린다.

조선족들이 단오 날에 벌이는 주요한 민속놀이로는 씨름, 그네, 널뛰기 등이 있다. 이런 민속놀이들은 운동경기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마을을 단위로 하기도 하고 또는 집거구역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농촌마을들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씨름은 남자들의 민속놀이로서 모래를 두툼하게 깔아 둥그스름하게 만든 씨름판에서 진행하는데 그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담을 쌓듯이 둘러서서 하늘이 떠나갈듯 함성을 지른다. 조선족의 씨름에서 독특한 것은 살바(연변 방언에서는 “쑥새”라 부름)이다. 그것은 넓적 다리에 매고 상대방이 그것을 잡도록 된 것이 아니라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매듭지은 무명으로 되었는데 사타구니에 건 뒤 상대방이 왼쪽 팔에 그것을 걸도록 되었다.

그네뛰기는 여자들의 민속놀이로서 전망이 좋은 곳의 큰 나뭇가지 또는 두 대의 긴 기둥나무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건너 맨 가름대에 두개의 밧줄을 벌려 매여 그네를 설치하고 진행한다. 그네뛰기는 흔히 경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네 앞쪽에 방울을 매단 줄을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차도록 하는 것이다.

실로 단오 날의 씨름과 그네뛰기는 파종 특히는 모내기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즐거운 민속놀이인 동시에 또한 신바람 나는 구경거리이기도 했다.

광복 전에 단오 날의 씨름과 그네뛰기는 특수한 반일활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연변지역에서 수집된 구비설화자료에는 단오 날 조선족 여성들이 그네뛰기를 이용하여 반일투사들의 모임을 위해 보초를 서주었다는 전설이 있는가 하면 또 단오 날 씨름판에 반일투사들이 침투하여 민중들에게 반일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선동사업을 벌였다는 전설도 있다.¹⁶¹⁾

그리고 널뛰기는 여자들의 민속놀이로서 단오 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네뛰기처럼 널리 진행되지는 않았다.

제의행사

조선족들의 단오명절풍속에서 민속신앙적인 행사는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성묘와 용신(龍神)제사가 있다.

단오 날의 성묘는 속절제(俗節祭)의 일종으로서 단오 날 쑥떡을 비롯한 음식들을 차려 가지고 산소에 가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이때 봉분은 그대로 두고 제사만 지낸다. 민속학적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요녕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해마다 청명, 단오, 추석에 각각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조상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대접하는 것”이라 한다.¹⁶²⁾

161) 박창목 등: 『중국조선족문화사대계7·민속사』, 민족출판사, 2000년, 417쪽.

162) 천수산: 『중국조선족 세시풍속』, 연변인민출판사, 1998년, 88쪽.

단오날의 성묘는 오늘도 시골에서 노인들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민속조사자료에 의하면 화룡시 두도진 명성촌과 같은 마을에서는 근간에도 단오날 노인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¹⁶³⁾ 그러나 단오 성묘는 날로 적어지는 추세이다.

용신제사는 단오 날을 “수뢰날(水瀨日)”이라 하면서 강가에 가서 밥을 뿌려 넣는 것인데 이는 일종 수신(水神)에 대한 제사로서 용신을 대접하는 의미를 지닌다.¹⁶⁴⁾ 이 용신제사는 해방 전까지 전해오다가 후에는 사라졌다.

기타 민속활동

단오 날 조선족들은 머리감기, 물맞이, 약초 캐기 등을 한다. 이는 여성들이 진행하는 민속활동들이다.

머리감기는 창포나 약쭉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발에 윤기가 나고 머리칼이 빠지지 않는다 한다.

물맞이는 인근의 강가에 가서 물로 몸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무병건강하다 한다.

약초 캐기는 쑥이나 익모초를 뜯어오는 것인데 그것들을 뜯어다가 말려서 보관해 두고 후일에 약재로 쓴다.

이러한 민속행사들은 20세기 60년대 초까지 존속되어 오다가 후에는 대부분 지역들에서 점차 사라졌다. 그런데 흑룡강성 오상시 민락조선족향 신타촌과 같은 개별적인 지역에는 창포와 관련된 풍속들이 오늘까지 남아있다.¹⁶⁵⁾

3. 조선족 단오명절의 변모

조선족의 단오명절풍속은 끈질긴 문화적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전승되어 왔으며 또 그 과정에 현실에 적응해가면서 일정한 변화도 생겼다. 이런 변화는 아래의 몇 개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전승주체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의 단오명절풍속은 농경문화조건하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기에 그것을 계승하는 주체는 농민을 위주로 하는 민중들이었다. 그런데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업사회가 형성되고 도시문화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단오명절풍속의 전승주체는 농민에서 도시시민으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주로 농촌에서 농민들에 의해 행해지던 단오명절풍속들이 오늘은 도회지에서 시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개혁개방이후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단오민속을 보존하고 계승해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화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단오명절의 대표적인 음식민속과 놀이민속이 현대적인 상업의식과 문화정신의 침투로 하여 점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의 단오민속에서 명절의 표징으로 되는 것은 쑥떡과 씨름, 그네뛰기이다.

163) 유병수: 「조선족 세시풍속 연구」, 박사학위논문(중국 연변대학교), 2003년, 94쪽.

164) 홍세우: 『조선족민속』, 연변인민출판사, 1982년, 105쪽.

165)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998년, 255쪽.

쑥떡은 20세기 60년대까지만 해도 단오 때에만 만들어 먹는 특수한 명절음식이었다. 하지만 근간에 와서 쑥떡의 명절음식으로서의 유일성(唯一性)과 상징성이 보다 크고 넓은 의미에서의 민족성과 상업화로 확대되면서 쑥떡은 특정된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상화(日常化), 시장화(市場化)된 민속음식의 하나로 되었다. 그리하여 쑥떡은 오늘날 조선족의 식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의 일종으로, 조선족 음식문화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민속음식의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씨름은 단오를 상징하는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씨름은 천입초기에는 일종의 민속놀이로 전승되어오다가 1912년부터 전문화된 운동경기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¹⁶⁶⁾ 그때부터 1960년대 초까지 동북3성에 사는 조선족들은 각각 자기들의 주거지역들에서 해마다 단오 날에 씨름대회를 열었다. 해방 후에 씨름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민족체육경기종목의 하나로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족들은 단오나 추석 같은 민속명절 때 씨름대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종합적인 운동대회에서도 씨름을 전격적인 경기종목으로 정하였다.

그네뛰기도 처음에는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오다가 20세기 30년대에 전격적인 운동경기종목으로 부상되었는바 1930년 단오에 용정시 대성중학교 운동장에서 조선족 여성단체인 용정 근우회의 주최로 열린 그네대회가 조선족의 첫 그네경기대회였다.¹⁶⁷⁾ 이를 계기로 그네뛰기는 조선족의 민족운동경기종목의 하나로 되었다. 해방 후 그네뛰기는 조선족의 전통적인 민족체육종목으로 널리 알려졌고 1986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운동위원회로부터 전국소수민족운동경기대회의 전격적인 경기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에서 처음으로 선정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작의 하나로 등재되었다.

이처럼 단오에 관한 풍속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발전되어가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단오와 문화적으로 잘 연계시킴으로써 단오명절을 축제화 하는 방안이 탐구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셋째는 주변 기타 민족의 단오풍속을 수용한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에 정착한 뒤 민족 고유의 생활풍속을 지켜오는 한편 또 한족을 비롯한 기타 민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그들의 생활문화를 받아들여 다원적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생활문화를 이루었다. 조선족의 단오풍속도 마찬가지이다.

단오민속에서 조선족이 주체민족인 한족의 풍속을 수용한 것으로는 쑥(粽子) 먹기와 쑥 걸기 등을 들 수 있다. 쑥지는 한족들이 단오에 먹는 명절음식으로서 찹쌀과 대추를 대나무 잎으로 싸서 찐 것인데 그 형태는 삼각형이다. 조선족도 이 식속(食俗)을 수용하여 단오에 쑥지를 먹는데 한족들처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사서 먹는다. 쑥 걸기 역시 한족들의 단오풍속의 하나로서 단오 날 아침에 쑥을 꺾어다가 처마 밑이나 대문에 걸어놓는 것이다. 조선족들도 이를 본받아 쑥

166) 윤학주 등: 『중국조선족문화사대계11·체육사』, 민족출판사, 1998년, 561쪽.

167) 동상서, 569쪽.

을 걸어둔다.

조선족이 한족의 단오풍속을 수용하는데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체성에 입각한 수용자세이다. 즉 타민족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자기 민족의 풍속을 자리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을 보존하면서 한족의 풍속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족이 한족의 풍속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단오민속을 보다 풍부화 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오는 말

조선족은 중국에 정착하여 살아오면서 새롭게 조성된 생활환경속에서 단오를 비롯한 민족고유의 세시풍속을 보존하고 계승해왔다. 이는 생활문화에서 민족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한 민족을 그 민족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민족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또한 다민족적인 문화 생태적 조건하에 생활해오면서 현대문화의 다양성 요구에 부응하여 주변 기타 민족들의 세시풍속도 수용하여 자기의 세시풍속을 풍부화 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조선족의 세시풍속을 보다 잘 보존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글로벌화의 진척에 따라 단오를 비롯한 세시풍속이 그 이름만 남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함경도의 세시풍속전통을 계승하여 연변지역에서 단오명절을 비롯한 민속명절들을 축제화 하는 것은 민족전통을 살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될 수 있다. 조선족 특유의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과 특수성을 축제에 반영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조선족의 단오민속을 연구하는 것도 세시풍속의 부흥을 통해 조선족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조선족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 하겠다.

주요 참고문헌

홍세우: 『조선족민속』, 연변인민출판사, 1982년.

박창묵 등: 『중국조선족문화사대계7·민속사』, 민족출판사, 2000년.

윤학주 등: 『중국조선족문화사대계11·체육사』, 민족출판사, 1998년

천수산: 『중국조선족 세시풍속』, 연변인민출판사, 1998년.

유병수: 「조선족 세시풍속 연구」, 박사학위논문(중국 연변대학교), 2003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4)』, 1981년.

장정룡 등: 『아시아의 단오민속』, 국학자료원, 2002년.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996년.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997년.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998년.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조선의 민속전통(5)』, 1994년.

선희창: 『민속명절과 풍속』, 금성청년출판사, 1992년.

조범희, 오금순: 『계절음식』 (제2판), 근로단체출판사, 1991년.